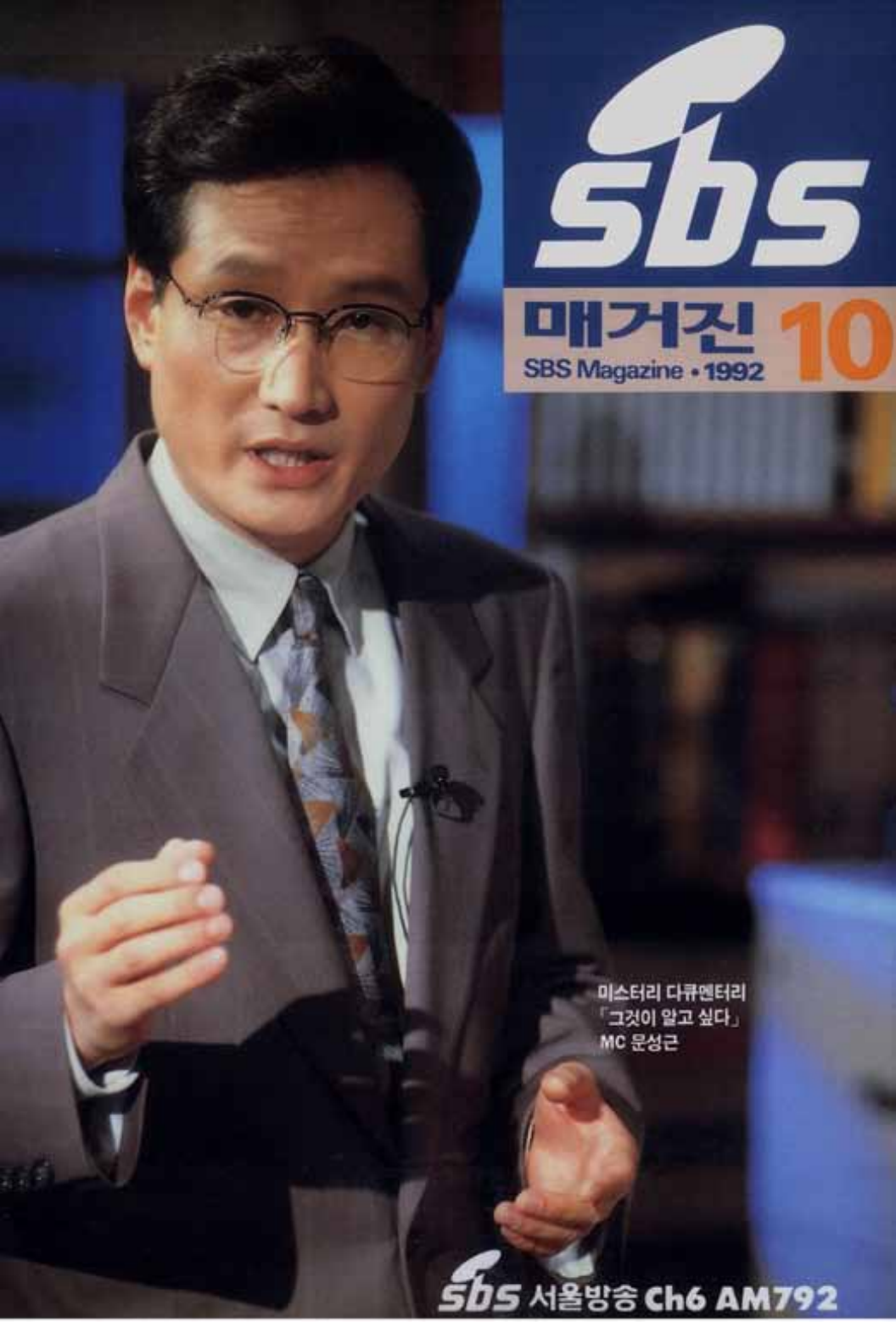




sbs

매거진 10
SBS Magazine • 1992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MC 문성근

sbs 서울방송 Ch6 AM792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MC 문성근

알 수 없는 세상 응시하는 ‘생각하는 광대’

일요일 밤에 사람들은 대개 멍한 표정을 짓는다. 집과 일터를 바쁘 오가던 사이클이 일시 중지된 데 따른 일종의 무력감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굳이 그 감정을 싫어하지만은 않는다. 그대신 하루쯤 더 쉬었으면 좋겠다는 허탈한 욕망이 자리잡는 것이다.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반대로 자극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바로 SBS 텔레비전의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이다. 국내 방송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유형이

라는 이 프로그램은 그 참신한 형식 말고도 여러가지 면에서 보는 이의 눈길을 잡아끄는데, 지금껏 보아온 바에 의해 감히 한마디 단언하자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성공 요인 중엔 진행자의 몫이 반쯤은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반대하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배우 문성근, 동그란 금테 안경을 낀 정장 차림의 그는 ‘이를테면’이나 ‘예를 들면’과 같은 접속어휘를 자주 구사하며 사건에 대한 검증과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솜씨가 가히 일품이다. 뭔가 금단의 비밀이 밝혀질 것임을 알리는 듯한 배경음악 속에서 그는 냉정하게, 불필요한 동작을 배제시킨 절제된 몸짓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나간다.

그동안 방송 편성에서 일요일 밤의 늦은 시간은 외국 영화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다. 하루쯤 더 쉬고 싶은 욕망과 일해야 한다는 관성이 적당히 교차하는 그 시간대를 「그것이 알고 싶다」의 문성근은 교묘하게 장악한다. 일과 휴식 사이의 어정쩡한 틈새를 해집고 들어와 세상은 미스터리 투성이이고 그 속에 얹힌 우

리의 삶은 고민하지 않고 막연하게 방치해 두어도 좋을 만큼은 한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섬뜩하게 추적해낸다.

문성근은 보통의 배우들과 많이 다른 분위기를 지녔다. 그런 그를 두고 사람들은 그를 지적인 분위기를 지닌 배우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우선 생김새부터가 육체 노동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변덕도 심할 듯, 민감한 신경을 지녀보이고 소독약을 뿌린듯이 정갈해 보인다. 배우가 된 뒤로 맡은 역할들도 그런 그의 분위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연극 무대를 통해서 정식 배우가 되었다. 「한씨 연대기」 「칠수와 만수」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녔던 연극이 그의 데뷔작이다. 그의 나이가 삼십대 중반에 들어설 무렵이다.

서강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그는 7년을 건설 회사에 다녔다. 대학시절 연극반 활동을 맹렬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저럭 회사 일도 잘 하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들을 그는 이겨내지 못했다. 평범한 일

상인의 생활은 그의 몫이 아니었다. 탈출을 감행했다. 직장을 때려치우고 연극판에 다시 섰고 연극인 문성근으로 살던 어느날 연기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파업전야」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그후 운동권 학생의 도피와 갈등을 다룬 「그들도 우리처럼」이란 영화의 주인공도 했고 텔레비전 미니시리즈 「천사의 선택」 「춘원 이광수」 등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그가 맡은 역들은 대부분 지식인이거나 노동자라고 해도 시대 상황을 알게 하는 데 기여할 만한 배경을 깔고 있는 성격들이다. 그래서 인지 그의 연기에 임하는 자세는 진지하다. 연극 무대에서 익힌 기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본을 꼼꼼히 읽고 그 역할이 우리 사회의 어느 지점에 서있고 그 뜻하는 바가 무얼까 하는 걸 골똘하게 생각해낸 뒤에 그는 연기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생각하는 연기자이다.

그걸 그는 진정한 광대가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소양쯤으로 여긴다. 그렇다고 그가 실





제 생활에서도 무슨 학자처럼 산다는 말은 아니다. 역시 그를 배우이게 하는 것은 타고난 '끼'이다. 다만 그 끼가 외향적으로 활발하게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대면에 숨어들어 활동할 뿐이다.

TV쪽 일은 그에게 시간을 그리 많이 주지 않는다. 연극이나 영화처럼 충분한 생각과 연습할 시간이 없는 구조여서 늘 고민스럽다. 「그것이 알고 싶다」도 그에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 프로그램이니 일정에 여유가 있을 턱이 없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 회에 다루는 소재의 전체적인 윤곽을 다 꿰차고 진행하려고 애를 쓴다. 또한 재미도 있다. 스스로 배우 노릇 하느라 간파했던 일들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므로, 그는 그것이 연극이건 영화이건 TV이건 무대는 현실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둔다. 비록 극중에서의 자신의 이미지가

나약한 지식인으로 고정되어 가는 것 같아서 싫긴 하지만 현실에서만큼은 건강한 지식인이 되고자 한다.

그 현실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요일 밤 그를 만나며 다시금 떠오르는 느낌, 그것은 연극배우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그리고 진행자이기도 한 문성근이라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몫이 분명한 배우라는 것이다. 분명 능력만큼 그는 자기 몫을 누리겠지만, 무대라는 현실은 그에게 그의 능력 이상의 그 어떤 몫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뭔가 배일에 싸여 있는 게 많은 것이 우리네 삶이고 현실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아야 하고 아는 만큼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대의 몫이며 할일이기 때문이다. **S**

글/정인재 · 사진

사진/김상현

4 커버스토리 /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MC 문성근

알 수 없는 세상 응시하는 '생각하는 광대' · 정인채

10 새 드라마 / 일일 아침연속극 「가을 여자」

인생의 트랙에 내리는 가을안개 · 유미혜

16 새 프로그램 / 외화시리즈 「스필버그의 어메이징 스토리」

놀랍고 신비한 환상특급

20 축하합니다 / 한국방송대상에서 신생 SBS가 7개 부문 수상

알곡으로 거둬들인 첫해의 결실

26 청사특집 프로그램 / 다큐멘터리 「한국영화 70년」

일흔 나이 되어서야 돌아보는 영화의 뒤안길 · 박성호

30 청사특집 프로그램 / 「태평양 종단퀴즈」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퀴즈박사들의 대장정 · 이계진
우물안 개구리의 잊지 못할 추억여행 · 이태운

38 SBS 광장 / SBS 창사 2주년 기념 공연 두런

보헤미안이 펼치는 수준높은 서정

40 SBS 광장 / SBS 창사 2주년 기념 '제1회 한국 수퍼모델 선발대회'

세계 속의 한국모델을 찾습니다.

42 자랑할 만합니다 / 최신의 첨단장비 갖춘 SBS의 중계차

스튜디오의 개념 넓혀준 방송기동대 · 김병록

46 PD일기 / 화면보다 더 재미있는 '꾸러기 카메라'의 뒷 이야기들

잠시 후를 알 수 없는 위기일발의 연속 · 연태훈

51 10월의 화제 여섯 · 윤종영

58 매거진 킬렘 / 섬에서 배우는 인생 · 유자효

60 나도 SBS맨 / 「꾸러기 대행진」의 아가꾸러기 인병국

"어른들의 세실적 기억을 찾아드립니다" · 김태성

62 92년을 달린다 / 「출발! 서울의 아침」 MC 이종은

도시의 아침을 여는 상큼한 웃음 · 김일중

64 초점 「92 선발 내가 진짜 스타」에서 대상 탄 이명우와 정낙송

진짜들도 무색해진 인간복사기 · 박재연



여기는 792, SBS 라디오입니다

- 68 지금 생방송 중 / 「밤이 흐르는 곳에」
포근한 여유가 있는 마음의 쉼터 · 박성례
- 72 792초대석 / 「트로트 대행진」 DJ 이세훈
타고난 감각으로 이끌어내는 트로트천국 · 정유정
- 74 방송의 현장 / 특집 공개 방송 「이성미 박미선의 신나는 오후 2시」
환상의 콤비와 함께 벌인 토크 토크 웃음잔치 · 박경희
- 78 SBS 프로덕션은 지금 / SBS-TV 프로그램 복제 판매 개시
비디오로 만나는 좋은 방송 좋은 기억
- 80 큐 스튜디오 / 「주부만세」
주부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워지는 시간 · 이성아
- 86 프로그램 탐험 / 「독점! 연예정보」
젊은 감각, 빠른 정보, 정통한 소식 · 김은영
- 92 매거진 수신탐 / 방송이 말아야 할 따끔한 어른 노릇 · 이연숙
- 94 첨단방송의 세계 /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DAT: Digital Audio Tape)
오디오의 세대교체 이를 꿈의 녹음기 · 이형원
- 96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야기 Ⅱ /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역할
시청자와 뉴스를 잇는 튼튼한 다리 · 맹향규
- 100 지상녹화 / 「시사전단 핵심」-워싱턴 동점
전 나토 장관 알렉산더 헤이그 장군에게 듣는다
- 105 TV 편력선 /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시 본다
최후의 황소 · 김기우

- 발행 · 편집인 / 윤세영
- 주간 / 김우광
- 부주간 / 손규환
- 기획 / 남지혜 · 신선화
- 사진 / 김상연 · 서창식 · 고도영



SBS 문화실용

- 110 공연 / UN 마약퇴치 친선대사 정트리오 초청연주회 · 한상우
- 112 영화 / 가장 미국적인 상업영화 「패트리엇 게임」 · 정성일
- 114 가요 / 1992 가을, 그룹사운드에는 부활하는가? · 윤경수
- 116 연극 / 성좌의 「찌꺼기들」과 민중극단의 「영자와 진택」 · 이영미





새 드라마

일일 아침연속극 「가을 여자」
인생의 트랙에
내리는 가을안개

- 극본 박찬홍
- 연출 이근용
- 방송 10월 12일부터 월~토요일
아침 8시55분~9시20분



가을이 본격적으로 그 서늘한 손길을 넓혀가고 있다. 진부한 말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절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모두 제각기 가슴을 감싸쥐며 아픈 인생살이를 하고 있을 것이고 한번 뿐인 세상을 사는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방송에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왔다. 새로 단장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가운데 SBS 엔 유난히 가을병을 깊이 앓는 일단의 사람들이 생겼다. 10월 12일에 첫회가 방송되는 새 아침연속극 「가을 여자」를 만드는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겨울새」에 이어 여성시청자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어느날 갑자기 혼자가 되어 세상에 내팽개쳐진 한 중년여인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굴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서 잃었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가정드라마이며 동시에 여성드라마이다.



행복의 척도는 분명 상대적인 것이다. 가장 행복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던 여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눈여기는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인식하고 가슴을 앓는 시청자가 이 계절엔 많이 생길 것 같다.

일본의 인기 소설가인 히라이와 유미에의 원작을 박찬홍이 각색하고 이근용이 연출하는 「가을 여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중년 여인네들에게 '자아확인'을 해보게 만들 것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연출자 이근용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인 부부, 그 단어가 갖는 의미는 옛날보다 많이 희박해지고 말았지만 억만점의 인연이 쌓여야 만났다는 부부라는 관계의 참된 의미를 이 드라마를 보면 저절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연출관을 밝히고 있다.

여자들은 대개 "내 남편만은..."하며 철석같이 믿고 산다. 특히 굳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자타로부터 인정받는 부부 사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불행이란 언제 어디서 그 꼬리를 드러낼지 알 수 없는 것.





‘사랑’ 하나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사건도 세상에는 있을테니 말이다.

아이가 없다는 것 외에는 걱정거리가 없던 한 여인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이혼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이 드라마는 열리게 된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의 정연희(김영애 분)는 세련되고 지적인 안개꽃같은 여자이며 그녀의 남편 신기철(현석 분)은 어리숙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다. 결혼한지 십년이 넘도록 두 사람 사이엔 아이가 없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만큼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누가 보아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기엔 아이에 대한 기철의 갈망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 아버지 신회장의 의

류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잠깐의 외도로 인해 모델 지애경(홍진희 분)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연희에게 심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다. 남편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헌신적인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연희는 느닷없는 남편의 이혼요구가 믿어지지 않는다. 시아버지 신회장(전운 분)과 시누이인 영애(오미연 분)의 후원이 없는 것도 아니었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원 ‘부부’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옛날에 비해 많이 희박해지고 말았지만 ‘하늘이 내리는 인연’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부부는 신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사이라는 걸 조용히 일깨워주는 드라마가 가을과 함께 찾아왔다.

으나 연희는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우습게도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그들은 계속 얼굴을 마주치게 된다. 순진하고 세상 모르는 기철은 비록 아이 때문에 연희와 헤어지기는 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아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급할 때마다 그녀를 찾는 그의 성품을 잘 알기에 연희는 본의 아니게 애경의 출산 뒷바라지까지 하기에 이른다.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기철이 갖고 있는 든든한 배경이 탐나 그와 결혼한 애경은 회사일도 뒤로 미룰 정도로 아



「가을 여자」는
직접적소에 꼭 들어맞는
연기자의 배치로
앞으로 평가될 드라마의
성공여부에 앞서
캐스팅의
유효적절함으로
칭찬받고 있다. 이
작품으로 컴백한
70년대의 톱스타 나옴이
(오른쪽 뒷사진)를
비롯한 든든한
중견배우들이 허리를
받치고 SBS신인
탤런트들도 비중있는
역할로 골고루
포진했다.

이에게 사랑을 쏟는 기철과는 달리 가
정생활에도 아이에게도 도무지 관심
을 보이지 않는다. 두사람 사이에 아
이만 없다면 유지할 이유가 없는 냉랭
한 결혼생활이 이어지고 기철은 그때
마다 자신이 여전히 연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둘도 없는 친구 정인(나옴이 분)의
도움으로 레스토랑을 개업하고 홀로
서기의 재비를 차리는 연회에게 대학
시절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가 나타나
고, 지금껏 연회를 잊지 못하고 있던
남자는 그녀가 혼자임을 알고 청혼을
하기에 이른다. 그의 끈질기고 진실한
마음 앞에서 그녀가 다시 한번 인생의
행복을 받아들이려 할 무렵, 기철은
연회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이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음을 병원으로
부터 확인하고 애경이 낳은 아이가 자
기의 딸뚝이 아님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철은 심한

상실감으로 헤매며 회사까지 매형에
게 떠맡긴 채 방황하고, 그런 그를 보
며 연회는 또 한번 깊고 깊은 연민과
갈등에 빠진다. 그녀가 얻은 결론은
무엇일까? 시청자들은 아마 이 드라
마의 마지막 부분 쯤에 가서 '남녀 간
의 사랑'과 '부부의 정'이란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참으로 쉽게도 상대방을
내친다. 상대의 아픔까지 감싸주는 참
사랑은 그만큼 보기 드물어진 세상이
다. '하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인간
이 뗄 수 없는 성스러운 관계인 부부,
하지만 헤어짐이 예사스러운 세상이
어선지 이혼이란 단어 역시 쉽게 입에
올려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결코 내
용이 웅장하지도 않고 규모가 큰 드라
마도 아닌, 그저 매일 아침 20분씩 잠
깐동안 우리 곁에 찾아오는 드라마이
지만 「가을 여자」가 그저 지나치는
드라마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롭고 화제성 있는 드라마들이 자주 등장하는 요즘 추세에 「가을여자」는 전혀 새로지가 않은 고전적 작품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순결한 사랑과 아름다운 인대를 지닌 한 여자의 삶과 결혼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될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아마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여러가지 의미로 인생을 생각해보게도 될 것 같다.

가장 쉬운 것이면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단조로운가 하면 어느새 복잡해져 버리는 '살아간다는 일'을 통해서, 또한 아무리 나이를 먹는다해도 혼자서는 미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신적 합일감을 통해 진짜 행복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 시청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중년의 여성시청자들이 느낄 감회를 짐작해본다.

앞에 방송된 「고독의 문」과 「겨울새」가 아침 방송의 판도를 거머쥐며 SBS드라마의 선두주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는지라 「가을 여자」도 그 덕을 보면서 조금은 느긋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드는 이들의 심정이야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처음



동작한 채구에 다소 과묵한 인상을 풍기는 연출자 이근용 (아래 사진 왼쪽),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렁우렁 소리를 지르는걸 보면 「가을 여자」에 대한 욕심이 많기에 아쉬움도 많아 하루의 촬영을 마치고 나면 늘 땀뻘뻘한다는 심정을 이해할 것도 같다.

에 칭찬받는 것보다 두번째 세번째 계속 잘한다는 인정을 받는 일이 더 힘들지 않던가 말이다. 요즘의 시청자들은 대체적으로 냉정하고 인색하니까.

스텝진 뿐 아니라 김영애와 현석 등 '적재적소에 인물 놓기'의 성공적 표본이라고 얘기될 만큼 유효적절한 캐스팅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인공들의 마음 또한 아직은 바쁘지만 하다. 앞서의 작품들이 다져놓은 입지를 이제 이 드라마가 확고히 세워야 할 의무까지 지고 있는 셈인 까닭이다. 하지만 상투적인 일일연속극의 유형엔 절대 속하지 않을 거라는 말로 그들은 이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대신한다.

「겨울새」가 무거운 빗발의 유희와 같았다면 이번의 「가을 여자」는 그보다는 차분하고 잔잔한 파스텔화와 같은 느낌을 주게 될 듯하다. 어쨌거나 SBS의 아침드라마 「가을 여자」와 함께 보내게 될 윤 가을은 그 이름만큼이나 한층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 5



글/유미혜·자유기고가

사진/서창식



외화시리즈 「스필버그의 어메이징 스토리」 놀랍고 신비한 환상특급

- 감독/스티븐 스필버그
- 주연/케빈 코스트너 · 패트릭 스웨이지 · 찰리 윈 · 그레고리 하인즈 등
- 제작/미국 MCA—유니버설과 앰블린 스튜디오 합작(1987년)
- 방송/10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밤 10시 55분~11시 50분

80년대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의 천재 스티븐 스필버그, 역대 영화 흥행 베스트텐의 반은 스필버그의 몫이었다. 「E.T.」 「조스」 「인디애나 존스」 그리고 최근 들어 「후크」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처간 작품은 당연히 최고의 흥행 대열에 올랐다. 「백 튜더 퓨처」 「그랜린」 「누가 로저래빗을 모함했는가」 등 감독의 영역을 넘어 기획과 제작 총지휘까지 했던 작품의 연혁만 살펴봐도 스필버그 사단이 이룩해낸 성과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SBS-TV는 그동안 철찬리에 방송되던 「당신은 탐정」의 후속 시리즈로 10월 10일 토요일부터 헐리우드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지휘한 「스필버그의 어메이징 스토리」를 방송한다. 「스필버그의 어메이징 스토리」는 제목 그대로 스티븐 스필버그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감각을 통해 투영된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 모음집으로서 에미상을 포함, 각종 TV 관련상을 14개나 받은 TV시리즈의 명작이다.

인류의 적 정도로 인식되던 외계인과 지구인의 우정 어린 만남을 통한 따뜻한 사랑(「E.T」),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종횡무진 넘나들면서 펼치는 놀라운 상상력과 위트(「백 투 더 퓨처」), 마법의 저주와 공포, 그리고 다이내믹한 어드벤처 서스펜스(「인디애나 존스」), 어릴적의 꿈과 환상, 경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모험의 흥분(「후크」) 등, 스필버그 그 작품세계의 모든 재미와 감동을 농축한 것이 바로 「스필버그의 어메이징 스토리」이다.

「스필버그의 어메이징 스토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신화, 우화, 전설, 모험, 서스펜스, 공포, 신비 등을 스티븐 스필버그의 탁월한 안목과 감각으로 여과시킨, 다양한 주제와 독특한 소재의 작은 스필버그 극장이다.

케빈 코스트너, 패트릭 스웨이지, 찰리 쉰 등 현 시대를 풍미하는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스필버그의 어메이징 스토리」는 45개의 각기 다른 주제와 이색적인 소재의 에피소드를 역시 별개의 작가, 연출가, 배역진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총감독아래 모여 만들어낸 유니버스 형식의 단편영화 모음이다.

시청자들은 SBS 텔레비전이 선사하는 이 새로운 외화시리즈를 통해 이제 곧 신비하고 놀라운 환상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S**



제1회 SBS 신세대가요제 신세대 스타후보가 모두 모였습니다



가요제의 차별화를 선언한 '제1회 SBS신세대가요제'에 등장할 열다섯 팀의 얼굴입니다. 예선에서 무려 4 대 1의 경쟁을 뚫고 뽑힌 만큼 실력으로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나 둘째 가라면 섭섭해질 상상한 젊은이들이지요. 재기발랄 그 자체인 이사람들이 10월 10일 저녁 5시에 한강고수부지 특설무대에 모두 모여 결선을 벌입니다. '새로운 감각의 가요제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릴 참이라고 합니다.

1 싸바여라여
「Hey」



2 김경희
「사라지는 모습들」

4 화이트
「White」



5 박은혜
「너로 인하여 나는」



3 왕산악
「네게 줄 수 있는 것」



6 양창원
「광화문에서 너의 마음까지」



7 김재원
「그대와 함께」



10 비오디오
「지각」



13 지그재그
「착각」



8 임재복
「슬픈 나의 모습」



11 최혜영
「그대 우는거야」



14 배영호
「그대 내결을 떠나버려도」



9 조완신
「추억속으로」



12 블루노트
「밤백」



15 김윤주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축하합니다

제29회 방송의 날 기념
한국방송대상에서 신생 SBS가
7개부문 수상

알곡으로 거뒀들인 첫해의 결실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SBS가 지난 9월 3일, 방송인 최고의 잔치인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일곱개 부문에 걸쳐 상을 받음으로써 놀랍게 성장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SBS는 앞으로도 결코 지만하지 않고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참신한 민영방송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올해로 열아홉 번째를 맞이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TV 개국 9개월에 불과한 SBS가 작품상 4개 부문과 개인상 3개 부문 등 총 7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신생방송사로서 짧은 시간에 그 위치를 확고히 자리잡았음을 보여주었다.

총 102개 작품이 출품되고 90명의 개인상 후보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가운데 선정된 이번 시상내용을 보면, 우선 작품상으로는 본격 시사토크 코미디로 수준 높은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코미디전망대」가 TV쇼·코미디 부문에서, 「자갈치아줌마」 편으로 잊혀져가는 6·25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 「고전코미디극」이 라디오 쇼·코미디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들의 시각에서 진솔하게 담았던 「푸른일기」가 TV청소년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와의 대담과 내용의 드라마화를 통해 새로운 형식으로 문학 작품을 조명해 보는 「작가와 화제작」이 TV외부제작 부문을 수상하였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소설극장 「분례기」의 윤여정이 여자 탤런트상을, 「코미디전망대」의 박미선이 여자 코미디언상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작가 송지나가 TV작가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3일, 제29회 방송의 날을 기념하여 KBS 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서기원 한국방송협회장과 이사인 SBS 윤세영 사장을 비롯, 한국방송협회의 임원진과 전현직 방송인들, 수상자와 가족, 일반 시청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날의 대상은 KBS-TV의 「자본주의 100년—한국의 선택」이 차지했고, 최우수작품상 TV 부문은 MBC의 「여명의 눈동자」가, 라디오 부문은 「92 MBC 청소년 백서」가 각각 차지했다.

수십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타방송사와 어깨

를 나란히 하며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SBS의 연기자, 작가, 프로그램들은 11년 만의 민영방송 탄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엮고 시청자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해온 SBS의 첫 결실로서 건강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하기 위한 SBS의 노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개인상 수상자

박미선 / 여자 코미디언 부문



코미디 부문 여자 연기에 있어서 개구먼 박미선의 수상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다. 그가 출연하는 「코미디 전망대」 「토요일 7시 웃으면 좋아요」 「초특급

꾸러기대행진」의 높은 인기는 바로 연기자로서의 그녀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업인 코미디 외에 「빙글빙글 퀴즈」의 진행까지 맡고 있는 그는 이즈음에는 SBS 라디오 「이성미 박미선의 신나는 오후 2시」의 DJ까지 맡아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송지나 / 텔레비전 작가 부문



이미 그 솜씨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새로운 추리기법의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여주는 그의 뛰어난 구성력과 예리한 추리력은 시청

자들을 미스터리로 세계로 이끄는 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 보인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밤을 예사로 새우며 작업을 해야 하는 제작진들에게 그의 수상은 큰

힘이 되어주었거니와 또한 방송가에서 소문난 글 솜씨임에도 이상하리만치 상복이 없었던 송지나 자신에게도 뜻깊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윤여정 / 여자 탤런트 부문



1950년대의 충청도 예산을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진한 생명력과 토속성을 담았던 SBS 소설극장 「분례기」에서의 동태어머니 석서방댁 역은 이 역할을 맡은 윤

여정에게 성공적인 이미지 변신과 함께 방송대상 수상이라는 영광까지 안겨주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울 아외로케, 동시녹음이라는 강행군을 견디고 흠뻑새가 물씬 풍기는 연기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시청자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는 이즈음 다시 SBS 창사특집 드라마 「관촌수필」의 지방촬영 때문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및 수상자〉

	부 문	작품/수상자	비 고
작 품 상	TV 쇼·코미디	「코미디전망대」	연출/윤인섭 (TV 제작2부 부장대우)
	TV 청소년	「푸른 알기」	연출/신언훈 (기획특집부 차장)
	TV 외부제작	「작가와 화제작」	제작사/시네텔 서울
	라디오 쇼·코미디	「고전코미디극」	연출/박전삼 (부국장대우 라디오제작1부장)
개 인 상	TV 작가	송지나	「그것이 알고 싶다」
	여자탤런트	윤여정	「분례기」
	여자코미디언	박미선	「코미디전망대」

윤인섭 · TV제작국 제작 2부 부장대우

작품상 받은 프로듀서들의
수상소감을 듣는다

**“상을 받는 그 순간에도
내일 방송을 생각합니다”**

전쟁의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아군진지의 경우 전망대라는 역할이 갖는 중요성은 대충 두가지 정도로 집약해볼 수 있다. 우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가장 쉽게 노출되고 공격받기 쉬우며 수비 능력이 취약하다. 지금까지의 코미디가 그래왔다. 가장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청)되어 왔으며,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아왔으며, 그 비난에 대처할 마땅하고 혁신적인 대안 역시 궁했던 게 사실이다.

다시 아군진지로 돌아가서 전망대라는 전략적 포인트가 갖는 두번째 역할을 보자. 가장 폭 넓은 조망이 가능하다. 가장 빠른 공격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앞으로의 코미디가 그러할 것이다. 시야가 좁다는, 다시 말해 소재



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은 코미디 제작자들 사이에서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둘러보면 1990년대의 한국은 얼마나 많은 웃음의 소재들로 가득 차 있는가. 건강하고 밝은 웃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만큼은 희석되고 정화되어야 할 어두운 부분의 소재들도 얼마든지 있다. 만화나 가십, 심지어 떠도는 우스개 소리도 그럴 들을 할 수는 있지만, 아군진지(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전망대에서 해야 한다. 앞으로의 코미디가 그럴 것이다.

단지 웃음만을 원하는 시청자에게 사실「코미디전망대」는 적합치 않다. 또 단지 시사적인 비평만을 원하는 시청자라면 뉴스를 보는 편이 더 시원할 것이다. 밝게 웃어제끼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깊은 생각이 담겨있는 웃음을 용인할 줄 아는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과 「코미디전망대」는 만나고 있다.

전망대에 서치라이트가 빠질 수는 없다. 그 화려한 경관과 인자한(?) 마스크로 언제나 스튜디오를 환하게 반사시켜 주시는 김경태 씨와 여러 연기자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이 나라의 걱정은 모두 도맡아 하는 듯한 작가들, 그외 모든 스태프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



TV 청소년 부문/「푸른일기」

신언호 · TV제작국 기획집행부 차장

눈부신 아침 햇살을 가르며 달려가는 두 소년 재규와 기식이의 해맑은 얼굴을 배경으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의 마지막 소절 '아아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들의 사랑으로...'가 끊어질 듯 이어진다. 그리고 머지않아 물에 잠길 마을 길을 뛰여가는 두 소년의 뒷 모습



이 소실점이 되어 화면 속으로 사라진다. 「푸른일기」 제2화 '운문의 마지막 겨울'의 마지막 장면이다.

촬영을 마치고 떠나던 날, 취재팀은 정말 가슴뭉클한 선물을 받았다. 차마 부끄러워 직접 전해주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우리가 떠나버리자 그만 울먹이며 담임 선생님께 내민 보따리, 뒤늦게 이시종 선생님을 통해 전해 받은 그 선물 꾸러미에는 고구마가 들어 있었다. 병표가 싸준 고구마, 바로 병표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 취재팀은 조금씩 나눠 가졌다.

작년 12월 24일 저녁 7시, 촛뜨기 다섯명이 서울방송 8층 제작국 사무실에 비치된 TV 수상기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출연한 방송을 보기 위해 멀리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었다. 우리 취재팀(이윤민, 서득원, 오승엽)은 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다. 병표가 싸준 고구마의 훈냄새와 함께 한 시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추억을 팔고 싶었다. 우정, 사랑,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판 대가로 시청자들에게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방송을 본 후 자기도 모르게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방울이면 족하다. 그 눈물방울에 고향집 굴뚝의 연기, 감나무에 매달린 마지막 남은 까치밥, 가재 잡던 골짜기, 그리고 모교의 허름한

교정이 어른거리길 바란다면 내 욕심이 너무 큰 것일까.

청소년 다큐멘터리 「푸른일기」는 33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동안 기획특집부의 여러 프로듀서들이 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왔다. 추억을 판 대가로는 너무 큰 상을 받은 기쁨을 그동안 「푸른일기」 제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프로듀서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출연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시상식장에 나와준 상명여중 리듬체조부 터미네이션과 요정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직 내방 예는 요정들이 보내준 꽃다발이 시들지않는 꽃내음을 풍기고 있다. 그리고 사무실 책상 위에는 얼마 전에 받은 이시종 선생님의 편지가 놓여 있다. 폐교된 문명중학교를 떠나 안동으로 전근을 갔다면서 전화번호까지 알려왔다. 난 수화기를 들었다. 이 기쁨을 그와 함께 하기 위해.



TV 외부제작 부문/「작가와 화제작」

이시연 · 한성국 편성관리부장

일요일 자정에 문학작품과 저자를 집중 탐구해 보는 「작가와 화제작」이 외부 제작 부문에서 수상했다. 외부 제작 부문은 외주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외부 제작사(흔히 프로덕션)들의 제작 의욕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작년도에 신설된 작품상 부문이다.

개국 때부터 지금의 방송 시간을 지켜오고 있는 「작가와 화제작」은 심야 프로그램, 그것도 본격적인 교양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화제의 프로그램이기에 이번의 수상을 시청자들과 함께 자축하고 싶다.

SBS의 외주 프로그램은 모두 여덟개로 주간 편성 비율 7퍼센트에 달하며 여덟개 프로덕션이 SBS의 제작 가족으로 힘을 쏟고 있다. 이번에는 「작가와 화제작」을 제작한 시네텔서울이 영광을 안았지만 나는 서울방송 외주 프로그램을 대표하여 받은 것으로 보고 싶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즐거움이 따른다. 반면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이 아니었냐는 생각에 부담스럽기도 하다.

「작가와 화제작」은 영상으로 읽는 문학 프로그램으로 다큐멘터리, 드라마, 대담을 모두 담고 있다. 작가의 진솔한 고백도 있고 작품의 마땅치 않은 부분은 평론가의 입을 빌려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작가들이 흔쾌히 출연해주는 아끼자기한 프로그램이다. 자정이 넘어 방송되는 까닭에 시청 기회를 넓히지 못한다는 것이 불만이라면 불만일까.



이 기회에 우리의 가족인 프로덕션에 주문 한가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은 일석삼조의 결과를 가져온다. 프로덕션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방송의 질을 높여나가니 좋고, 결국엔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서울방송의 외주 프로그램이 또 하나의 작품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라디오 쇼·코미디 부문/「고전 코미디극」

백건삼 · 라디오국 부국장대우 제작 부문장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으로 작품상을 받은 건 분명 행운이다. 흔히 영화를 감독의 예술이라 하는데 TV 드라마나 라디오 드라마의 경우에는 작가의 역할이 7할, 연기자의 연기력이 2할, 그리고 연출가의 기량이 1할쯤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므로 모든 연출가의 역량을 저울질하는 척도는 아니다.

수상소감을 말하라면 우선 쑥스럽다. 작품상이니만치 당연히 작가에게 그 공의 70퍼센트 이상이 돌아가야 하겠고, 그다음 열심히 작품에 임해준 연기자들에게 공로가 돌아가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수상한 '사람사는 세상'(심영식 극본)은 휴머니즘이 이데올로기를 극복한다는 주제로서 6·25를 다루되 민족상잔의 비극에서 탈피, 민족통일성 회복의 차원으로 이데올

로기의 감동을 승화시킨 작품으로 배한성, 양지운, 송도영의 탁월한 연기가 작품을 살렸고 올해 수상한 고전 코미디극 '자갈치 이죽마'(윤정건 극본)는 고전 코미디 '여의궁 마마'를 대체소설 형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역시 6·25 특집극을 회귀화하여 케이소스를 뛰어넘는 '그 무엇'으로 웃음을 주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작품이었다. 작년과 올해의 수상작 중 하나는 본격적인 정통 드라마 수법을 사용, 정면으로 민족의 비극을 다루었고 또 한 작품은 코미디 수법을 써서 그 비극을 회화화하였다는 점이 다를 뿐 두 작품 모두가 6·25라는 민족의 비극을 다루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 비극적인(?) 공통점은 두 작품 모두가 수상한 이후 개편과 동시에 폐지되는 비운을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PD 잘못 만난 덕택에 수상과 동시에 그 막을 내렸다는 점에서 왠지 서운하고 그동안 함께 일해온 스태프들이나 연기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우리가 헤어짐을 기약치 않더라도 만나면 헤어지듯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약치 않아도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배한성 씨를 비롯한 연기자들, 그리고 작가 윤정건 선생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S**



창사특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한국영화 70년」 일흔 나이 되어서야 돌아보는 영화의 뒤안길

영화는 꿈의 공장이다. 영화가 빛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말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빛을 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둠이 필요하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어둠, 이는 밤의 농도와 흡사하며 우리는 그 안식 공간 속에서 반수면 상태로 명료한 꿈의 실체와 만나게 된다.

제7의 예술로 일컬어지는 영화가 이땅에 들어온 지 70년, 결코 짧지 않은 고희의 세월을 통해 영화는 우리 민족의 꿈을 대변해오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동안 제작된 영화는 600여편에 이른다.

1990년 겨울이 시작될 무렵, 우리 제작팀은 각자의 기획 수첩에 70과 4,500이란, 우리 영화의 나이에 눈금과 제작편수를 마련하고 신열을 앓기 시작했다. 70년 한국영화의 앨범을 만들어 보자는 계획—그 앨범을 통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스타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짜릿한 작업이 될 것이냐! 더

육이 이듬해인 1991년이 영화의 해였기에 우리들의 기획은 시기상으로도 적절한 아이템이었다. 우리는 타이틀만 정해둔 상태에서 걱정이 덜어 있었다.

하지만 창작 출발점에 서고 보니 너무도 막막한 뿐이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담는 프로그램도 쉽지 않은 터에 하물며 수천 수만 명의 꿈이 모자이크되어 있는 한국 영화사를 종횡으로 정리한다는 일은 독립 프로덕션의 여건상 결코 만만한 작업일 리가 만무했다. 그러나 석달 가량 걸린 자료 조사 기간 중에 우리의 의욕은 솟불처럼 은근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필름 보관소에 간직된 옛날 영화들, 투박한 입자의 흑백 필름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나뉘게 되었다. 우리가 만난 수백편의 필름 속에는 우리 겨레의 슬한 애환이 담겨 있었다. 나라를 빼앗긴 울분에서부터 분단의 아픔과 실항의 한, 봉건 인습의 모순과 달천시대의 음울한 상황이 새겨져 있었고, 그런가 하면 사랑과 눈물, 갈등과 화해, 신명과 뉘트리 등등 우리 민족의 정서가 듬뿍 녹아 있었다. 아, 진정 영화는 겨레의 자화상이며 시대의 거울임에 분명했다.

1991년 새해들어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영화 70년'이라는 타이틀 아래 대장정의 행군을 시작했다. 독립 프로덕션의 사활이 걸린 기획 상종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을 넘어, 한국 영화의 전통을 잇는 소중한 고리로서 남기자는 결의를 다졌다. 그리하여 프로덕션으로서는 좀처럼 감행하기 어려운 사전 대본 사전 제작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것이다.

우리의 거창한 꿈은 시작에서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 우선 개척기 시대의 영화가 전무하다시피 했고 원로 영화인들이 대부분 작고해 초반부 구성이 여의치 않았다. 대본, 집필을 맡은 방송작가 박찬성과 김종서, 영화평론가 김

홍숙 등 세 사람이 총 9부까지의 사전 대본을 완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5개월여. 그동안 네 차례의 수정 작업이 있었고, 기획, 자료 수집을 거쳐 대본 작업에만 8개월이 걸린 셈이니 영화의 해 특집으로 완성하고자 했던 우리의 계산은 영화필름 입수, 촬영, 편집까지 감안하면 해를 넘겨야 할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아홉권의 대본이 완성되던 날, 우리는 한국 영화의 거대한 질량 앞에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도 이토록 힘겨웠는데 그 내용을 영상으로 가시화해야 하는 전쟁은 얼마나 난해할 것인가? 그러나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나 있었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있던 한국영화의 70년 세월을 한자리에 모아 다듬고 추스리느라 제작진은 2년여의 세월을 이 프로그램에 온전히 바쳐야 했다. 중량감있는 영화계 인사로 이루어진 핵심자들 역시 영화촬영 때보다 더 힘든 작업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것은 전진뿐이었다. 그때부터 전개된 작업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 국내 전지역과 미국의 여러 도시 등 총 100여 군데의 촬영지역에, 영화배우, 감독, 스태프 등 영화계 관련자 200여명과 인터뷰, 그리고 영화 140편의 텔레비네 작업. 실로 전 스태프들은 '불철주야'라는 말을 몸으로 체험해야 했다.

방대한 분량이니만큼 연출자는 두 명이 선정되었는데 영화계 사정에 밝은 시나리오 작가이며 연출자인 박찬성이 초창기를 다룬 1~3부를 맡았고, 영화화를 전공한 후 오랫동안 교양 프로그램 연출 경력을 가진 황택원 프로듀서가 후반부인 4~9부를 담당해 조화를 이뤘다.

해설자로는 영화계의 중량감 있는 인사로 한다는 원칙 아래 1~3부는 극작가 신봉승, 4~6부는 영화배우 윤일봉, 7~9부는 영화배우 이낙훈 선생으로 결정했다. 연출자 2명과 함께 최정남, 이도희, 홍준표 등으로 구성된 연출 스태프는 촬영 기간 내내 거의 귀가를 포기했

을 만큼 격무에 시달렸다.

프로그램 특성상 잦은 스케줄 변동과 빈번한 촬영 장소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제작반의 분위기는 늘 전시상태의 긴장감으로 팽팽했었다. 세 분 해설자들의 쓰라린(?) 에피소드가 촬영작업의 치열함을 입증해 준다.

춘향전의 무대인 남원을 찾았던 신봉승 씨는 광한루에서 멋진 해설을 마치고 귀경했으나 모니터 결과 메미소리의 소음 때문에 오디오를 쓸 수 없어 또 한번 폭염 속에서 남원행을 해야 했고, 윤일봉 씨는 유난히 추웠던 겨울날 한강 고수부지에서 행해졌던 촬영 기억에 지금도 치를 떨곤 한다. 또 이낙훈 씨는 시청앞 분수대에서 철야 촬영 때문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그러나 세 분 해설자들은 끝까지 한국영화사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으로 프로 근성을 발휘, 스태프들을 감동시켰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2년의 시간 전부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즐거웠던 순간도 많았다. 한국영화의 효시로 1923년작 「국경」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을 때가 그중의 하나다. 일반적인 정설로는 필름과 연극으로 구성된 연쇄극 「의리적 구투」를 제외하고는 그간 한국영화의 효시는 「월하의 맹세」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촬영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자료가 등장해 제작팀의 촉각을 곤두서게 했다. 1923년판 동아일보와 대한매일신보의 광고기사에 「월하의 맹세」보다 석달 먼저 상영된 영화 「국경」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영화의 역사를 새로 발견했다는 것은 실로 뜻깊은 쾌거가 아닐 수 없었다.

편집 작업때의 갈등은 지금 생각해도 아쉽다. 미국까지 찾아가 취재한 원로 영화인의 인터뷰를 작품의 흐름상 빼내야 했을 때, 어렵게 만난 인기스타의 인터뷰가 너무 장광설이어서 포기해야 했을 때, 우리는 쓴 웃음을 교환하고





아마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한국영화 역사에 커다란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 틀림없다. 영화의 태동기부터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자료와 취재, 꼼꼼한 촬영으로 정말 열심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우리 영화사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의미 깊고도 새롭다.

나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천신만고 끝에 「한국영화 70년」은 아홉권의 앨범으로 완성되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해방 전 일제하의 한국영화 태동기를 조명한 제1부 '아리랑 아라리요', 해방과 6·25를 겪는 격동시대의 우리 영화가 소개되는 제2부 '해방 그리고 감격시대', 한국영화의 중흥기와 기라성같은 스타들의 탄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부 '스타탄생', 제4부 '뱀발의 청춘'에서는 60년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청춘물 시대를 그리고, 제5부 '미워도 다시 한번'은 한국영화의 전성기이기도 했던 멜로영화 시대를, 제6부 '떠나지 못한 고래사냥'은 「별들의 고향」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영화의 물결을 이야기한다. 제7부 '바람불어 좋은 날들'은 80년대의 영화기류를, 제8부 '세계속의 한국영화'는 세계영화계의 전면에 돌출하는 한국영화, 그리고 마지막 제9부 '꿈의 완성을 위하여'는

한국영화의 문제점과 미래를 진단했다.

기록이란 문화의 출발이자 민족의 자산이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를 남겼더라도 보존되지 않으며 무의미하다. 한국 영화사를 새로 기록하면서 우리는 기록과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8·15 해방과 6·25 전쟁 등 사회의 격변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작품을 잃어버렸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물이해로 영화필름이 밀짚모자의 액세서리로 둔갑해야 했는가 하면 영화를 문화적 가치로 인식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무관심도 이에 한몫을 거들었다.

이제 한국영화의 나이가 7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우리가 만들어 낸 「한국영화 70년」, 뒤늦게나마 우리 영화사의 자취를 확인하고 미비한 공백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기다릴 뿐이다. **5**

글/박성호 · 서울텔레콤 제작국장

「태평양 종단퀴즈」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퀴즈박사들의 대장정

서울방송은 창사특집으로 우리나라 방송 사상 가장 큰 규모의 퀴즈프로그램으로 기록될 「태평양 종단 퀴즈」를 마련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출발하여 호주의 시드니에서 끝난 이 초대형 퀴즈는 1만명의 도전자 중에서 한명의 퀴즈왕을 가려내는 동안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진기한 다큐멘터리였을 정도로 많은 화제와 뒷얘기를 남겼다.



서울방송 창사특집 「태평양 종단 퀴즈」의 진행을 제의받고 내가 보인 반응은 중요한 것이었다. 반가운 표정과 함께 고개를 약간 가우뚱했으니까.

“기획 의도와 포부는 좋은데..., 과연 될까?” 하는 의문과, 방송 생활의 한 ‘이력’이 될 것 같은 대형 프로그램에 대한 매력도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제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지금도 ‘정말 우리가 그 초대형 퀴즈쇼를 만들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8월 8일, 우리를 바짝 긴장시켰던 태풍 재니스가 한반도를 비껴간 아침, 하늘은 초가을처럼 높고 새파랗다. 스태프들은 약속이나 한 듯 첫



새벽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며 “아! 성공이다!”를 외쳤다는 것이다. 그날은 올림픽 공원 벨로드롬에서 최종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고, 다음 날은 국내 예선의 첫 녹화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하늘이 우리에게 도움을 내리는 듯했다.

8월 9일, 1927년 JODK의 전파가 발사되면서 시작된 우리의 방송 역사상 일시에 가장 큰 규모의 인원이 참가하는 단일 퀴즈이며, 가장 큰 장소에서, 가장 큰 문제관에 감추어진 첫 문제를 보고, 가장 최신의 통신 장비까지 동원된, 가장 관용적인 오픈 테스트 형식(참고자료를 얼마든지 봐도 좋다는)으로 「태평양 종단 퀴즈」

는 시작됐다. 처음 보는 전풍경이었다.

“퀴즈라면 나다”하는 ‘퀴즈광’들이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첫 관문인 OX퀴즈에 도전했다. 흡사 생사의 갈림길을 선택하는 듯한 퀴즈의 혈전은 긴 여름 해가 지고 어둑어둑할 때까지 계속됐으며, 70명의 1차 관문 통과자가 가려졌을 즈음엔 MC인 나는 물론 같이 MC를 맡은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이영현 양도 무대 위에 주저앉아 버렸고, 들소처럼 뛰던 PD들도 벨로드롬 시멘트 바닥에 큰 대자로 누워야 했다.

1만명이 도전해서 퀴즈 챔피언 단 한명을 가리는 「태평양 종단 퀴즈」는 그 과정 자체가 흥



많은 인원이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의 발휘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이계진 아나운서는 이제 곧 시청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태평양 종단 퀴즈」에서 그 진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래저래 빨리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미와 드릴의 연속이었다.

말레이시아의 사라와크 트리분지 프랭키 라방 기자의 말처럼 “도대체 1만명이라는 숫자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어떻게 퀴즈를 진행하느냐?”는 의문 자체에서 프로그램은 흥미롭게 진행됐다.

서울을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를 종단하며 아름다운 항구도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의 결전장까지 가는 퀴즈의 대장정! 고비도 많았고 난제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다. 퀴즈에 도전한 사람들은 매 순간이 고비였으며 고통이었다. 승리와 패배, 득의와 좌절, 환호와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앞의 운명을 모르는 철저한 드릴에 애를 태워야 했다.

1.5톤의 방송장비를 끌고(?) 다녀야 했던 스물다섯명의 빛나는 SBS엔들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모으기 위하여 출연자들을 휘둘렀으며, 그 결과가 녹화 테이프에 거짓없이 담겼을 때는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다.

나도 SBS의 한 구성원이 됐지만 여기에서

자화자찬 한마디 하고 싶다. 이번 「태평양 종단 퀴즈」는 중계차 한 대의 시스템을 고스란히 갖추어서 해외 녹화를 떠난 셈인데, 20일간 계속된 힘겨운 일정에서도 각자는 능동적이었고 적극적이었으며, 기막힌 호흡의 일치를 보였다. 그것은 최홍철 위원을 구심점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팀워크의 본보기였다. 분명히 여건은 어려웠고 업무는 과중했었는데도.

아마도 모든 스태프들은 긍지와 자신감에 스스로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결된 모습은 우리의 시청자들이기도 한 서른명의 도전자들에게도 인상적이었을 것이며 ‘오합’으로(?) 모인 출연자일 뻔했던 그들을 한 순간에 우리 식구로 만들었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영원히 ‘SBS 가족’임을 스스로 선언하게 했다.

그러한 팀워크와 하나된 모습이 아니었던들 「태평양 종단 퀴즈」팀은 제임스 본드 섬에서 되돌아오던 칠혹의 밤바다에서 번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태국 안다만 해의 제임스 본드 섬은 육지에서 배를 타고 40분쯤 가야 도착하는 기

암절벽의 작은 섬으로 영화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를 촬영한 곳이다. 악천후로 녹화가 늦어져 그만 썰물 때가 되니 우리가 타고 갈 배는 갯벌 위에 덩그러니 앉아버렸고 다시 물이 들어와 배가 떴을 때는 철쭉의 밤이었다. 문명의 전기불도 없는 곳, 야간 항해라고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통통선의 선장, 하늘은 먹구름이었고 폭우는 세찬 바닷바람과 함께 우리를 위협했다. 숨을 죽여야 했던 귀로의 40여분!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만약에 대비하며 지휘자의 지시에 따랐다. 그리고 기도했다. 일부는 지쳐 뱃바닥에 드러누워 마치 배안의 분위기는 목숨을 건 밀항선을 연상하게 했다. 잊고 싶은 악몽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몇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패자 부활전의 활용에 있다. 우리의 인정과 정서로는 승자에 대한 축하와 패자에 대한 위로가 정석이지만, 이번 「태평양 종단 퀴즈」에서는 패자에 대하여 냉혹하고 엄격한 벌칙을 주었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기사 회생'의 지옥탈출 카드를 최대한 이용했다. 따라서 패자 부활전은 매회 치열하고 격렬했다. 어쩌면 이번 프로그램의 흥미는 패자 부활전에 더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때는 통쾌하고, 어떤 때는 안타깝고, 어떤 때는 울분을 느끼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가슴 뭉클한 장면이 이어졌으니까. MC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PD의 방조자 내지 주범이었다.

1만명에서 70명으로, 70명에서 다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다시.... 치열한 퀴즈쇼를 시청하노라면 어느새 여러분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생존의 원리를 확인할 것이다. 그렇다! 이 넓은 지구상에 우리의 무대는 무한히 펼쳐져 있으며 세계로 도전하는 한국의 젊은이는 어쩌해야 하는가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은 철저히 비밀이고 배일에 가려져 있지만 이제 서울방송 창사 기념 특집 방송과 함께 '천인적 퀴즈퀴피언'은 '새로운 스타'로 탄생할 것이다. 또한 그를 만나보는 여정에서 여러분은 화면 가득 펼쳐지는 태평양 종단길의 아름다운 풍광 또한 만끽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듀서 여러분과 카메라를 분신처럼 메고 댄 수퍼 카메라맨 여러분, 최상의 영상과 음향을 위해 악천후 속에서 고생한 기술진 여러분, 또 요술상자라도 가져간 듯 온갖 소품을 다 준비해간 미술팀 여러분, 치밀한 구성으로 프로를 엮느라 고생한 작가, 우리의 밤통을 안고 다니느라 힘들었던 행정요원까지... 아! 그리고 우리의 마스크



트 MC 이영현 양. 이 모두가 SBS의 자랑스런 가족이며 민간 외교 사절이었음을 첨언한다.

이제 남은 것은 시청자들의 심판이며 또 다음을 위한 철저한 준비일 터이다. 그리고 이제야 말이지만, 나는 프로그램 제작이 끝날 때까지 어느 과정에서 이 '태평양 종단 퀴즈'가 '태평양 중단(中斷) 퀴즈'로 되면 어쩌나 하고 가슴을 조였다. 만세! **S**

글 / 이대진 · 편집국 부국장대우 아나운서 부장



「태평양 종단퀴즈」에 참가해보니

우물안 개구리의 잊지 못할 추억여행

이태운 · 대학생



이태운 · 해외여행을 해보고 싶은 욕심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연세대 진과공학과 1학년생이다. 처음의 목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결승전까지 진출해 2등이라는,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운' 성적을 거둬으로써 만천하에 퀴즈박사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건 아마도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직접 눈과 귀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평소에 여행할 기회가 많지 않던 나에게 이번 서울방송 창사 특집 「태평양 종단 퀴즈」는 견문을 넓히며 많은 것을 생각해 해준 좋은 기회였다.

재수시절 학원친구인 윤진이와 현선이,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처음 참가 접수를 한 건 지난 7월. 접수중에 이름을 적어넣을 때도, 호주는커녕 국내 예선조차도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8월의 불발 아래 잠실 벨로드롬에서 OX 관문을 통과하고, 두번째 관문인 과거 시험장까지 통과하게 되자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남의 일로만 생각되던 해외여행이 내 코 앞에 타친 것이다. 가진 것이라곤 주민등록증과 학생증뿐이던 내게 태극마크가 찍힌 여권이 생기고, 출국과 관련된 일로 방송국 출입이 잦아지면서 슬금슬금 두려움이 생기

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 장시간 외국에 머무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걱정은 퀴즈 프로그램인 만큼 언젠가 내 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 그것도 텔레비전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했다.

하지만 '기왕 시작한 일인데 중간에 그만두면 안한 것만도 못하잖아. 게다가 함께 가는 30명 중에서 우승자인 한 사람과 나를 뺀 28명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으로 나는 출국 길에 올랐다. 공항까지 따라나온 가족들의 열화같은 응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처음 도착한 말레이시아의 쿠칭은 내 예상과 달리 아주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흔히 동남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후덥지근한 날씨, 가는 곳마다 북적대는 지친 표정의 사람들과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우리가 머문 다마이비치는 정말 한복의 그림과도 같은 곳이었다.

예선과 여행기간 동안 어느새 친해진 일행은 밤마다 그냥 잠자리에 드는 걸 안타까워했고 그런 우리의 눈치를 아는지 이상훈 프로듀서는 밤마다 "오늘 11시 이후에도 안자는 사람은 서울로 보내버리겠어"라고 외치면서 험박(?)을 하셨다. "그래 맞아. 우리는 언제라도 낙오되어서 집으로 보내질 운명에 처해 있는 거야. 기왕 이래거나 저래거나 마찬가지로 이 밤을 그냥 넘길 순 없잖아" 이게 머리 좋은 우리의 논리적 결론이었고 눈사이에 내 친(川)자를 그리고 선 제작진 앞에서도 우리는 텔레파시로 오늘밤에 모일 방 호수를 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들리는 가이드 이 차장의 낭랑한 목소리, "내일 아침 모닝콜은 6시입니다." "아,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나."

말레이시아에서의 관문은 체력이나 기자를 필요로 하는 게임이 많았다. 그 가운데서도 가

장 기억에 남는 건 민속촌 관문. 우리들 사이에 '빨래비누'로 통하던 -출국 전 공항터미널 패자 부활전에서 행운의 빨래비누로 일행에 합세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었다-미경 언니는 그 뜬뜬한 이빨로 육중한 절구통을 들어올리는가 하면, 입으로 붙어서 쏘는 독침으로 과녁판을 날려버리기까지 해서 '빨래박사'로 승격됐다. 하지만 내가 특히 이날을 기억하는 건, 미경언니보다 나자신의 엄청난 독침 실력을 발현했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불지도 못하고 남자 역시 명중시키기 힘든 이 관문에서, 눈이 아파 콘택트 렌즈도 끼지 못하고 참가한 내가 정확하게 중앙을 명중시킨 것이다. 평소애 김수녕 언니와 체구가 닮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내게 진짜로 이런 잠재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도 알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날은 또 내게 슬픈 날이기도 했다. 해외에서 갖는 첫 관문이었던 이날, 친구





서울을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를 중단하며 아름다운 항구도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의 결전장까지 가는 대장정 동안 참가자들은 승부를 지나 마치 수학여행 떠난 학생들처럼 정이 들어버렸다. 길고 힘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이들은 '내년에도 이런 것 없나요?'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윤진이가 탈락한 것이다. 갑자기 쏟아진 스콜(열대지방의 소낙비) 때문에 촬영을 잠시 멈추고 처마 밑에 피해있으면서 난 그만 윤진의의 손을 잡은 채 물어버리고 말았다. 아직 현선이 가진 하지만 '이러다 나만 남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또 '조만간 나도 이렇게 되면 어쩐나' 하는 생각, 이런 수도 저릴 수도 없는 내 상황에 그만 눈물이 나와 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 걱정은 태국에서 다시 한번 현실로 나타났다. 그나마 남아 있던 현선이마저 고무채취 게임에서 낙오되어 버린 것이다. 이날 낙오자들이 벌칙으로 일하게 되었던 태국의 한국식당 팔도강산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는 현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또 한번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아, 나만 남겨두면 어떡해." 그런 내 속도 모르고, 개그맨 김의환 씨는 배신자 운운하면서 놀리기만 했다.

태국에서 있었던 관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는 제임스 본드 섬에서였다. 영화 007 시리즈의 촬영지라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이 섬까지의 거리는 배로 40여분. 그때 상황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전날 먹은 게장 탓인지 심



한 배탈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람이 일행의 3분의 1이나 되었고 날씨 또한 언제 비가 쏟아



질지 모르는 잔뜩 흐린 날씨였다. 따갑도록 열
굴을 때리는 모래바람 속에서 촬영을 마친 배
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섬을 출발하자마자, 방
금까지도 아슬아슬하게 구름 사이를 오락가락
하던 손톱만한 달이 사라지면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을 순전히 선장의 감각에만 의지해서 돌아오
던 40여분이 10년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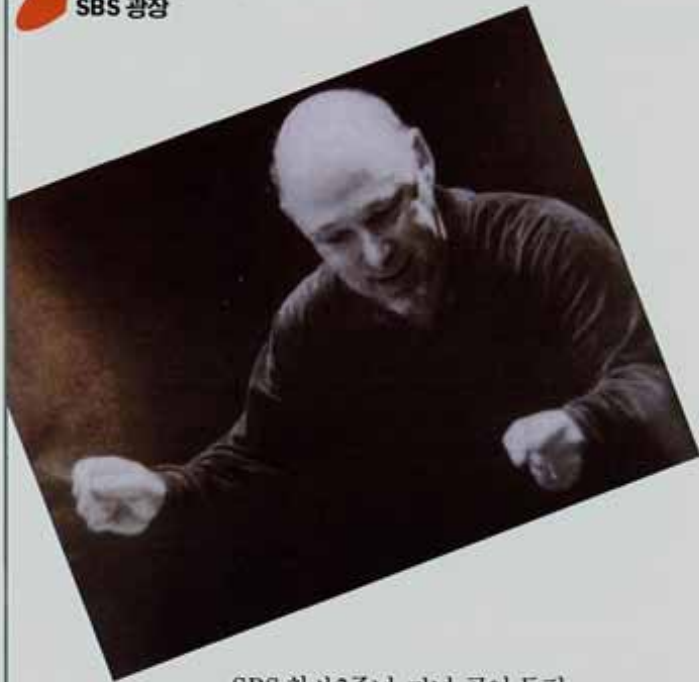
이후에도 이런 위험을 느낀 적이 또 한번 있
었다. 호주 씨월드에서의 번지점프 때였는데,
패자부활전이었던 이 기회를 나아 운 좋게 면할
수 있었지만, 44미터 상공에 거꾸로 매달린 동
료들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했다.

총 열아홉번의 새벽 모닝콜이 있었던 20일
간의 여행 「태평양 종단 퀴즈」. 이 여행에서
내가 잃은 것은 그토록 그려왔던 새벽의 단잠
과 약간의 체중뿐이었던 반면 얻은 것은 너무



나도 많다. 이제 긴 여행에서 돌아와 내 책상을
마주한 지금 먼저 생각나는 건, 화곡동 우물에
서만 살아온 이 개구리에게 바깥 세상으로 나
간 기회를 준 SBS에 고맙다는 생각. 그리고
TV에 과연 내가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태평양
종단 퀴즈」를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것 등등
이다.

함께 고생한 사람들, 우리의 배고프단 말 한
마디에 새벽공기를 가르고 빵과 라면을 어렵게
구해다 주시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내게 좋은 애
기를 많이 해주었던 이들에게도 이 기회를 통
해 고맙단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 오늘 저녁
에는 브리스베인에서 만났던 호주친구에게 편
지를 써야겠다. 근데, 내일 아침 모닝콜이 몇시
더라? 5



SBS 창사2주년 기념 공연 두편 보헤미안이 펼치는 수준높은 서정

서울방송이 태어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처럼 큰 방송으로 우뚝 서게 된 데에는 오로지 시청위자 여러분의 사랑이 기둥이 되어주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선사하는 것은 방송의 당연한 의무이거니와, SBS는 좋은 방송 뿐 아니라 좋은 문화행사 펼치기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계속 다짐해왔습니다.

창사2주년을 맞아 서울방송은 기념공연 두편을 마련했습니다. 보헤미안의 고향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세계적인 두 단체, 아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체코 국립오페라단이 펼치는 수준높은 공연이 깊은 가을을 더욱 품위있는 서정으로 다듬어줍니다. 지금은 '좋은 것'을 만나고 싶은 계절, 이 공연들은 좋은 것에 대한 갈망을 풀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아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때 / 10월 22일~23일 저녁 7시
- 곳 /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 합연 / 함수지(바이올린) · 김혜정(피아노) · 체코 국립합창단
- 입장료 / S석-7만원 A석-5만원 B석-4만원 C석-2만원 D석-1만원

체코슬로바키아 국립 오페라단 초청공연

- 때 / 10월 24일~25일 저녁 7시
- 곳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공연작품 / 루치니의 「라보엠」
- 합연 / 체코슬로바키아 아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입장료 / S석-8만원 A석-6만원 B석-4만원 C석-2만원 D석-1만원
- 예매처

교보문고 736-1444 / 대한음악사 776-0577 / 세고비야기타 735-10911 /

종로서적 733-2331 / 서울문고 553-3038 / 흥익문고 393-9197 /

뉴코아백화점 530-5438 / 현대백화점 541-1417



SBS 창사2주년 기념 '제1회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세계속의 한국모델을 찾습니다

언제나 새로움을 드리는 재미있는 방송
SBS가 창사2주년을 기념하며 '제1회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엽니다. 모델지망생
은 물론 현역모델도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의
입상자 에게는 브룩 실피즈, 제인 폰다, 마고 헤밍
웨이, 샤론 스톤 등 수많은 슈퍼스타를 배출시킨
세계 최대의 모델 에이전시 포드모델사에서 주
최하는 '93세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한국대표
로 나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포드 모델회

사를 통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도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방송은 상금과 트로피, 부상 외
에 입상자의 국내외 패션쇼 및 CF시장 진출
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SBS 전속 탤런트로
선별 특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열리게 될 이 대회는 열여섯
살에서 스물네살까지의 한국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9월 14일~10월 12일
- 접수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주)서울방송 한국 수퍼모델 선발대회 사무국, 또는 나드리코티 화장품 전국 각지점
- 예선/10월 15일
- 결선/11월 26일 저녁 7시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

최신의 첨단장비 갖춘 SBS의 중계차 스튜디오의 개념 넓혀준 방송기동대



중계차는 한정된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외부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좋은 중계차라면 이를 극복하는 장비가 우선 필수조건이다. SBS의 중계차는 스튜디오와 똑같은 조건 아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다.

방 송장비는 다른 어떤 전자장비보다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좋은 장비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탄탄한 기초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인들은 국산, 외제 가릴 것 없이 좋은 장비에 욕심을 부리게 마련이다. 특히 점차 높아만 가는 우리 시청자들의 안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가진 최신 방송장비가 필요하다.

서울방송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방송장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계차를 구입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방송관계자 뿐 아니라 '좋은 방송, 질 높은 영상'을 바라는 시청자들로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국 이후 현재까지 서울방송이 확보한 중계차로는 두대의 밴을 개조하여 만든 뉴스전용 중계차, 트럭형 중계차와 버스형 중계차, 분장차가 있다.

중계차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의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형적 조건, 일기, 풍향, 시간에 따른 태양광선의 이동방향, 주변환경의 소음 등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좋은 중계차라면 이를 극복하는 장비를 우선 갖추고 있어야 한다.

SBS가 최근에 구입한 중계차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이들 외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최신장비가 돋보이는데 특히 방송 장비들이 소형화 경량화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이동하기에 간편한 작고 가벼운 장비들이 차안에 배치되어 있고 아울러 기능면에서도 다른 방송사의 그것이 따라올 수 없는 첨단기능을 갖추었다. 중계차에 장착되는 기본 방송장비로는 카메라, 스위치, 녹화기, 음향장비, 생방송용 마이크로 웨이브, 그리고 발전기 등이다. 이들 중 이번에 구입한 SBS 중계차에 장착된 방송장



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장비인 카메라부터 보자. SBS 중계차가 보유한 카메라는 CCD 335시리즈. 이는 기존 중계차들이 보유한 카메라가 기능면에서 따라올 수 없는 다양한 성능들을 갖고 있는데 첫번째 장점은 수직으로 기존 중계차와 스튜디오에서 보유한 4대보다 많은 6대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다양한 화면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무선이라는 점이다. 현장에서 중계차까지 무선으로 연결되어 예전처럼 때와 장소에 따라 행동 반경에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되었다. 즉 카메라가 피사체들과 함께 행동하고 이동함으로써 보다 박진감 넘치는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넓은 지역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골프중계 등의 중계 방송도 가능해졌다.

세번째 장점은 기존 카메라의 1000배율보다 높은 1500배율을 자랑하는 렌즈를 사용한

다는 점이다. 야구경기를 중계할 때 이 렌즈를 사용하면 전광판 아래나 포수가 끼고 있는 미트의 모습까지도 생생하게 잡을 수 있어 앞으로는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는 모습을 좀더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네번째는 HK-355 시스템이라는, 인간의 눈으로 치자면 각막에 해당하는 부품으로서 광학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주는 장비이다.

이번에 구입한 카메라는 종래의 카메라가 사용하고 있는 진공관이 아닌 반도체 칩(CCD Chip)을 사용했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 면에서 소형화 경량화되었으며 충격에도 잘 견디는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진공관 형식의 단점인 색상이 번지는 점을 보완하여 완벽하게 색상을 재생시킬 수 있는, 한 발 앞선 장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자체에 송수신기가 부착되어 있어 중계차와의 의사교환이 수시로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지금 몇 번의 카메라가 방송되고 있는지를 카메라맨이 알 수 있어 좀더 세

런된 화면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오디오 부분 역시 타 방송사의 중계차와는 면모가 많이 다르다. 음향장비로는 우선 기존의 릴 녹음기 대신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와 디지털 오디오 레코더를 장착하여 음의 질을 높였고, 20헬츠에서 20킬로헬츠의 가청주파수 대역을 30밴드의 주파수대별로 분리하여 귀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음의 폭과 위상을 화면과 함께 감시 보청할 수 있는 그래픽 이퀄라이저(Graphic Equalizer)를 장착하였다. 거기에 특정부분의 음질을 높일 수 있는 음압축기(Compressor), 즉 야구장에서의 방망이 소리, 축구에서의 공차는 소리, 육상에서의 발소리 등을 압축하여 폭발하듯 전달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화면과 함께 보다 생생한 음향까지 즐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감도 고음질의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여 종래에 사용하던 유선 마이크의 공간적인 제약성을 최대한 극복하고 있다.

이밖에도 화면의 특수 효과를 담당하는 디지털 영상효과기(DPM-700)를 중계차 안에 장착하였다. 이 장비는 지금까지는 방송사 조정실 혹은 부조정실에만 설치된 장비로서 중계차 안에 장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기존의 장비가 아날로그 방식으로서 평면적인 효과밖에 발휘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하여 디지털 방식을 채택하여 화면을 뒤집고 있는 다양한 입체화면의 영상효과까지 발휘하게 되었다.

또한 SBS의 중계차에는 Air Suspension과 Auto Transmission까지 장착되어 있다. 이는 차량 운행 때의 충격과 진동을 최소화하고 운전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비포장도로 등 험한 길도 거뜬히 다닐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계차 한 대는 17톤의 무게와 수천억 개의 전자소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 어떤 차량보다도 외적인 영향에 민감하다. 따라서 중계차 안에서는 전자장비보다도 이를 보호해 주는 보조장치가 더 중요한 형편이다. 이번에 구입한



중계차에 장착되어 있는 Air Suspension은 이러한 외적인 충격을 최소한으로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필수장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뉴스 전용 중계차에 달린 풀(Pool)의 경우 기존 장비의 높이인 8~9미터보다 높은 12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생방송을 위한 마이크로 웨이브를 부착하여 보다 안정된 생방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주파수를 기존의 방송사에서 독식하고 있는지라 서울방송에도 주파수 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간은 지적이다.

“다른 방송사에 있을 때만 해도 중계차 한번 몰고 나갔다가 오면 바닥에 떨어진 나사를 주워 조이기 바빴습니다. 차가 얼마나 예민한지 부산 한번 가는데 며칠이나 걸릴 정도로 조심 조심 다녀와야 했지요.”

방송기술 경력 28년의 배태량인 기술국 이관형 차장은 이렇게 과거의 ‘어렵던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그의 말마따나 기존의 중계차는 중계방송보다 정작 수리와 보수에 더 매달려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송사는 명실공히 서울방송 밖에 없는 셈이다.

서울방송은 개국과 함께 대형 특집프로그램들을 잠실 실내체육관, 올림픽 공원, 힐튼 호텔 등에서 중계방송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중계차는 구형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썩 좋은 방송을 선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방송장비보다도 시급히 필요한 것이 최신판 장비가 장착된 중계차의 확보였던 터에 이번의 중계차 구입으로 일단 중계방송에 대해서는 한숨을 놓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야말로 다른 방송사에 뒤지지 않는, 아니 훨씬 더 양질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기쁘다는 것이 기술국 사람들의 말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뛰어난 장비를 가지고 방



12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마이크로 웨이브까지 부착하여 다른 방송사보다 훨씬 안정된 생방송을 할 수 있는 뉴스전용 중계차의 모습이다. 앞으로의 전국방송 시대를 대비해 SBS는 '제값'을 할 수 있는 방송장비 구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작정이다.

송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집니다”라는 이관형 차장의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최신 중계차를 가지고 방송하고 있다는 기술국 사람들의 자긍심은 대단하다.

현재 이들 중계차를 이용하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정규뉴스를 비롯하여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 그리고 「사랑만들기」와 「사랑의 중계차」 등의 각종 쇼 오락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 최신판의 중계차들이 '제값'을 다해내는 가운데 다른 방송사와 차별화된, SBS만이 해낼 수 있는 멋진 방송을 보게 해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S**

글/김병목 · 자유기고가

사진/고도영

화면보다 더 재미있는 '꾸러기 카메라'의 뒷이야기들 잠시 후를 알 수 없는 위기일발의 연속

우리는 보통 방송 프로그램은 대개 그 제작 과정이 일련의 순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편의 프로그램-드라마를 비롯, 오락, 교양물 등 모든 장르가 포함된다-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포맷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담아서 누구를 주 대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면 전반적인 구성에 들어가고 작품의 기초가 되는 대본이 쓰여진다. 이것을 가지고 연출자는 대본 또는 구성에 의거해 우리가 흔히 콘티(Continuity)라 부르는 '연출 플랜'을 작성하게 된다. 이런 콘티에 의해 실제 제작 현장에서 카메라, 조명, 음악, 효과 등이 총 동원되어 하나의 영상,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방송 작품들이 이러한 제작 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의 제작 또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에 속하는 코너가 있다. 바로 '꾸러기 카메라'가 그 주인공인데 이것의 제작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콘티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꾸러기 카메라'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상황을 설정, 스타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전술한(?) 모습을 당사자 모르게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제작진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에 임하게 된다. 물론 여러가지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여 대처할 수는 있으나 이것 역시 연출자의 능동적인 사전작업에 의한 것이 아닌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콘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한가지는 바로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NG가 없다는 것이다. 찍히는 대상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알아 차렸을 경우 고스란히 두 손 털고 촬영을 중단해야만 된다. 즉 다시 찍고 말고 할 것 없이 'NG=실패'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꾸러기 카메라'의 스태프들은 늘 긴장하기 마련이고 연출자 또한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과 순발력 등을 겸한 고도의 연출력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카메라가 대부분 숨어야 하고 조명 또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의 극복, 모든 스태프들의 일치단결(?)된 호흡-오직 한사람을 속여야 된다는 사명감-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맞지 않으면 제작진 모두가 오히려 꾸러기 카메라에게 당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늘 제작 현장은 초긴장 상태인 것이다.



「꾸러기카메라」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최전선에 서있는 주역이 바로 김종국이다. 매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스타들을 골탕 먹이는 악동 노릇을 하느라 그는 본의아니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살신성인(?)의 투혼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꾸러기 카메라'에 찍힌 연예인은 줄잡아 십 여명 정도. 이 중에서 대부분은 방송되어 시청자들에게 선보였으나 몇개는 촬영 실패로 인해 방송을 못 탄 것도 있다. 또한 성공하였다 해도 본래의 연출 의도와는 틀리게 되거나 어느 한가지의 실수가 오히려 더 재미있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등 제작 순간순간마다 아슬아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렇듯 예측할 수 없는 제작 현장 분위기로 인해 '꾸러기 카메라'에는 촬영 후 남은 이야기들이 많다.

지난 3월 「꾸러기 대행진」이란 타이틀로 처음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꾸러기 카메라'의 첫 주인공은 탤런트 옥소리. 기존의 「토요일 7시 웃으면 좋아요」의 한 코너였다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기에 제작진의 책임감과 부담감 또한 적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꾸러기 카메라' 옥소리 편은 제



작진이 고생을 푼 특이한 작품이었다.

서울 대공원의 곰 탈출 사건 아이템을 가지고 가짜 뉴스판들기에서부터 스텐트맨 동원, 특수음향, 고구려 시대 의상 재현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많이 한 촬영이었다.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촬영에 들어갔으나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연습 때는 그렇게 잘나오던 곰 울음소리가 막상 주인공이 나무에 묶이고 곰(김종국 분장)이 등장했는데도 도무지 나오질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옥소리의 몇미터 앞에 곰이 등장하고 모두들 난리난 척하고 있는데 정작 곰의 울음소리가 안들리니 무슨 무성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결국 숨어있던 제작진이 육성으로 소리를 내 겨우겨우 들롱날 고비를 넘겼다. 게다가 카메라를 숨기기 위해 땅을 일 미터씩이나 파낸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속에 들어가 다섯시간 넘게 숨어 지내는 기록을 남겼다. 간첩도 아니면서 땅속에 숨어서 불일(?)도 그곳에서 해결했으니 제작진 모두가 첫회부터 죽을 맛이였다.

분재원에서 촬영된 양수경 편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됐는데 양수경이 분재하는 과정에서 자꾸 가지치기를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연극자가 애를 많이 먹었다. 결국 매니저까지 동원해 그후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된 편이었고 가수 박정운 편은 살던 집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침대부터 조그마한 가재도구까지 소품이 최고로 많이 들어간 작품이었다.

여기서도 약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건물 수위로 변장한 김종국과 가짜 집주인이 전세값을 다르게 이야기해 순간 당황한 것이다. 박정운이 워낙 정신 없어서 그것까지 알아 차리지 못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꾸러기 카메라’ 최초의 대작(大作)이라 할 수 있는 나한일 편은 전쟁신을 방불케 하는 폭약 설치, 30미터 높이 크레인에서 공중촬영, 오토바이 요기단, 모래바람이 휘몰아 치는 난지도에 집 한채의 세트까지 동원하는 등, 엄청난 물량이 투입된 촬영이었다. 특히 위험한 폭파장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폭파 전문팀이

예상보다 많은 폭약을 써 제작진을 놀래키기도 하였다. 나한일의 오토바이 묘기 또한 돋보인 촬영이었다.

여섯번째 '꾸러기 카메라'의 주인공은 아주 경이었는데 그는 아마 꾸러기 스태프에게 가장 원한(?)이 많을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아이템으로 촬영을 계획했으나 사전에 바람을 잡기 위한 촬영에서 두번이나 속이고 놀래켜 주었다. 세번째 상황이 끝나고 나서도 아주 경은 싫은 표정 하나 짓지 않아 우리 스태프들을 기쁘게 했다. (꾸러기 카메라 촬영 후 화를 내는 주인공도 간혹 있다) 재미있던 사실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스태프와 연기자가 교통경찰 복장으로 대기하면서 실제로 세시간 동안이나 진짜 경찰인 양 교통정리와 음주운전 단속을 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선 일이다.

식사를 하는 도중 음식에서 진주가 나온 상황을 촬영한 최주봉 편은 진짜 진주를 구하지 못해 실패할 뻔한 촬영이었다. 근처의 금은방을 뒤져도 적합한 진주가 없었고, 또 있다 해도 그 비싼 것을 함부로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겨우 김종국의 얼굴을 담보로 빌려 촬영을 했다.

생방송 중에 꾸러기 카메라에 걸린 이상은 편도 기억할 만한 작품이다. SBS 라디오 「기쁜 우리 젊은날」의 초대손님으로 나온 이상은은 방송이 다가는 상황에서 이상한 엽서 소개, 전화 장난으로 꾸미고 나중에는 스튜디오 안에서 춤까지 추게 하였다. 생방송이라서 정확한 시간맞추기부터 라디오 방송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하느라 연출자의 조바심은 그만쯤 컸다. 아무튼 당시 라디오 제작진에게 감사를 드린다.

자신의 차를 폐차시켰다고 속인 김민우 편은 정말 위기일박이었다. 뮤직 비디오를 찍을 동안 김민우의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는

데 갑자기 의상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여 부랴부랴 차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만 했다. 스태프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괜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김민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다.

더블 캐스트로 찍은 황신혜·손지창 편은 서로가 상대방을 속이는 줄로 알고 좋아하다가 결국 손지창이 당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제작진을 내내 쓸쓸하게 만든 촬영이었다.

수중 카메라까지 동원된 이용식의 낚시터 소동 편은 김종국이 물속에서 고생을 한 작품이다. 김종국은 저수지 물이라서 그런지 물속 제대로 NG가 나지 않는다는 것, '꾸러기카메라'의 특성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NG가 안생기는 게 아니고 못생기는 것이다. 'NG는 곧 실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꾸러기카메라' 제작진은 사전에 치밀한 음모를 꾸미며 온갖 방법으로 머리를 굴려야한다.





에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 낚시 바늘을 찾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다.

멀리 무주까지 가서 촬영한 박준희 편 역시 위기일발이었다. 한참 촬영을 하는 도중 숨겨놓은 마이크가 책상 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도사로 분장한 연기자의 순발력으로 무주까지의 출장이 헛고생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제작진이 알려진 채로 찍은 김국환 편, 촬영 도중 들킨 줄도 모르고 찍은 최성수 편, 경찰서를 몰라 해맨 서세원 편, 쓰레기통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하지만 '꾸러기 카메라'가 생명력과 인기를 잃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인간적인 모습' 때문일 것이다.

뒤집어 쓰고 찍은 강문영 편, 엑스트라 200 명을 동원하고도 실패한 '지구대' 이영현 편, 영화 20도의 냉동실에 세시간 동안 숨어 있었던 일 등 제작의 뒷이야기와 제작진의 고생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스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한 '꾸러기 카메라'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것은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담기 때문일 것이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스타들의 모습이 아닌, 가식 없고 꾸밈 없는 행동 표정에 꾸러기 제작진은 재미만을 첨가해 줄 뿐이다. 스타들의 이러한 자연적인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바로 웃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건강하고 인간적인 웃음을 만들기 위해 또 어딘가로 출발하는 것이다. **S**

글 / 안대홍 · TV제작국 TV제작2부

사진 / 고도영

10월의 화제

여섯

3계 광



동화약품

광고주 제공 자막 국내 최초로 교유의 로고타입 방송

「궁합이 맞습니다」의 신세대 새덕 박은영

「코미디 전망대」의 '시청자 상담'

「목소리를 낮춰요」의 새 풍속도, 한집에서 사는 사돈

「토요일 7시 웃으면 좋아요」의 '연인'

「가을 여자」로 다시 돌아온 은막의 스타 나요미

화제 1

화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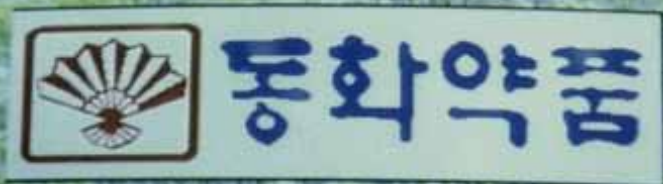
화제 3

화제 4

화제 5

화제 6

※ 제 공



○○○
화제 1

**광고주 제공 자막,
국내 최초로 고유의
로고타입 방송**

광고는 '무엇인가를 알리는 일'이다. 그 '무엇'은 확실히 정해져있으며 알리는 방법에는 정석이 없다. 광고는 시대에 따라 모양새를 달리 하고, 알리는 방법 또한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찾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광고주의 의도에 따라 '무엇'을 보여주고, 그 무엇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광고의 맛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광고역사가 그리 길지 않듯, TV광고의 역사 또한 길지 않다.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는 수많은 '보여지는 것들' 중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과 재미는 프로그램 못지 않다. SBS가 지난 9월 7일부터 「스포츠뉴스」 「잠깐 경제메모」 「가요 데이트」와 같은 5분짜리 프로그램의 광고주 제공자막을 국내최초로 각 회사의 고유 로고마크와 로고체로 내보내기 시작한 것은 TV광고의 지위를 또 한번 격상시켰다는 점 외에 지금껏 시청자들에게 흔히 아무 인상도 남기지 못했던 광고주 제공 자막까지 재미있는 광고로 인식시켰다는 의미에서 광고계의 작은 사건이라 할 만하다. 기왕 보게 될 광고라면 이처럼 산뜻하고 재미있게 내보내자는 것, 과연 민영방송다운 발상이 아닌가.



○○○

화제 2

「궁합이 맞습니다」의 신세대 새댁 박은영

• 방송/매주 수·목요일 밤
8시 50분~9시 45분

방 송은 그것이 갖는 화려함보다 항상 긴장을 강요하는 일이란 점에서 오히려 매력적이다. 본래 자신의 성격과는 전혀 상반되는 '푼수끼 있는' 연기를 해내느라 그 긴장의 정도가 다른 이보다 훨씬 더하면서도 박은영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궁합이 맞습니다」는 베테랑급과 신인들의 연기가 적적 호흡이 맞아떨어져 날이 갈수록 숙성된 포도주처럼 감칠맛을 내고 있다. 「드라마의 성패는 결국 배우에 달렸다」라고 어느 연출자는 말했거니와 멜로볼도 아니고 홈드라마도 아닌데 이렇듯 감칠맛이 나는 건 대부분이 연기자들의 노고 덕분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신세대 주부상을 보여주고 있는 박은영의 모습이 눈길을 잡아매는 까닭은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역할에 집착하는 배역해석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 다루는 것이나 시집식구 대하는 법 등, 기존의 상식을 모두 뛰어넘는 배역의 성격에 허를 찌 어른들도 아마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허영기도 있는 이 푼수새댁이 결코 밍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에게서 부부생활의 지혜랄까, 또는 인생을 보는 낙천적인 시각 같은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
화제 3

「코미디 전망대」의 ‘시청자 상담’

• 방송/매주 수요일 밤
9시 50분~10시 50분

강물도 굽이치다 고일 때가 있듯이 최선을 다하는 구석이 있으면 적당히 게으를 때도 있는게 세상이지이다. 하물며 물은 고여서 썩기까지 하지 않던가. 그러나 그를 보면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코미디연기란 것도 모를지기 과일과 같아서 농익고 맛이 들어야 열매가 실한 법이다. 요즘의 김미화를 불러치면 그야말로 기운이 펄펄 넘쳐난다. 머리에 팡채(?)를 두른 김경태 위원에게 찾아와 눈물 콧물 짜내가며 온갖 말도 안되는 상담을 해올때의 그의 입은 설새없이 돌아가는 성능좋은 모터가 된다.

‘시청자 상담’ 코너가 「코미디 전망대」의 한 부분에 불과하면서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채널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도 김미화의 그 ‘땃발이나 나온’ 커다란 입에서 쏟아져나오는, 신기에 가까운 입담 덕분인게 분명하다. 그를 두고 누군가는 ‘복이 많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단순히 ‘운이 좋다’며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까이서 그를 지켜본대로 얘기하자면 그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연기자’이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코미디를 향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
화제 4

「목소리를 낮춰요」의 새 풍속도, 한집에서 사는 사돈

· 방송/매주 목요일 밤
8시 50분~10시 50분

세상은 변한다. 텔레비전은 변한 세상을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고 때로는 변해보라고 부추기는 선동자이기도 하다. 방송이란 것이 세상을 반영하고 이끌어 가는 매체인 까닭에, 그중에서도 드라마는 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어야 하는 까닭에 오늘날의 드라마 만드는 이들은 늘 끝치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어떤 드라마 덕분에 그 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난다. 평생을 가도 어렵고 서먹한 관계라는 사돈끼리 한집에서 서로 동무 삼아 살아가는 걸 보며 TV드라마가 주는 '순(順)기능'이란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시아머니와 친정어머니, 어느 한쪽으로도 비중의 저울을 기울일 수 없는 세상의 많은 딸들, TV드라마가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세상풍속도에 그들은 아마 박수로 동의를 표시할 것이다. 변해가는 세상 모습을 이처럼 따뜻하고 친밀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것, 「목소리를 낮춰요」에 소문 없이 고정시청자가 늘고 있는 비결은 거기에 있다.



○○○
화제 5

「토요일 7시 웃으면 좋아요」의 ‘연인’

• 방송/매주 토요일 저녁
7시~8시

인간 본능을 탯줄처럼 묶고 있는 사랑의 무게를 한몸에 진
듯한 남자, 돈 없고 뺨 없고 가진거라곤 사랑과 정열밖에
없는 남자, 힘과 몽상을 함께 지닌 낭만주의자, 우수와
강인함을 겸비한 휴머니스트, 사랑을 위해서라면 불지게라도
마다않고 쫓아질 키 큰 남자, 이상은 실제상황(?)이 아닌,
방송 속에서만 ‘여복이 터진’ 남자 최양락에 관한 보고이다.

‘남과 여’ ‘도시의 사냥꾼’ 등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코미디들에서 성격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랑 없는 세상은
불꺼진 항구”를 즐기치게 주장해왔던 그인만큼 요즘 그는
항구에 안착한 배의 선원처럼 즐겁고 뿌듯한 기분일거다.

팔자에 없는 국회의원 노릇 하라, 그러다가 일요일이 되면
꾸러기가 되어 풀수 떨라, 눈썹이 휘날리도록 바쁜 와중에서도
‘사랑이란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임을 깨달은걸까.
예전의 직업이었던 ‘재비’까지 겸하겠다고 나선 최양락,
영화「연인」의 남주인공과는 키 큰 것 밖에 닮은 점이 없긴
해도 어찌랴, 우리는 벌써 그를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으니.



○○○
화제 6

「가을 여자」로 다시 돌아온 은막의 스타 나오미

· 방송/월~토요일 아침
8시 55분~9시 20분

떠나보지 않고서는 그리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없다던가.
'왕년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향수는 어딘지
좀 상투적인 데가 있다. 그러나 태평양의 거리만큼 먼 그리움을
털어내고 '왕년'의 톱스타였던 그가 미국에서 돌아와 다시
우리의 시야 속으로 걸어들어오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상투적이기 보다는 아련한 향수 쪽에 더 가깝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절정의 나이에 대중들의 걸을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그는 아직도
화려한 아름다움을 지닌 70년대 스크린 속의 주인공으로
자리잡고 있을 터이므로 그와 우리가 텔레비전을 사이에 두고
연기자와 시청자의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된 지금, 어쩌면 그
아련한 향수는 곧 상투적인 것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여배우가 그레타 가르보처럼 숨어서만 산다면 그
또한 얼마나 매력없는 일인가. 지금껏 간직해왔던 열정을
한꺼번에 녹여 뽐내듯, 때론 화근하게 보여주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중년의 나오미에게 사람들은 아마 그 이상의
매력을 발견할 것이다. 5

섬에서 배우는 인생

유자호 · 보도국 정치부장



유자호 · 1947년 부산 생, 서울대 사범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74년 KBS 기자로 입사했다. 주로 정치부에서 일했으며 KBS 유럽총국장을 지낸 후 91년 1월 SBS 보도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자이며 동시에 시인이자. 바쁜 취재활동 중에도 「성 수요일의 저녁」 등의 시집과 산문집 「피보씨는 지금 독서 중입니다」를 냈다.

신기하다. 여의도에도 가을이 오다니,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기이한 섬, 끊임없이 줄을 잇는 차량의 행렬, 빌딩의 숲에서 종일 토해내는 사람들, 노인이 드문 동네, 하얀 와이셔츠와 넥타이 차림의 회사원들이 일상적인 낮을 사는 곳, 물개성, 물자아, 경쟁과 싸움과 삭막함이 군림하는 이 물자연적인 고장에 가을은 무엇하러 오는 것일까?

몇년 전까지 9월이면 광장 중앙에서 행진 연습을 하던 군인들을 기억한다. 아침이면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큰 통에서 밥이며 국을 퍼날라 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전 내내 줄 맞춰 걷는 연습을 하고, 기합을 받고, 다시 먹고, 다시 걷고, 다시 먹고, 밤이 되면 잠까지도 줄을 맞춰 자던 젊은이들. 10월 1일에는 거대한 단위에 높은 사람들이 가득 서고, 섬은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채 탱크와 대포와 장갑차가 구르고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하늘에는 전투기들이 공중 곡예를 벌였다.

이따금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이 벌이던 종교 행사, 단상에서 포효하던 전도사들, 기도하고, 울부짖고, 손뼉치고, 땅을 구르던 그 많은 사람들. 초파일이면 광장을 메우던 연등의 행렬, 여의도에는 왜 사람들만 모이면 줄지어 걷는 것일까? 몇년에 한번씩 펼쳐지던 정치 행사들, 주먹을 쥐고 부르짖던 연사 앞에 무심한 군중들. 해만 지면 섬 주변에 모이는 또 다른 사람의 무리. 산책하고 노래하고 춤추기도 하지만, 매일 밤 벌어지는 설익은 사랑의 유희, 폭력, 범죄, 무서운 밤의 이야기들.

경쟁이 무서운 사람들은 여의도에 오지 않는 것이 낫다. 증권거래소에는 치열한 재화의 경쟁이 있고, 국회의사당에는 지혜와 음모와 술수의 경쟁이 있고, 광장을 가로 질러 자리잡고 있는 세 방송사에는 과학과 예술과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자 하는 불

꽃 튀는 경쟁이 있다. 경쟁에서는 승리가 미덕일 뿐, 양보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 살벌한 고장에 인간미가 발붙일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나의 여의도 생활도 15년여를 헤아린다. 남산에 있던 KBS가 여의도로 사옥을 옮기면서 여의도로의 출퇴근이 시작됐던 것이다. 남산에서의 직장 생활은 복된 것이었다. 낡은 중국집, 못생긴 여자들이 뚱한 모습으로 차를 주던 지하 다방, 점심 먹고 들르던 약수터. 벤치에 앉아 있던 노인들, 진고개, 막걸리와 족발을 판던 목로주점, 그리고 서울의 맛을 느끼게 하던 명동이 있었다.

여의도로 오면서 그 모든 것은 사라졌다. 확장함과 삭막함. 겨울이면 서지도 않고 생하니 달아나는 버스를 떨면서 기다려야 했고, 택시를 잡지 못해 용달차를 타고,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쫓겨 늘 뛰어야 하는 넓은 도로가 있었다.

출근하면서 뛰기 시작하면 그 땀박질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내가 없다면 마치 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함 치고 싸우며 하루를 보내고 늦은 밤 황량한 광장에 서서 어둠 속에 불밝히고 있는 공룡 같은 건물을 보며 이 세상은 내가 없어도 끄떡없는데 왜 그리 각박했던가를 반추하곤 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삭막한 섬에도 가을이 오는 까닭을 알았다. 그것은 강 때문이었다. 한강이 어디 보통 강인가. 세계를 다녀봐도 한강만큼 큰 강은 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크기에 걸맞게 그 흐름의 유장함이란... 한강에 비춰 보면 여의도는 그 큰 품에 안겨 있는 한갓 돌덩이에 불과할 뿐이다. 큰 자연의 일부일 뿐인 것이다. 물에 싸여 있다는 것, 이는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요소가 풍요하다는 것이요 바람을 다스려 환경이 온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장재식 그림

볼 때 여의도는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는 입지적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섬 안에서 벌어지는 회노애락과 삶의 갖가지 곡절들은 유장한 강 흐름에 한갓 거품처럼 스러지는 찰나의 반짝임일 뿐인 것이다.

서울방송 사옥은 전망이 좋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보이고 남산이 원경에 잡힌다. 그 위에 우뚝 선 철탑까지를 함께 그려보면 도시가 주는 조형미와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이 한데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거기 에다가 강과 섬의 배열이라는 절묘한 구도가 이뤄진다.

내가 여의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까지는 무려 15년이 걸렸다. 생활의 아름다움, 도시가 갖는 아름다움, 문명이 갖는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촌놈인 내게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시간과의 싸움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쟁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포기할 줄 아는 지혜도 배웠다. 도시의 세련됨을 사랑할 줄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아예 이 섬으로 집을 옮겨 섬 속에 파묻혀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는 중이다. **5**

「꾸러기 대행진」의 아기꾸러기 인병국
**“어른들의 세살적 기억을
 찾아드립니다”**

우 선 그의 신상명세를 들춰보기로 하자.

- 성명 : 인병국
- 생년월일 : 1989년 6월 19일 (생후 39개월)
- 성격 : 침착 명랑
- 가족관계 : 회사원인 아빠와 유치원 보모인
엄마 사이의 무녀독남
- 특기 : 모든 사물(무생물포함)과 대화 가능
(예 : 로보트인형, 거울, 선풍기, 곰인형 등등)
- 건강상태 : 양호
- 병역관계 : 미필
- 결혼여부 : 미혼 (호적 확인 했음)
- 최종학력 : 에덴미술학원 유아반 재학 중
- 장래희망 : 매일 바뀔 ('장래'라는 개념이 아
직 입력되지 않은 듯함)

이상이 아기꾸러기 병국이에 관한 모든 것
 이다. 무척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 이상
 인 부분이 있다.

아기꾸러기를 처음 기획했을 때 주인공이
 갖춰야 될 몇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외아들이나 외동딸일 것.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형이나 언니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교적 어른 말을 잘 들을 것. 무조건 자기고집을 내세우거나 목석같은 성격일 경우 자극에 대한 반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또래보다 언어 표현력이 탁월할 것.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한 언어로 구사해야만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조건 때문에 탈락된 많은 병국이들이 있었다. 넷째, 감정이 풍부하고 영리하며 자기판단이 분명할 것. 예민하고 영리한 아이일수록 나름대로 사물과 사건에 대한 자기척도가 있게 마련이다.

이와같이 쉽지 않은 조건을 90퍼센트 이상 만족시키고 있는 아이가 아기꾸러기 병국이다. 확실히 평범한 아이는 아니다. 그러나 간혹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신동이나 천재도 아니다. 병국이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살고 이따금 동네 골목어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요즘아이일 뿐이다. 다시 말해 현대 아이들의 대표선수급 정도란 얘기다. 만 네살도 안된 병국이의 사고, 행동, 느낌 등을 통해 자신의 어릴 때와 비교하면서 당혹감이나 경이감을 느낀다 하여 그것을 '세대차이'라는 진부한 관념으로 이해하지 않길 바란다. 병국이가 보여주는 맹랑함과 영리함, 때때로 얼핏 나타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세대차이가 아니라 '세상 차이'인 것이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

혹자는 사리 판단이 어려운 어린아이의 사생활을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코너의 의도는 병국이 만큼이나 순수했다. 오늘을 사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자. 나는 이마나를 볼 수가 없다. 나는 나이와 환경과 각종 지식과 경험과 온갖 편견으로 중무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을 통하면 간혹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아기꾸러기' 코너의 원초적 기획의도였다. 병국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본능 중심의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고 있다.

배고프면 먹고,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울고, 마음대로 노래하고, 거침없이 지껄이고, 좋으면 안기고, 졸리우면 자고... 이러한 원초적 본능을 우리는 얼마나 자제하고, 통제하고, 또 억제하며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병국이의 솔직한 본능적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통쾌감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아기꾸러기 병국이가 보여주는 귀엽고 순수한 천연 무궁해 건강미! '건강한사회, 건강한방송'이란 슬로건의 상징이 충분히 될 만하다. 최연소 SBS맨이면서 큰일을 해내고 있는 SBS베이비 인병국. 이 시간에도 자신의 로보트인형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한 알의 초콜릿이라도 더 얻어 먹을까 궁리하고 있을 아기꾸러기 인병국! 그를 대한 때마다 시청률의 의미를 자꾸 떠올리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또한 끝없이 일어나는 이 사랑의 감정을 어찌란 말인가... S

글/김태성 · TV제작국 제작2부

사진/김상민



92년을 달린다

「출발! 서울의 아침」MC 이종은 도시의 아침을 여는 상큼한 웃음

아침엔 우유 한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바쁜 일상만큼이나 빠른 박자로 숨가쁜 도시인의 삶을 노래한 어느 유행가의 첫 소절이다. 새벽부터 일어나 목은 복어를 뜯어 끓여낸 국물 대신 3분만에 먹을수 있다는 곰탕이나 선명한 바코드가 찍힌 진공포장 속에 담긴 레토르트 죽으로 선 채 아침을 때울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이 금쪽같은 시간을 가장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이종은의 이같은 모색이 제 빛을 모두 발하기엔 두달여의 시간은 아직 이르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젠 짜증의 한계선을 넘어버린 출근 전쟁에 대한 익숙한 예측으로 집을 나서는 남편들과, 그런 남편들을 떠나보내고 또다시 잡다한 집안일에 빠져들어야 하는 아내들이 느끼는 도시

적인 일상성을 다소나마 신선하게 일신해보려는 그의 상큼한 표정만큼은 이제 낯설지가 않다.

프로그램의 '초기부터' 쪽 같이 아침을 함께 해온 시청자라면 그의 얼굴도 또한 낯설지 않을 것이다. 지난 4월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꽃박람회를 취재하고 돌아와 바쁜 출근시간의 안방극장에 수일간 다양한 꽃의 세계를 소개한 것이 그의 첫 인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오랫동안(14년 가량)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그의 색다른 경력이 이런 해외 취재는 물론 웬만한 외국인 출연자쯤은 부담없이 인터뷰해내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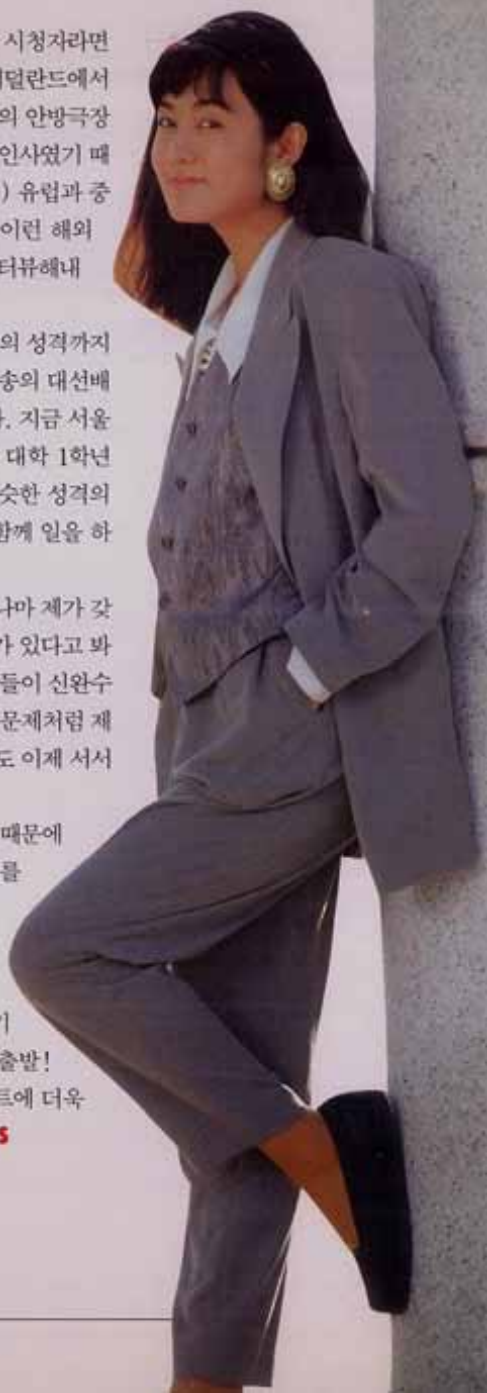
첫 방송 사흘전까지도 망설여지던 일을 이제 나름의 성격까지 연구해볼 수 있을 만큼 능숙하게 만들어 준 데는 방송의 대선배이자 동료 MC인 신완수 부장에게서 힘입은 바 크다. 지금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반인 이종은이 그를 처음 만난 건 대학 1학년 때였다. 88년 올림픽 당시 KBS교양제작국에서 비슷한 성격의 교양 프로에 리포터로 출연한 것이 신완수 부장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교양과 정보에 주안점을 두는 프로인 만큼 적으나마 제가 갖고있는 잡다한 경험들이 뭔가 구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시사적인, 그래서 다소 딱딱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신완수 부장님의 영역이라면, 실생활 속의 여성문제나 주부문제처럼 재나름의 해석력으로 접근해야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서서히 알 것 같아요.”

매일 새벽 3시까지 스튜디오에 도착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야말로 우유나 패스트푸드 따위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적이 더 많은, 그래서 이제 막 대학의 문을 나서려하는 햇병아리인 그에겐 좀 벅차기도 한 생활이지만, 아직은 고된 일상보다는 도전해야 할 영역들을 찾아내고 파고드는 데 더 익숙한 시기임을 잊지 않는다. 그런 삶 속의 적극성이 결국은 「출발! 서울의 아침」으로 시작되는 그의 활기찬 오프닝멘트에 더욱 건강한 중량감을 더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S

글/김일종·방송구성작가

사진/김상연



「'92 선발 내가 진짜 스타」에서 대상 탄
이명우와 정낙송

진짜들도 무색해진 인간복사기



‘광어와 도다리’의 관계. 어떤 것이 광어이고 어떤 것이 도다리인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게 한다. 결국 ‘가짜광어’로 불리워지는 도다리지만 광어와 닮았기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광어 못지않은 유명세(?)를 타는 것이 아닐까?

광어와 도다리의 이러한 관계처럼 대중스타와 닮은 꼴인 사람들을 찾고자 SBS가 추석특집으로 마련하였던 「'92 선발 내가 진짜 스타」는 제목 선정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스타와 이미테이션 스타’ ‘SBS 닮은 꼴 선발대회’ ‘92 선발 닮은 꼴 스타를 찾습니다’ ‘92 선발 개성 연출’ 등등. 어떤 이는 옷자고 한 소린지 ‘92 선발 국화뽕 선발대회’라는 제목도 내놓았고 ‘92 선발 광어와 도다리’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험찬사를 제목스복사기나 신도리코복사기로 정해서 아예 프로그램 제목을 ‘92 선발 스타복사기’로 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TV제작2부 이남기 부장의 낙점에 의해 정해진 것이 「92 선발 내가 진짜스타」. 약간 도전적이고 역설적인 느낌은 있으나 이 행사를 통해 배출되는 달은 폴 스타들을 잘 갖고 다듬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진짜 스타군을 형성해 보자는 뜻이 담겨 있는 제목이었기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시작된 달은폴 찾기는 예고가 나가면서부터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8월 16일 1차 예심에 400여 팀이 모였는데 정말 각양각색의 달은 폴들이 다 모여 있었다.

자기 입으로 어떤 스타를 달았다고 말하기 전에는 도저히 감도 잡을 수 없는 엉터리 달은 폴도 있었고, 보는 순간 “야! 국화빵이군, 국화빵이야”라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올 만큼 달은 이도 있었다. 김동인의 단편 「발가락이 달았다」처럼 영화 「원초적 본능」의 샤론 스톤과 이마만 달았다고 우기던 애처로운 참가자, 장재근의 에어로빅을 보여주겠다며 무대에 오르자마자 “심사위원님! 저 바지 벗어도 됩니까?”하고 외치는 바람에 우리 여자 제작진을 잠시 출격계(?) 해줬던 참가자, 셋 걸러 하나씩 나오는 서태지와 아이들 달은폴 참가자들 덕분에 「난 알아요」의 가사와 춤 동작을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모두 알아버린 우리 심사위원님들….

밤하늘의 별들 중에도 큰별이 있고 작은별이 있듯이 이날 펼쳐진 달은폴 우주에도 유난히 눈에 띄는 달은폴 스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탤런트 최주봉과 개그맨 이영자의 달은폴인 이명우와 정낙송 콤비가 단연 돋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나란히 대상을 수상한 이 두 사람은 서로 각각 참가 신청을 했다가 제작진들에 의해 짝이 지어진 경우로 연습과정에서부터 친부적인 달은 외모와 익살로 주목을 끌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자신의 얼굴을 신분증



삼아 방송국 정문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경비체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출입증 한번 달지 않고 제 집 드나들듯이 방송국을 드나든다고 익살을 떨며 이명우 군 왈, “PD 선생님! 신분증 달고 들락거리는 선생님들보다 지가 낫지요?”

대학 개그 콘테스트에 나가기 위해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는 그는 전공인 레크리에이션과 개그를 접목시킨 새로운 개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다.

까만 선글라스에 스카프가 영락없이 ‘쿠웨이트 박’을 연상시키는 이명우 못지 않은 재주꾼이 “알라뷰”로 이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개그우먼 이영자보다 더 이영자다운(?) 정낙송. 보험회사 직원이며 두 아이의 엄마로 이 대회가 없었으면 평범한 가정주부였을 그는 진짜스타가 되면 까맣게 차창을 선했던 차부터 사겠다. 그래서 거리에서 “이영자 봐라! 이영자다!” 하고 따라다니는 어린이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보험 실적을 왕창 올리고 싶다는 것



인데, 글썄 진짜 스타가 되어도 보험 건수 올리러 거리를 헤맬 필요가 있을지...

이 두사람, 대회 참가 전날 시험삼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엘 들렀는데 최주봉과 이영자가 일일판매를 한다고 몰려든 팬들 덕분에 신발 잃어먹고 안경 깨지고, 몸만 겨우 빠져나왔더니 그게 사실이든 개그이든 녹화 당일 바짝 긴장해있던 우리 제작진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요즘 이들은 어느 유명 연예인이 부럽지 않다. 「꾸러기대행진」 「쇼 서울서울」 「토요일 7시 웃으면 좋아요」 「주부만세」 등 SBS-TV의 대표적인 쇼·코미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느라 바빠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생길지 모른다는 말이 조심스레 들려오는 것을 보면 「내가 진짜 스타」라고 진짜 품잡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한다.

그밖에도 「92 선발 내가 진짜 스타」를 통해

등장한 님은 꼴들 중에는 물건(?)이 많다. 주윤발과 유덕화를 국화빵 찍어놓은 것같은 정재한, 이제진 콤비도 썬 맛에(?) "사랑해요 밀키스!" 같은 CF촬영 한 건 들어올만 하고, 가수 이미자를 빼어닮은 조옥분과 장옥주 두 주부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님은 꼴들이었다. 황산성 변호사를 닮은 장금자 주부의 경우 「92 선발 내가 진짜 스타」가 방송된 후 택시를 탔더니 기사양반이 대뜸 묻는 말이 "저 황 변호사님! 진짜예요? 가짜예요?"였더니 우리 님은꼴 스타들 저러다가 진짜 스타보다 더 유명해지는 건 아닐지...

하기는 누가 아는가? 뭐 요즘 노랑진 수산시장에 가면 광어나 도다리나 가격차이가 별로 없었던데 그런 날이 연예계에도 올지... **S**

글/박재현 TV제작국 TV제작2부

사진/고동영

여기는 792,
SBS 라디오입니다



지금 생방송 중
「밤이 흐르는 곳에」

792 초대석
「트로트 대행진」DJ 이세훈

방송의 현장
특집 공개방송 「이성미 박미선의
즐거운 오후 2시」

「밤이 흐르는 곳에」 포근한 여유가 있는 마음의 쉼터

- 연출 / 신형철
- 진행 / 유영미
- 방송 / 매일 밤 12시5분~2시



깊은 밤, 밤이 흐르는 종착역은 어디일까? 그곳은 하얗게 밤을 밝히며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다. 마음의 쉼터를 찾는 고달픈 이들에게 푸근함과 여유로 다가서는 심야 음악 프로그램이 「밤이 흐르는 곳에」이다. SBS 개국 때부터 줄곧 정겨운 밤친구 역할을 해온 이 프로그램은 요즘 신형철 프로듀서와 유영미 아나운서의 등장으로 한층 더 따뜻한 젊음의 향기를 전해주고 있다.

세번째로 이 프로의 바통을 이어 받은 신형철 프로듀서는 음악에 관심은 많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는데, 요즘 음악이라는 새로운 연인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밤이 흐르는 곳에」의 선곡이 좋다는 호평도 그의 이러한 열애의 결과인 것이다.

“곡 선택을 위해 일주일에 300곡 정도를 듣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무궁무진한 매력에 실증나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의 선곡 테마는 ‘메시지 있는 노래’이다. 단순히 구색을 맞추는 것이 아닌, 듣는 이의 마음에 무언가 남길 수 있는 노래를 찾느라 그는 오늘도 음악 속에 묻혀 산다.

그와 더불어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유영미 아나운서는 이 프로와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설명한다. 10년 전 일기장을 우연히 보다가 자신의 꿈이 심야 음악 프로그램 DJ였던 것을 발견한 순간 신비로운 느낌에 사로잡혔다고. 그는 “청취자 반응이 너무나 빨라 놀랄 때가 많다”면서 수많



은 이유로 밤을 밝히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주는 방송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미모 만큼이나 낭랑하고 청아한 목소리에 물이 흐르는 듯한 말솜씨는 그가 「밤이 흐르는 곳에」의 찬생 DJ임을 말해준다. 자신 역시 10대, 20대 시절 심야 음악 프로그램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좀더 푸근하고 친근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밤이 흐르는 곳에」는 요일마다 내용이 다르고 청취자 참여 코너가 많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좀더 재미와 위로를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신형철 프로듀서의 욕심 때문이다.

우선 한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유안진 교수의 수채화같은 인생론에 이어 2부에서는 10년 이상 활

동한 중견 연예인들의 육성 인터뷰가 곁들여진다. 10여분간 응축된 인터뷰에는 누구보다도 화려하면서 동시에 외로운 그네들의 삶이 진하게 배어나온다.

화요일. 불만만 신간을 안내하는 '좋은책 없습니까'가 첫 입맛을 돋우고 나면 신형철 프로듀서가 가장 곁들여 만들고 그만큼 사랑을 받는 '영화 다이제스트'가 전파를 탄다. 「프라하의 봄」, 「미션」 등 우리 심금을 울렸던 명화를 음악으로 재구성하는 코너다. 약 20분 가량 효과음과 음악으로 원작 영화의 분위기를 살리는 이 코너는 원작 영화보다 낫다는, 약간은 낮간지럽지만 싫지 않은 찬사를 내외로부터 받아내 준비기간 동안의 고통을 한 순간에 짝 가시게 만들었

「밤이 흐르는 곳에」의 분위기가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스태프들의 소소한 우애와 화합에 많은 원인이 있다. 천사같은 연출자와 선녀같은 MC, 그리고 요정같은 작가들이 모였다며 서로를 치켜세우는 것만 봐도 좋은 프로그램 뒤엔 좋은 제작진이 있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다고 한다.

수요일은 재즈와 클래식의 밤. '가요계의 천재'로 불리는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재즈에 얽힌 비화와 함께 아직도 우리에게 낯선 재즈의 세계를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낸다. 이어 클래식이 차분하게 듣는 이를 감싸 마음을 가라앉힌다.

약간은 지치는 목요일. 청취자를 위해 마련된 꼭지가 '새노래 새얼굴'인데 싱싱한 신인들의 생기 넘치는 노래로 상큼함을 더한 뒤에 '내마음의 시'가 뒤따른다. 초청된 시인의 육성 시낭송과 함께 애청자들의 자작시가 밤을 수놓는다.

금요일. 이날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스트레스 풀고 삼시다'가 청취자들을 만난다. 이 시간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음악 치료 코너로서 한주일의 짜증과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주는 곡

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내보낸다. 앞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증상에 따라 세분할 예정이라니 더욱 기대를 갖게 된다.

토요일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소리 한마당'. 추계예술대 김정수 교수가 현대화된 우리 국악을 소개한다. "우리 가락이 이렇게도 맛깔스럽구나"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준다. 2부는 '주제가 있는 토요일'. 고향, 가을, 이별여행 등 주제마다 청취자들이 직접 참가하여 글썽씨를 맘껏 뿜내는 시간이 펼쳐진다.

한주일의 끝인 일요일엔 입 큰 개그맨 이영재가 짙막한 개그풍트에 진한 웃음을 듬뿍 담아 선보인다. 그의 너스레에 장단맞추듯 애청자의 호응 또한 대단하다는 스태프들의 귀띔이다.

'일요특선'은 이 프로그램의 숨겨진 무기이다. 일종의 스타고백인 셈인데 전영록, 신형원 등 대중의 우상이 직접 출연해 히트곡과 함께 자신의 어린시절과 인기가수가 되기까지의 에피소드 등을 진솔하게 고백, '스타'라는 이름 뒤에 숨은 뒷얘기들을 들려주고 있다.

「밤이 흐르는 곳에」는 1, 2부가 대상으로 하는 청취자 층이 각각 다르다. 1부가 최신가요와 팝송위주로 고등학생과 수험생, 넓게는 30대 직장인을 염두에 둔다면, 2부는 새벽에 운전하는 택시기사, 고통에 잠 못 이루는 환자, 근로 청소년 중심으로 선택되며 흘러간 옛가요 등 귀에 익고 편안한 가요가 많이 선택된다.

선곡을 위해 하루에 무려 50여곡 썬이나 들을 정도로 신형철 PD는 요즘 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젊은이의 영혼에 촉촉한 양식이 되고 싶은 것, 이것이 그의 연술관이다. 때문에 한국의 노래라도 '메시지가 있는 것'을 선택하려 노력하고 있다.





「밤이 흐르는 곳에」의 강점은 스테플 간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신형철 프로듀서와 유영미 아나운서, 그리고 박태희 남애리 장희숙 등 작가들은 날이면 날마다 천국 같은 기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칭 '천사 연출자'(신형철 PD는 총각이다)와 선녀같은 DJ, 그리고 죽이 척척 맞는 작가들이 모였으니 그럴 수 밖에. 마치 언니 오빠같은 그리면서도 젊음의 열정을 간직한 이들의 호흡은 청취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유영미 아나운서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엽서들을 보면 「밤이 흐르는 곳에」의 애청자들이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아끼는지 엿볼 수 있다. 색색이 종이와 그림으로 꾸며 탐나도록 예쁜 엽서에는 이 프로에 대한 애정과 바람

이 알알이 담겨 있다.

'상처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는 시구처럼 고민과 꿈이 많은 10대. 「밤이 흐르는 곳에」는 그들의 어린 영혼에 촉촉한 양식이 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젊은 세대를 좀더 이해하게 됐고 그만큼 애정과 신뢰를 갖게 됐다는 제작진은 자신들의 노력과 정성이 더많은 이들과 함께 하길 바라고 있다. 이들의 소박한 바람은 오늘도 어김없이 792KHz 서울방송 전파에 실려 애청자들을 찾아간다. 바로 오늘밤 12시 5분에 말이다. **S**

글/박성예 · 스포츠서울 편집국 기자

사진/서형식

심야 음악프로그램의 DJ가 되고 싶었던 10년 전의 꿈이 이루어진 기쁨. 10대와 20대들에게 푸근한 친구가 되어 주고 있다는 자기위안, 이런 것들로 인해 「밤이 흐르는 곳에」 진행자 유영미 아나운서의 목소리엔 운기가 점점 더해가는 것 같다.

「트로트 대행진」 DJ이세훈 타고난 감각으로 이끌어내는 트로트천국



“노년층만을 상대로 하는 방송은 하지 않아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40대에게도 휴식시간이 되도록 애쓰고 있죠. 더 나아가 20대부터 다 좋아할 수 있는 프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다부진 포부를 밝히는 사람, 그는 랍 바다풍의 트로트 가요 「먼 그대」로 인기몰이던 가수이자 DJ 이세훈이다. 사실 그는 가수보다 DJ로 훨씬 더 유명하다. 조금만 음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70년대 다운타운가에 얼마나 새로운 파격을 가져왔던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것이다.

70년대 초, 아직 외국 것이 들어오기에는 시기가 일렀던 시절, 그는 자신만의 파격적이고 독특한 연출로 전과는 너무나 다른 DJ세계를 열어보였다. DJ 부스 안에 조명을 설치하고, 그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DJ, 멜로디와 리듬 그 자체가 되어 움직이는 DJ, 악기까지 연주하며 연출해내던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신들렸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만큼 당당시 DJ 이세훈의 연출은 쇼킹했던 것이다.

73년, 무교동 원두막에서 이뤄진 그의 DJ 입문, 바로 ‘끼’의 발휘였다.

“손님으로 앉아있었는데, 그 곳 DJ가 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주인에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음성테스트 받고 기용됐죠.”

이때부터 시작된 그의 DJ경력에 「트로트 대행진」을 맡으면서 정식 방송인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 셈이다. 트로트만을 방송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 「트로트 대행진」은 우리의 삶과 가장 근근한 관계를 맺어온 트로트 가요의 흐름을 알게 해주고, 다시 듣고 싶은 흘러간 옛노래부터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최근 노래까지

지 총망라하여 그야말로 트로트 천국을 만든다. 그래서 이 프로에서는 유명한 가수의 잘 알려진 노래뿐만 아니라 새로 나온 신곡, 무명가수의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까지도 들을 수 있다. 또한 무명가수에게는 새로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DJ 시절 자신만의 색깔있는 연출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그의 재능은 「트로트 대행진」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아마 그는 방송에서도 다운타운가 DJ로서 누렸던 인기 이상의 인기를 꿈꾸는지도 모른다.

이런 그에게도 방송인으로서의 변신은 꽤 힘든 것이었다. 시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다운타운가의 DJ와는 달리, 방송은 더 많은 범위의 청취자를 대상으로 주어진 시간과 형식에 맞춰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은 개인 이세훈보다는 공인 이세훈을 더 강조한다. 그래서 요즘 때아닌 강박관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의 압박감도 거기에 한몫 한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려니 개인적인 약속을 거의 못하는 데다가, 한번 흘러나가면 그것으로 끝인지라 특히 말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그의 걱정과는 달리 이 프로를 들어본 사람들은 그의 재치있는 애드립, 신나고 쾌활한 진행, 서영춘이나 이덕화의 성대묘사, 흥에 겨워 따라 부르는 노래소리에 웃음짓게 되고, 그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함께 일하는 이진규 프로듀서의 “멜로디와 리듬 감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이 말해주듯 이 그의 진행은 타고난 감각과 노력이 밀바탕된 것이다.

이런 감각은 그의 가수로서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본격적인 가수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부르는 노래 역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떤 한 장르에



집착하지 않고 전형적인 스탠더드 가수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는 여러 장르를 소화해내고, 그것을 시대흐름과 자신의 나이에 걸맞게 부르려고 노력한다.

「트로트 대행진」이 전문적으로 트로트만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실로 처음인 때문에 이 프로에 대한 못사람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청취자뿐만 아니라 같은 방송인들 사이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향후를 지켜보는 날카로운 눈들이 있다. 특히 SBS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特化) 음악 프로그램 신설에 의한 대중성 획득 전략이 「트로트 대행진」에서도 성공할 것인가 예의 주시하는 것이다.

이런 묘한 흥미와 관심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세훈이다. 잘 짜여진 재미있는 구성이나 모든 스태프들의 노력도 척척 손발맞는 진행이 없다면 무슨 빛이 나겠는가. 음악 DJ로서 축적된 끼와 타고난 음악감각의 소유자로서 그가 가진 실력과 경험은 「트로트 대행진」의 인기와 장수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이세훈은 트로트 가요의 생명력과 회귀성을 믿고 있다. 이제 그는 20대부터 좋아할 수 있는 트로트를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S

글/정유경·자유기고가

사진/서형식



특집 공개 방송 「이성미 박미선의 신나는 오후 2시」 환상의 콤비와 함께 벌인 톡톡 튀는 웃음잔치

지난 9월 20일, SBS 라디오의 새 프로그램 「이성미 박미선의 신나는 오후 2시」는 특집 공개 방송을 마련했다. 점점 높아가는 가을 하늘 아래 용인 자연농원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 이번 공개 방송은 첫번째 행사인 만큼 제작에 애쓴 이들이나 참가한 이들에게 기대 반 설렘 반의 시간이었다.

야외에서 치러지는 행사는 대부분 시작 시간을 어기기 일쑤인데 건주어 약속 시간인 오후 5시에 정확히 맞추어 이날의 공개 방송은 막을 열었다.



이윽고 환상의 콤비로 이름을 드날리고 있는 진행자 이성미와 박미선이 등장했다.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궁합이 잘맞는 단짝이 되어버린 이들의 말쑥씨는 관객들이 폭소탄을 터뜨리기에 충분했다. 이미 SBS 텔레비전 「코미디 전망대」의 여론 조사 시간에서 첫 호응을 맞춘 이들 특유의 '뽕뽕 뒸는' 설진(舌戰)은 어찌나 속도가 빠른지 귀를 뚫고 세우고 듣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었다.

김범룡이 첫번째 초대손님. 아외

공개 방송에 썩 어울리는 청바지 차림으로 자리한 사람들에게 부담없이 다가왔다. 요즘 「눈감아봐도 II」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박준희의 깜찍한 춤도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화요일마다 선보이는 '텔레폰렘' 시간을 맡고 있는 박성민이 김범룡과 박준희에게 즉석에서 랩을 부탁해 두 사람은 자신의 노래를 랩으로 선사했다.

'국내 최고의 듀엣'. 그들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한 이성미와 박미선은 「마포 종점」을 불러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특히 눈에 띈 것은 끝까지 자리를 빛내준 어린 관객들의 높은 호응이었다. 대중 스타에 약한 청소년들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고.

「고개숙인 여자」와 「하이에나」로 노래 스타일은 물론 분위기까지 화 바뀐 정수라는 그 자리에서 신랑감을 물색해봤지만 실제로 돌아가 참석한 종객들을 안타깝게 했다. 가족 모두가 준비해온 돛자리에 앉아 박수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 흥겨운 음악이 나오자 벌떡 일어나 춤추는 꼬마들의 귀여운 몸짓이 이번 공개 방송

요즘 오후의 라디오청취자들을 꼭 잡고 있는 '이성미 박미선의 신나는 오후 2시'가 첫번째 공개방송을 가졌다.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두 사회자는 스튜디오를 벗어나 야외 무대에 서니 마치 고기가 물물 만난 양 설새없는 알싸함으로 관객을 즐겁게 했다.



을 정겹고 넉넉하게 만든다.

이날 가장 인기있었던 코너는 '주부들의 노래 실력 뽐내기'. 가수들의 노래만으로 채워짐으로써 보고 듣기만 하는 공개방송에서 벗어나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만들자는 제작팀의



자연농원에 놀러온 사람들이 모두 이 무대 주위로 몰려들지 않았나 싶을 만큼 많은 관객이 운집해 첫 공개방송에 가슴 찡뚱 제작진을 기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무대에 한번 서보겠다고 나서는 등, 모두가 '함께 만드는' 즐거움까지 누린 날이었다.

속셈이 딱 맞아떨어진 자리였다. 최진희의 노래에 자신있는 주부 세 명을 골랐는데 어찌나 실력들이 좋은지 우열을 가리기 곤란할 지경이었다. 이쯤 한창 호응을 얻고 있는 노래방 문화의 덕택이 아닐까 싶다.

오늘날의 관객들은 보는 데서 만족하려 하지 않는다. 직접 무대에 올라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리낌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이들에게 열띤 박수는 당연한 선물이기도 하다. 이날도 역시 자신이 무대에 선 것처럼 사람들은 좋아라 손뼉쳤다.

주부들의 노래 자랑 말고도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있는데 '영웅 퀴즈'가 바로 그것이다. 평소에는 월·수·금요일에만 청취자들이 전화화를 걸어 문제를 맞추는 시간으로 마련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시간의 특징이라면 "정답"이나 "스톱" 등을 외치는 어느 퀴즈와는 달리 좋아하는 진행자, 예를 들면 이성미를 좋아하면 '성미' 박미선을 좋아하면 '미선'이라고 외



친 뒤 정답을 맞추는 것. 이날 참석한 남녀 출연자의 대결은 3대 0으로 여자가 완승을 거두었다. '영둥 퀴즈'라 해서 문제가 반드시 엉뚱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다음 역의 호선을 더 하면 몇일까요? —왕십리, 수유리, 미아리, 청량리—" 같은 문제는 재치와 순발력을 요하기 때문이다.

해가 지면서 열기는 더해갔는데 청소년들의 우상 가운데 하나인 김민중은 소녀팬의 포옹 세례를 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또다른 만남을 위해」를 트로트로 불러 다양한 음악 폭을 선보였다. 그와 박미선이 꾸민 즉석 연기도 웃음을 터지게 만들었다. 이날 공개 방송에서는 그들 사랑과 평화, 푸른 밤이 음악을 말아 시종일관 좋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이성미 박미선의 신나는 오후 2



아이 공개방송의 매력은 나들이 나온 관객들이 초대손님과 함께 어우러져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런 신나는 기회를 앞으로 좀더 자주 갖겠다는 것이 김상일 프로듀서(아래사진 오른쪽)의 생각이다.



시」가 청취자들과 공식적인 첫 대면을 가졌던 이번 행사는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청취자들과 마주할지 기대가 크다. 아울러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여성 더블 DJ 프로그램이 청취자들의 폭넓은 사랑으로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S**

글/박경희·자유기고가

사진/김상연



SBS 프로덕션은 지금

시청자를 위한 SBS-TV 프로그램 복제 판매 개시 비디오로 만나는 좋은 방송 좋은 기억

SBS 프로덕션은 대시청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SBS-TV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의 판매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마스터테이프 제작에 돌입하여 「아마존」,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다큐멘터리와 시청자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여러 작품들의 자료화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판매방법은 시청자주문에 의한 통신판매로, 먼저 시청자들이 전화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주문한 후 프로덕션에서 개설한 국민, 외환은행 등 8개 시중은행에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정한 날짜에 우편배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위해 프로그램 판매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시청자들의 구매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프로그램 판매상담 전화: 784-1343~4)

프로그램 판매가격은 VHS기준 60분 물이 2만4000원이며, 이것은 현재 프로그램 판매를 하고있는 기존 방송사 프로덕션들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앞으로 SBS 프로덕션에서는 프로그램 복제판매 이외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관권판매 사업을 병행할 것이며, 사업영역도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외 방송사 등을 상대로 한 기관판매도 추진할 예정이다. 5



SBS-TV 프로그램 판매가격

구분	30분	60분	90분	120분
VHS	17,000원	24,000원	31,000원	35,000원



큐 스튜디오



「주부만세」 주부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워지는 시간

- 연출 / 신정관
- 진행 / 김병조 · 구지운
- 방송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5분~8시

투명한 초가을 햇살이 속살거리고 있었다. 밤만 되면 각국의 젊은이들이 들끓는 이태원. 그러나 태양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시간의 이태원은 나뭇잎 끝에 물들기 시작한 단풍의 색조처럼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조금은 지쳐보이는 외국 여행객들 틈을 헤치며 달은 곳이 비바백화점. 마침 정기 휴일, 월요일이었다. 그런데 유독 정기휴일이 봄빈다. 이유는 바로 「주부만세」 녹화에 있다.

옷장 깊숙이 넣어 두었던 가을 옷을 꺼내며, 그리고 살갗을 스치는 서늘하고 까실까실한 옷의 감촉에서 여자는 가을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나 챗바퀴처럼 도는 일상엔 좀처럼 쉽표



신정관 프로듀서의 변은 의외로 단순 명쾌했다. 어쩌면 이 말은 「주부만세」가 일과성 오락 수준에 머문다는 의미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이것은 그만큼 주 시청자인 주부들에게 성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욕심이 소박한 만큼 요란하지도 않지만 주부들의 꾸준한 사랑으로 의기소침한 적도 없었던 것이다. 모델 프로그가 전혀 없었던 것치고는 성공적인 진수식이었고 그동안의 향해 또한 순조로웠다는 평가에 인색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분기별 이벤트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꾸러기 대행진」에서 「주부만세」로 자리를 옮긴 신정관 프로듀서가 「주부만세」에 새로운 뜻을 하나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PD가 바뀌고 남자 MC가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굳굳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MC가 구지윤이다.

“모험이었죠. 얼굴이 예쁘길 하나, 그렇다고 나이가 적기를 하나, 이주일 씨는 처음에 구지윤이 도대체 누구냐며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노래 교실에도 몰래 와봤다더라고요.”

트인 여자, 구지윤은 대뜸 이렇게 말하며 예의 함박 웃음으로 말문을 연다. 그러나 이 프로를 보는 이들은 느낄 것이다. 이 프로의 기획이 구지윤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거라는 걸.

“이남기 부장님이 전에 「자니윤쇼」를 제작하실 때였어요. 그때 제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어요. 다들 내노

한번 찍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

10층 아트홀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주부들의 표정에는 가벼운 흥분이 감돌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정성껏 화장을 했을 그녀들의 아침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타이틀에서부터 당당히 주부들을 대세우고 주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부들만을 위한 프로는 현재 「주부만세」뿐이잖아요. SBS가 주부들에게 점수를 따고 있는 프로라고 생각해요.”

비바 아트홀에 들어서는 주부들의 말이다.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는 생각으로 제작합니다.”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다.” 프로그램의 제작의도치고는 너무도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이말속엔 그만큼 탄탄한 자신감이 숨어있다. 굳이 미사여구로 치장하며 시청자에게 잘보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될만큼 「주부만세」는 주부들과 맞닿아있는 것이다.



주부들이 직접 출연하는 코너가 많은 만큼 제작진이 힘든 부분도 많을 듯했는데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전혀 뜻밖이다. 오히려 참가자가 넘쳐 고민이라는 것이 제작진의 즐거운 비명이다. 그만큼 주부들의 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아프고 가려운 부분을 찾아 해안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 아닐까.

라 하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프로에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게스트로 나간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청석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 노래 회 회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거든요. 그때 이남기 부장님이 그러더라구요. 언제 기회가 되면 방송을 같이 한번 해보자구요. 그게 결실을 맺은 거지요.”

방송 늦깎이이지만 주부들의 열띤 반응에 고무된 구지윤은 자신감에 차 있다. 예쁘지도 않고 나이도 많다고 겸손을 부리지만 구지윤은 멋있는 여자다. 숨쉴까 그렇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의 존재가 가지는 미덕이 또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주저앉지 않고 중년의 나이에 꽃피운 그의 이력이 수많은 주부들에게 알게 모르게 불어 넣어준 자신감이 바로 그것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안하게 출발

했던 이주일이 급기야 출연을 못하게 되자 그 바통을 이어받은 남자 MC가 김병조이다. 그가 고정 MC가 되기 전에 구지윤은 남자 MC를 계속 알아치우는, 여자 MC치고는 행복한 곤경에 처해야 했다. 그러다가 김병조를 만나면서 「주부만세」는 명실공히 안정기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고집스러운 만치 줄곧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소재로 개그를 해왔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치는 이미지를 가진 그의 캐스팅은 「주부만세」에는 더할 수 없이 적절했다.

“이 프로를 맡고 나니까 집에서 반찬이 달라지더라구요. 그리고 어떤 프로를 할 때보다 인사를 많이 받아요. 동네 이주머니, 아내 친구들이 이런 프로를 만들어줘서 고맙대요. 워낙 구지윤 씨가 그동안 편하게 잘 해오셔서 따로 호환맞출 필요가 없어요.”

“아니에요, 바쁘신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는 마음이 든든해서 걱정이 없어요. 저야 뭐 아냐요. 우리는 영호남 콤비 MC예요. 모범 더블 MC죠.”

두 사람은 무대 뒤에서도 호흡이 척척 맞는지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방정석이 꼭 자자 후끈 열기가 달아온다. 김정택 악단장이 단원들을 독려하며 연습을 하는 소리가 무대 뒤까지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쯤이면 조연출 박재연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도 보인다.

“각본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방청객 중에서 그날 출연할 주부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저 마음 편하게 하시라는 주문이 고작입니다.”

그랬다. 그날은 호신술을 배우는 코너가 있었다. 즉석에서 출연하고 싶은 주부 세 사람이 지원을 했고 그들이 무대 뒤로 왔다. 쑥스러워하면서도 스텐트맨들을 따라 간단한 동작을 해보았다. 한 주부가 생각처럼 잘 안되는지 “안되겠어요”하며 뒤로 빠지자 김병조가 나섰다.

“지금 잘하셨는데 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할 때는 더 잘하더라. 걱정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SBS가 추석특집으로 마련한 「내가 진짜 스타」에서 뽑힌 가짜 이영자와 가짜 최주봉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영자의 흉내는 물론 두리몽실한 몸매까지 그대로 빼다박은 정낙송은 결혼 6년째의 주부였다. 그리



「주부만세」는 주부들이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밖 씻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너무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약간 주책스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어찌라. 주부들의 건강한 웃음이야말로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밑거름인 것을.

고 가수 이미지를 빼어담은 주부 조옥분, 장옥주 두 사람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들 덕에 필자는 콘터 대본에 써있는 게스트 조영남도 가짜로 오해하는 실수를 빚었다.

조연출 박재연이 아마추어 스타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는데 김병조가 다가와 그들의 숨은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저는 식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수 이미지 써와 닮았다고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돼요.”

“그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매일 이미지 써 디너쇼를 보는 거네요.”

김병조가 넉살을 부리자 프로를 닮은 아마추어들은 긴장이 술술 풀리는지 한술 더 뜬다.

“네. 디너쇼에 모닝쇼까지 보는 거예요.”

카메라가 군데군데 배치되고 주부들의 생생한 표정을 담은 카메라도



「주부만세」의
녹화장인
비바아트홀은 매회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박박 들어찬다.
아마도
타이틀에서부터
당당하게 주부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또한 주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



방청석에 배치됐다. 김정택 단장과
콘티를 보며 배경 음악에 대한 이야
기도 끝났다. 신청관 프로듀서가 조
정실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방청석 표정을 따로 찍지
않아요. 웃으라고 안해도 잘 웃고 호
응을 잘 해주시는데 그럴 필요가 있
겠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웃으
세요. 언제 찍힐지 모르니까요.”

구지윤이 큐사인을 기다리며 농담
을 던진다. 정말 그랬다. 방청석에서
는 전혀 꾸미지 않은 싱싱한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녹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무대 앞에서 진행을 보
는 조연출이 일어서서 웃으라거나 박
수를 치라는 주문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글썄 우리
마누라가, 아, 가을인데 애인이라도
있으면 여행이나 한번 다녀왔으면 좋
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봉
을 쳤죠. 아,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그러면 당신이
애인이 되주시면 돼잖아. 아, 이러잖
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뽀뽀를 해줬죠.”

김병조의 오프닝 멘트에 방청석에
서는 우와, 하는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렇게 주부들의 기를
세워주는 것으로 녹화가 시작됐다.

첫 손님은 가수 조영남. 김병조의
호명에는 나타나지 않던 그가 구지윤
이 낭랑한 목소리로 방청석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낸다. 주부들의 기가 살
아나는 두번째 순간. 김병조가 히트
곡 하나 없이 인기를 유지하는 가수
라고 설명했지만 조영남의 노래는 주
부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의
시원시원한 목소리에 주부들은 십년
묵은 제증이 확 뚫리는 표정으로 노
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두번째 코너는 주부선발, 스텐트
맨이라고 소개받아 나온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작은 체구의 여자였다. 그
들의 간단한 시범이 있는 후, 주부들
이 직접 참여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제 그동안 쌓인 한을 마음껏 풀어보

시기 바랍니다.”

김병조가 낚살을 부리고 세 사람의 주부들이 무대에 올라왔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주부들은 주저함이 없었다.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참가자가 넘치는 것이 고민이라고 한다. 일단 녹화장에 오면 나라고 못할 소냐 하는 자신감에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주부가 없다는 설명이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맛있고 못하면 못해서 애교스러운 게 주부들이라는 김병조의 말마따나 자기의 기합소리에 자기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주부들을 보며 방청석에서는 자지러질 듯 폭소가 터진다.

구지윤과 김병조의 활약은 녹화 사인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계속된다. 잠시 준비관계로 휴식시간이 되어도 두 사람은 무대를 지키며 주부들을 지루하지 않게 해준다.

“조명이 얼마나 뜨거운지 화장이 다 지워졌네”하며 구지윤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웃자 김병조가 트위스트를 춘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땀이 나서 옷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바랍 좀 들어가라고.”

카메라가 쉬고 있어도 주부들의 웃음은 쉬지 않는다. 막간의 웃음은 MC와 방청석 간의 거리감을 없애주며 정작 녹화 사인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런 웃음을 끌어내는 데 한몫을 한다.

주부들이 한껏 부푼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마지막 코너가 ‘여보, 저예요’이다.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

랑하며 그것을 지켜보며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 주부로서 한마음이 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코너다. 역시 각본이란 없다. 대신 대여섯명이 참여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부부애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팀이 편집에서 살아남는 것일 뿐이다.

집에서 일만 하던 주부들이 뭘 할 수 있겠나던 우려는 이제 깨어졌다. 방청석에서 만나는 그들의 꾸밈없는



중년의 나이에 TV 사회자로 화려하게 태어난 구지윤의 존재가 주부들에게 ‘신선한 희망’을 준다면 전통적 가치관을 소재로 한 코미디를 즐겨 보여주는 김병조의 동감은 친근하고 믿음직한 ‘가정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잘맞는 콤비 MC 한 쌍이 또 태어난 셈이다.

웃음은 「주부만세」 시청자들에게 가정의 행복과 평화는 주부의 건강한 웃음에서 비롯된다는, 작지만 소중한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주부만세」는 이미 주부만의 프로가 아닐지도 모른다. S

글/이성아 · 소설가

사진/고도영



「독점! 연예정보」

젊은 감각, 빠른 정보, 정통한 소식

- 진행 / 권오규 · 윤정
- 연출 / 장상일
- 방송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5분~8시

퇴근길 지하철 안, 발 디딜 틈 없는 뻥뻥한 공간 안에서도 사람들의 손에는 대개 스포츠 신문이 구겨진 채 들려 있다. 그런 류의 신문들을 사람들이 특별히 선호한다거나 또 매일매일의 스포츠 소식이 궁금해서는 결코 아닐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만화나 연예 가십을 즐긴다고들 말한다.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하도 짜증스럽다 보니 “요즘 정치 기사 읽는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라고 자못 냉소적인 비웃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질타하는 일부 지식자들의 비판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이는 이 주장은, 그러한 작금의 정치 사회적 이슈가 오히려 연예가 십보다도 못하다는, 나름의 이유있는 항의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전보다 연예 소식에 훨씬 민감해져 있다. 그만큼 연예 정보에 열려 있다. 열려있다는 말은 '적극성'을 포함하는 의미의 말이다. 단순 정보, 이를테면 누가 누구와 스캔들을 일으켰는지, 어떤 인기 여배우의 고양이 가 죽었는지, 미남 탤런트가 씻기 얼마짜리의 집으로 이사를 갔는지 따위의 가십성 정보보다는 좀더 '정통한' 연예 정보를 취득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즉 자신의 생활 속에 차지하는 대중문화의 비중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즐길 것, 혹은 위안받을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살이에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마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돌아켜 보면 우리에게 연예 소식이 올바르게 전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의문이다. 그저 '따따라'들의 얘기,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별천지의 얘기로만 치부되기가 일쑤였다. 또 퇴근길의 시민들 절대 다수에게 읽히는 스포츠 신문들 역시 '인기 여배우의 잠자리 버릇이나 잠옷 색깔' 따위의 가벼운 얘기만을 하기 일쑤이다.

연예 정보를 한 차원 높게 대중문화의 소식으로 격상시킨 TV 프로그램 있다. SBS-TV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방송하는 「독점! 연예정보」를 한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은 모두 그 정보의 풍성함을 칭찬한다. 국내 영화가, 방송가, 가요계 등을 비롯, 최신의 해외연예계 소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딱히 '독점'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라도 이 프로그램 한 편이면 한 주

두 진행자 권오규와 윤정은 세련된 용모와 매끄러운 말솜씨, 대중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독점! 연예정보」에 격조를 더해준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정상급인 두사람인지라 그들이 빚어내는 하모니는 특히 아름답다.



일의 연에게 소식에 대해서는 '빠삭 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시청률이 높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최근 들어 SBS-TV의 프로들 중 '방송3국 시대'를 주도하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독점! 연예정보」만큼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드물다. 실제로 이 프로가 방송된 후 타방송사에서도 유사 프로를 긴급 신설, 이에 대응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 어떤 유사 프로라 할 지라도 「독점! 연예정보」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해외연에게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헐리우드 통신' 등을 비롯, 외국 영화나 팝 음악계 등 해외연에게 소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특종을 따내는 경우가 많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는 정상일 프로듀서는 기획 초기부터 해외 분야에 대해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정보들도 어느 정도 유사하긴 하지만, 특히 연예 정보에 대해서는 수용층의 인식 정도가 그야말로 폭넓다는



것, 즉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에 서울방송 개국과 동시에 이 프로가 시작될 때 어떻게 하면 바깥의 많은 화제거리들을 제때 제때 전달할 수 있을가를 고민했죠. 그때까지 보면 대개 해외 소식에 있어서는 한 템포씩 느렸어요. 기동력이 없었죠. 특히 그림이 안됐어요. 소식이야 만들어 낼 수 있어도 그에 맞는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았죠. 때문에 우리는 미국 ABC-TV가 방송하는 「엔터테인먼트 투나잇」과 특약을 맺고 현장의 얘기를 바로 전달할 것, 해외 통신원을 적극 활용할 것, 필요하면 해외 ENG 취재를 나갈 것 등을 기본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연에게 만큼 시류와 유행을 타는 분야도 없다. 또 이 분야만큼 모방을 통한 창조가 자유자재로 구사되는 곳도 별반 없다. 미국에서 흑인 꼬마 랩

그 어떤 유사 프로그램도 「독점! 연예정보」의 수준과 비교한다면 할랄미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방대한 정보수집 능력에 기동성 있는 취재력, 줄줄이 특종을 낚고 있는 해외연에게 소식 등 놓칠 것이 하나도 없는 연예 프로그램은 「독점! 연예정보」뿐인 까닭이다.





듀오인 크리스 크로스가 폭발적 인기를 얻자 국내에서도 당장 서태지와 아이들의 열풍이 불고 있다. 국내 팝 음악의 인기가 미국의 팝 인기 차트 전문잡지인 빌보드 지의 순위와 별반 차이가 없음도 이를 증명한다. 그것이 비록 자랑거리에 속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나 기호가 그만큼 세계적 수준이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독점! 연예정보」의 특색있는 코너 중에는 이렇게 해외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제작 코너 중에는 '비디오 여행'이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김용태, 박찬욱, 강한섭 등 젊은 영화 감독과 평론가들을 과감하게 기용, 수준있는 비디오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코너를 통해 페데리코 펠리니, 프랑소와 트뤼프 등 영화사에 길이 남을 감독의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TV 시청자에게는 놓치

기 아까운 기회였을 것이 틀림없다. 또 '스타? 스타!' 코너의 경우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인기있는 코너로 손꼽히고 있다.

「독점! 연예정보」가 해외연예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프로의 수용층은 특히 젊은 층들이 많다. '특히 젊다'는 것은 10대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 프로그램이 주말 시간대에 방송되지 않고 금요일 저녁 7시대에 편성돼 있는 것도 30대 이상의 직장 생활을 하는 장년층보다는 10대와 20대를 적극적인 시청자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일 PD는 "연예 정보 관련 프로그램들은 그것이 갖는 재미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의 개발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독점! 연예정보」를 보면 그

이 프로그램을 한번이라도 접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 내용의 풍성함에 놀라게 된다. 그야말로 '독점!'이란 표현이 딱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를 위해 제작진이 들이는 공력은 얼마 가늠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양일 것이다.

사람들은 연예계에
관한 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대중예술을 평가하고
철천하는 데는
인색하다. 거기엔
신문이나 방송같은
대중매체의 잘못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연예계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발전을 위한 자각제가
되고 있는 「독점!
연예정보」의
존재의의는 좀더
분명해진다.

누구보다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신의 뮤직 비디오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이렇게 제작진들 나
름의 노력과 정성의 결과인 것이다.

「독점! 연예정보」가 연예인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프로인 만큼 그 제
작을 쇼프로나 오락프로를 만드는 부
서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은 SBS-TV의 생활정보부라는 곳
에서 만든다. 연예 '뒷소식'보다는 연
예 '정보' 전달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류의
정보 프로는 대중문화에 대한 애정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프로 제작진들에게는 연예인뿐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이 요구되고 또 객관적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가수의 얘기는 이
런 면에서 유익하고, 저 탤런트의 얘
기는 이래서 재미있을 것 등을 정확
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야 한다. 또 단순 정보, 소문 등에 근
거한 가벼운 얘기 등 옥석을 구별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

「독점! 연예정보」에 대해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 프로의 남성 진행자 권오규이다.
그를 막 알게 된 사람은, 특히 그가
연출자 정상일과 함께 있을 때 정
PD가 그를 보고 "권 선배"라 호칭
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한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곧 마흔에 가깝다는 얘
기를 들으면 그야말로 한번 더 놀라
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권 선배, 아니 권오규는 인생을 젊
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톱 랭킹에 드



는 사람인데 그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다니는 호기심 강한 10대 미소년의 탐구력, '이게 길이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20대 젊은이의 추진력, 눈앞에 벌어진 현상만을 좇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분석, 앞의 일을 추론해 가는 30대의 논리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진행자로 머물지 않는다. 그의 직업명이 '뮤직 큐레이터', 또는 '팝 칼럼니스트'인 만큼 아이템 선정이나 이의 구성에 있어 그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입된다. 또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프로덕션 등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 등이 지금 가장 적절하고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 10여년 전 그는 당시 TBC 라디오 심야음악프로의 PD 및 DJ일을 그만두고 도미, 유학생활과 함께 팝 음악 전문가 등으로 활동해 왔다. 그동안 우리가 라디오의 팝 프로그램을 통해 종종 들을 수 있었던 "뉴욕에서 권오규입니다"를 기억하는 이도 많을 것이다. TBC 활동 당시, TBC처럼 지금은 '없어진' 방송사인 동아방송에서 같은 시간대에 방송됐던 경쟁 음악프로의 연출자이던 PD와는 SBS 라디오 프로그램 「가요 레이다」에서 만나 한 사람은 진행자로, 또 한 사람은 PD로 콤비를 이루기도 했으니 세상사는 알다 가도 모를 일이다.

「독점! 연예정보」를 통해 권오규와 함께 발군의 진행 능력을 보이고 있는 여성 MC는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CF를 통해 낯이 익었던 모델 윤

정, 시원시원하게 생긴 그의 서구적 미모 못지않게 진행 솜씨 또한 자연스럽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프로 진행에 보이는 열성이 남다르다는 것이 제작진들의 귀뜸이다.

사람들은 연예인들의 뒷얘기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그들을 평가하고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다. "판파라!"라고 말하면 그뿐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연예가 소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전달한 데 따른 결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독점! 연예정보」는 일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의 현주소를 알려줄과 동시에 그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되어주기에 별로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안에 실려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야말로 「독점! 연예정보」의 커다란 장점이 아닐 수 없다. **S**

연예계만큼 시류와 유행에 민감한 곳은 별로 없으리라. 그런만큼 매회 기획과 취재에 순발력이 뒤따라야 되는 프로그램인지라 정상일 프로듀서의 마음은 한가할 때가 별로 없다.

글/김은영·자유기고가

사진/고도영

방송이 말아야 할 따끔한 어른 노릇

이연숙 · 주한 미국공보원 상임고문



이연숙 · 1934년생,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여고에서 교편 생활을 했다. 일찍이 TBC와 MBC, 그리고 KBS의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로도 활동한 방송인이기도 하다. 현재 SBS 시청자위원을 비롯,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국제론다 서울클럽 회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쩌다보니 우리는 날마다 풍요로운 말잔치 속에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모순된 생활에 익숙해졌다. 아파트 구조 변경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원상 복구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믿는 사람이 흔치 않다. 실제로 넓은 평수의 아파트촌을 지나다 보면 어떤 집이 원칙이나 규정을 어기고 개조했는지를 걸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구조 변경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처벌을 받아 원상 복구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가정의례 준칙이다 허례허식 폐지다 하여 엄격히 다스린다는 말은 항상 듣고 있지만 온갖 대형 행사장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호화로운 화환이 준비해서 법을 지키려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허전하게 한다. 얼마전 일반 운전자들은 열심히 안전벨트를 매고 다니는데 정작 단속을 맡은 교통 경찰관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다니는 현상이 방송됐다.

세계 제일이라는 우리 나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소한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른들이 어린이의 손목을 잡고 차도 한가운데에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서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달리는 차 안에서 차창을 열고 침을 뱉고, 담배꽂이를 버리고, 게다가 대낮에 차를 아무 곳이나 대놓고 방뇨하는 것까지 볼 수 있으니 우울한 일이다.

얼마전에 연기군수가 양심선언을 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공권력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폭탄선언' 앞에서 유권자들은 놀라기보다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식의, 미심쩍게 생각했던 짐작이 맞아떨어졌을 뿐이라는 씁쓸한 반응만을 보였다.

명절 때마다 선물 안보내고 안받기 운동이 사회 지도계층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수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며, 혹은 공공연하게 선물을 주고 받고 있다. 몇년전 한창 괴외공부를 단속할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밀과 외를 했고, 그 사실을 숨기느라 학생과 부모, 선생님 모두 입을 맞추어 거짓말을 했다.

본래 사람의 가슴에는 양심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양심은 모가 반듯한 네모퉁이이고 양심이 들어있는 집도 꼭 끼는 네모라고 한다.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이나 생각을 하면 양심이 흔들리고 그때마다 모진 사각이 양심의 집을 건드려서 아프게 마련이란단다. 그런데 자주 양심에 가책을 받다보면 모가 닳아서 둥글어지고 집도 아예 원형이 되어서 바람개비처럼 빙빙 돌아도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된다. 우리의 양심과 양심집은 정말로 둥글어진 것일까?

사회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결정에 의지하려는 것도 묘책이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 스스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주인공노릇을 제대로 하는 데 있다.

먼저 바른자세를 가지고 올바르게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자.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된 일과 잘못된 일, 잘하는 방법과 잘못하는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나부터 행동에 옮기자.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신호를 지키면서 걷고, 길에서 침뱉고 담배꽂초를 버리지 말자. 사소한 일이라도 거짓을 말하지 말며 옳은 일에는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고, 그릇된 일에는 “아니오”라고 딱부러지게 말하자. 양심의 모를 반듯하게 세워서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아프게 느끼자.

예전에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를 일깨워주고 가르치는 어른이 계셨다. 때로는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며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는 스승이 곁에 있었다. 동네 어른이기도 했고 집안 어른이기도 했던 인생의 참다운 스승들로부터 우리는 심약한 인간이지만 반복 연습을 통해 인간다움을 익혀나갔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어른의 역할을 미약하게 만들었다. 우리 삶의 틀을 잡아주던 어른의 타이름과 되풀이되는 잔소리의 역할에 공백이 생긴 채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 핵가족화와 이기주의, 입시제도와 개성을 차압당한 고교시절의 문화실조, 금전만능주의와 출세지상주의, 기계화에 따른 속도화 등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서열이 형편없이 뒤로 처져 어른은 뜻이 있어도 젊은이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고 일깨워줘도 받아들일 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공백이 생긴 채로 남아있는 옛 어른들의 몫을 이제는 방송이 맡아주었으면 한다. 어느 곳에서나 젊은이들의 잘못을 타이를 수 있는 분위기를 방송이 만들어줘야 한다. 이름까지 버젓이 붙어있는 호화판 화환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방송이 계속해줘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해서 중형차를 소형차로 줄여 타는 실례를 보여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거짓말하는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행태를 되풀이해서 보여주어 큰일한다고 큰소리치는 어른들이 작은 일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인 하나하나가 작은 일부터 제대로 해내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하며, 크고 작은 모든 거짓말과 남의 권리를 훔치는 일을 멈추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일, 그 일을 가장 훌륭하게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매체가 바로 방송이다. S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DAT; Digital Audio Tape) 오디오의 세대교체 이룰 꿈의 녹음기

이현원 · 기술국 TV기술1부 뉴스센터

현재의 테이프 리코더보다 월등히 향상된 기능 및 성능을 갖고 있고 활용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훨씬 작은 크기임에도 디지털 카피로 원음에 가까운 음의 재현이라는 놀라운 위력을 갖춘 꿈의 녹음기가 바로 DAT이다. DAT는 'Digital Audio Tape'의 약자로서 특수 카세트 테이프와 디지털 사운드의 녹음, 재생이 가능한 테크로 구성된 새로운 방식의 오디오, 녹음, 재생 시스템이다.

디지털 녹음의 시초는 지난 1965년 NHK 기술 연구소에서 PCM(Pulse Code Modulation) 녹음이라는 방식으로 개발에 손을 대기 시작한 때로부터 비롯된다. 제1세대 디지털 오디오인 CD의 위력이 아날로그 LP의 자리를 서서히 대체해 나가는 가운데 다시 제2세대 디지털 오디오인 DAT가 보다 완전한 오디오의 디지털화를 표방하며 1987년 3월에 완성된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시비에 몰려 - DAT 레코드의 음질열화가 전혀 없는 완벽한 디지털 복제기능에서 유발된, 미국의 음반업계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와 일본 오디오업체와의 이해관계 대립 - 그 높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상



정재석 그림

품화에 있어서는 확실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발매가 미루어지고 있던 DAT는 1989년 6월 아테네에서 Solo Copy 허용에 대한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협의-디지털 복제를 1회 한도로 허용한다는 Solo Copy 원칙에 대한 DAT 관련 협의의 내용-가 있은 후 이제 CD에 이은 디지털 오디오의 또 다른 주역으로 본격 가세중이다. CD가 아날로그 디스크를 디지털화했다면 DAT는 아날로그 테이프를 디지털화시킨 소산이다.

CD에 이어 최고의 오디오로 평가되는 DAT는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오디오가 갖고 있던 잡음과 음의 찌그러짐 현상을 없애기 위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해 깨끗하고 정확한 음을 재생할 수 있으며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어서 거의 생음역 범위까지 확장한다.

DAT의 주요 기능적인 특성으로는 종전 오디오 카세트보다 작은 카세트를 사용하면서도 표준 모드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녹음 재생이 가능하며 (최대 4시간까지 녹음 재생이 가능하다), 작고 다루기 편한 규모는 휴대용으로서의 활용과 더 작은 기기로서의 활용은 물론 실황 녹음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빠르고(보통 오디오 테이프 보다 200~400배 빠름) 정확한 트랙 검색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테이프 자체가 매우 느린 속도(기존 오디오 테이프 속도의 6분의 1)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필요한 테이프 길이는 기존의 것의 3분의 1 정도면 된다. 따라서 테이프 전체 길이를 한쪽으로 되감는 데에도 3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장래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표준 규격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브 코드(Sub Code)를 이용한 기능 확장을 들 수 있다. DAT 리코더(Recorder)에는 통상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시그널이 리코딩된다.

첫째는 PCM에 의해 디지털 코드화된 주 신호이며(음악이나 리포터 내용) 둘째는 서브 코드(Sub Code) 신호다. 음악신호와 별개인 신호는 재생 모드에서 DAT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음악의 선택을 위해 내재시킨 여러 기능, 다양한 컨트롤 시그널 등을 포함하여 데이터의 폭 넓은 다양성이 리코딩될 수 있는데 컨트롤 시그널은 시작부분을 임의로 지정하여 녹음할 수 있는 스타트(Start) ID, 듣고싶지 않은 부분은 건너뛰는 스킵(Skip) ID, 자동으로 곡의 번호를 매겨주는 곡 번호 정리 기능, 임의로 지정한 스타트 ID, 스킵 ID를 지울 수 있는 기능, 테이프에 수록된 곡을 순서대로 9초간 재생해 주는 인트로스캔(Introskan), 원하는 부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200배속 탐색 기능 등 많은 기능들이 서브 코드에 수록되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헤드가 자동적으로 트랙을 따라가도록 하는 신호인 ATF(Automatic Track Finding) 신호가 수록된다. DAT의 개발은 여러 나라의 전자 업계에서 시작했지만 그 기능들은 비슷하며 주류를 이루고 있는것은 일본 소니사 제품이다.

DAT의 개발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기능적인 장점과 한단계 높은 오디오를 제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존의 카세트와의 호환성이 없는 점이나 기술 집약에 의한 가격 상승 등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전자업체인 필립스사가 선두 주자로 개발하여 올 가을부터 시판 예정을 하고 있는 DCC(Digital Compact Cassette)는 기존의 카세트와 호환성이 있으며 녹음기 헤드에 그 기술을 집약시켰으므로 가격면에서도 기존 DAT의 50~60퍼센트에 불과해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들도 저렴한 장비가격으로 질 좋은 오디오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역할 시청자와 뉴스를 잇는 튼튼한 다리

맹형규 · 보도국 보도위원, 「SBS 8 뉴스」 앵커

색 수건을 뿔은 멋진 양복을 입고 TV 화면에 나타나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는 것처럼 아는 체 떠드는 사람. TV 뉴스앵커에 대한 나의 인식은 일반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충 그런 것이었다. 더욱이 불과 얼마 전까지 활자 매체에서 일하던 기자였고 방송의 속내를 잘 알 리 없던 나로서는 솔직히 뉴스 앵커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잘 알고 싶지도 않았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새로 탄생한 방송사의 메인뉴스 진행을 맡게 되면서 그제서야 이묘한 직업이 도대체 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급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를 1년 가까이 외치면서 고심하고 그러낸, 아니 아직도 그리고 있는 앵커의 개념은 여전히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앵커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다. 그 영향력은 앵커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오늘날 TV가 갖는 위력이다 시청자들의 이성보다는 감성 쪽을 두드리는 방송 매체의 특수성이 더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 앵커를 통해 뉴스를 접하게 되는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뉴스를 앵커와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즉 뉴스의 인격화다. 앵커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슬픈 뉴스이고 미소를 지으면 밝은 뉴스가 된다. 심지어는 앵커의 한마디가 뉴스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시청자들의 잣대가 되어 버리기도 한다. 물론 지나치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튼 앵커는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리 재고 저리 다듬어야 하고 아무리 언짢은 일이 있어도 방송을 하는 시간만은 그런 감정을 나타내서는 안된다.

지금은 스튜디오를 떠난 모방송국 선배 앵



장세석 그림

커의 얘기다. 그날 따라 골치아픈 일들이 많아
밝지 않은 기분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계
속 진행에 차질이 생기더라. 리드 멘트가 끝
나고 기자가 리포트하는 동안 “어떻게 된거
야?”라고 고함을 질러대지만 1분 30초도 리포
트가 끝나고 온 에어(On Air)의 붉은 사인이
들어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표정을 풀고 시
청자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아차, “좀 잘해 봐”
라는 고함은 이미 전파를 탄 뒤였다.

앵커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에는 다소의
환상이 있는 것 같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웅은
소리만 하는 것 같고, 게다가 탤런트같이 보이
기도 하고..., 아무튼 그의 실체보다는 과장되
고 부풀려진 채로 ‘TV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앵커의 고민과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칫 그런 환상을 자신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별
다른 노력 없이 거기서 자족한다면 그는 공허
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텅빈 앵커가 계속하
는 뉴스 전달은 방송을 망치는 첩경이다.

앵커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자들이
만들어온 상품을 좌판에 그럴듯하게 놓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파는 사람이다. 상품을 설명도
해야 되고 고객 행위도 해야 하는데 세상 돌아
가는 상황이나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고 있으면 장사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부지런히 움직여
야 한다. 취재원과 각부 데스크, 그리고 기자들
과의 부단한 접촉으로 정보의 흐름에서 뒤떨어
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끔적 이런 저런 책들
을 많이 읽어서 판단의 잣대를 윤이 나도록 단
아놓아야 한다.

기자들이 써오는 앵커 멘트는 거의 다시 손
을 봐야 한다. 멘트를 잘못 써서가 아니라 그날
의 다른 뉴스들, 전체적인 구도, 뉴스의 순서,
뉴스의 가치, 시국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앵커
의 시각으로 조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앵커를 오래하다 보면 자칫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시청자 위에 군림하려 들거나 시청자를 훈계하
고 가르치려는 자세는 앵커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다. 그래서 앵커 멘트에서는 가급적 개
인적인 의견은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다만 모
두가 공감하는 상황, 시청자들의 의견을 대변
하는 멘트라면 고심 끝에 한마디를 던진다.

시청자들은 앵커를 기억력이 대단히 뛰어나
고 언변이 탁월한 사람 꿈으로 흔히 알고 있다.
그러나 앵커의 물 흐르는 듯한 달변의 뒤에는
아는 사람은 아는 얘기겠지만 ‘프롭프터’라는
문명의 이기가 있다. 앵커의 멘트가 화면에 나
타나도록 하는 장치로 우리 나라에는 80년대
초 부시 당시 미국 부통령이 서울을 찾았을 때

국회 연설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당시 국회 출입 기자들은 연단에 선 부시의 양편에 솟아올라와 있는 유리판을 방탄유리 정도로 생각했었고 원고도 안보고 30여분에 걸쳐 막힘없이 연설하는 부시의 초능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 방탄유리가 바로 부시의 커닝장치였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 수 있었다.

프롬프터가 고맙기는 하지만 이를 100퍼센트 신뢰하다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타자수의 실수로 결정적인 오자가 생기거나 원고의 줄이 바뀌어져 있을 때 아차하는 순간의 망발은 피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앵커는 매일 수십개씩 나가는 기사 하나하나를 모두 이해하고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얼마전인가, “일본 중의원은...”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원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앞에 ANC(앵커가 읽는 부분이라는 뜻)라는 친절한 표시가 프롬프터에 나타났는데 무심결에 “에이 앤 씨 일본중의원은...”라고 말하고 말았다. 말의 특징은 주위담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던가. 방송 도중 웃음을 참느라고 애플 먹었던 기억이 난다.

약 45분간의 「SBS 8뉴스」 방송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나가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많은 착오나 실수의 위험이 오락가락해서 식은 땀이 나는 경우가 많다. 앵커의 임기응변이나 순발력은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앵커와 PD 등 진행팀과의 호흡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 보기 드물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 실무를 떠나서도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공감대 역시 거의 본능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진행팀이 ‘심술’을 부리면 앵커하나 바보만들기는 간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프롬프터가 없었던 지난 70년대에 있었던 일이다. 모 방송국의 고참앵커는 ‘닭모이 쪼기’(원고를 읽느라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가 싫어졌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수동식 프롬프터. 카메라 렌즈 밑에 폴을 만들어 놓고 옆에서 사람이 원고가 찍여진 긴 종이를 감아올리면 이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한 회심의 장치였다. 그 바람에 젊은 기자들이 차출돼서 저녁 뉴스 시간만 되면 앵커의 말의 속도에 맞추어 이를 감아 올려야만 했는데 앵커는 즐거웠지만 기자들은 그러지를 못했다.

겨우 이런 일이나 하려고 그 어려운 입사시험을 뚫고 기자가 됐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앵커가 술도 한번 사지 않았던 모양이다. 큐 사인을 받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제까지 잘 감겨올라가던 원고가 빨랐다 느렸다 하더니 엉켜버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방송 도중에 앵커가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날 그 앵커가 흘린 식은 땀이 한 말은 땀다던가.

SBS-TV의 8시 뉴스를 맡아 진행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간다.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스스로에게 불만스럽고 부족함은 마찬가지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어디가 불만스럽고 어떤 점이 부족했다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그동안 단 하루도 자신의 뉴스 진행에 만족해본 적이 없으니 이 일이 어렵긴 무척 어려운 일인가 보다. 항상 그렇듯이 8시 뉴스가 끝나면 나는 보도국 소파에 한참을 깊숙히 묻혀 담배 연기를 깊숙히 빨아 들인다. 연극이 끝난 뒤 텅빈 객석을 바라보는 배우의 허탈한 심정 비슷한 것이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찬 맥주 한잔 생각이 몹시도 난다. **S**

잠깐만!

국내 최고의 율동미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92코리아컵 에어로빅 선수권 대회**

서울방송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92 코리아 컵 (KOREA CUP) 에어로빅 선수권대회를 개최합니다. 남녀 싱글부문과 페어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되는 이번 대회에서 각 부문 챔피언은 93년 월드컵 에어로빅 세계선수권대회에, 2위 입상자는 '92 아시아·태평양 에어로빅 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로 파견됩니다. 국내 최고 선수들의 다이내믹한 율동과 함께 새로운 패턴의 에어로빅을 만나보는 자리가 될 '92 코리아 컵 에어로빅 선수권대회는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전 나토 사령관 알렉산더 헤이그 장군에게 듣는다

“미국의 선거결과가 어떻든 한미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방송/10월 5일 밤 10시 55분~11시 50분

인터뷰어/ 리처드 알렌(전 미대통령 안보보좌관)

도영실(미국문제연구소장·전 국회의원)

알렌 오늘 밤 우리 프로그램의 초대 손님은 백악관과 국방성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공직경력을 소유한 알렉산더 헤이그 장군입니다. 헤이그 장군은 현재 국제적인 자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외교문제나 안보문제에 대한 강연활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중요 논평자로서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시죠. 얼마 전 두번째 저서를 탈고하셨는데, 첫번째 저서만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영실 군인으로서 한국을 보셨을 때와 비교해서 90년대 한국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헤이그 한국과 저희 집안은 3대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고, 제 아들은 한국에서 보병장교로 군복무를 했죠. 그리고 제 손자 세명이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대해서는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마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짧은 시간에 경제 기적을 이루었죠. 그러나 제 견해로는 단지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6.25가 끝나면서 동경 사회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발전을 거쳐, 아시아의 네마리 호랑이 가운데 하나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근면, 창조력의 결과입니다. 한국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한국이 오늘날 이룩한 발전이 앞으로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핵을 보유한 두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떠오르는 경제와 정치 체제가 상호작용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두번째로 경제력이 강한 국가입니다. 북한은 소련의 붕괴와 마스 레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두사람이 「시사인단 핵심-워싱턴 동정」의 사회자와 초대 손님으로 오랜만에 다시 마주했다. 알렉산더 헤이그(오른쪽)는 1927년 미 육사를 졸업한 후 세계각지 미군부대에서 근무했고 국방성과 핵악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닉슨, 포드, 레이건에 이르는 세명의 대통령과 함께 일하며 NATO 사령관과 청무장군 등을 역임한 미육군 예비역 대장이다.

결국 한반도 통일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한층 더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도영심 한국과 미국은 지난 1세기 동안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앞으로 두나라 관계가 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헤이그 저는 두나라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관계는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관계는 보다 긴밀하고 협조적인 것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더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겠죠.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일고 있는 고립주의 경향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 미군 감축과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들수 있겠죠.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두가지 정치적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지난 7월 뉴욕 전당대회에서 발

혔듯이 민주당이 보호주의 성격이 더 강하죠.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듯이 세계가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다른 나라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알렌 장군께서는 조금전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말씀 여쭙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북한은 아시아에 가장 가공할 만한 위협이 될 것이고 안보상으로도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기구에 의한 사찰을 받도록 하거나 중국에 가서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헤이그 모든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한국정부가 가하고 있는 압력과 같은 정치적 압력이 우선 우리가 동원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만약 필요하다면, 무력 사

용감은 대안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당국자들은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거론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공직에 있지 않으니까 제 견해를 보다 솔직히 피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대해서 그랬듯이 북한의 핵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 참모시절 알렌 당신도 저와 함께 당시 와인버거 국방장관과 부시 부통령 등 정부 각료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라크 공습 당위성을 설득하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알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결정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이라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중동 상황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를테니까요.

헤이그 물론입니다. 그때 정부 각료들이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지만, 저는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이 한 행동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렌 북한을 방문하신 적은 있습니까?

헤이그 없습니다. 초청을 받은 적은 있지만, 마음의 준비가 돼있지 않았었죠. 제 생각으로는 남북한 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에 맡겨질 때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자유세계의 진정한 일원이 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남한에게 확신시켜주어야 합니다. 남북 대화는 이미 시작됐고, 제 3자의 개입 없이 남북한 두 당사자가 해결해야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영심 장관께서 국무장관 시절 사회자인 알렌 씨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당시 두 분께서는 카터 행정부 시절부터 걸끄러워진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7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



“남북한 관계는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은 자유세계의 진정한 일원이 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남한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겠죠.”

웠죠. 당시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어떤 외교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동북 아시아에서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헤이그 먼저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미국이 동북아에서 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한국은 월남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월남전을 통해 큰 희생을 치뤄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미국은 한국에게 진 빚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알렌 씨는 다행히도 레이건 정부에 동시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한국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일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추진하는 바람에 동북아시아 국가

들이 긴장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행히 카터 대통령은 결국 계획을 포기했지요.

당시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알렌과 저,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마치 한 나라의 내정을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어색해진 한미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회복이 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관계회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역시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의회 일부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도외시킨 채 냉전 종식과 함께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저지른 과오가 되풀이 돼서는 안됩니다.

주한 미군은 단지 소련의 침략을 막기 위해 존재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유럽에 있는 미군은 단지 군사적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미군의 주둔은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예방적인 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관리들의 주장이기는 하나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방위비 삭감을 위해 체니 국방장관이 주한 미군 수준을 10퍼센트 정도 감축했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획은 수정돼야만 합니다.

알렌 하지만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구 소련의 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 미군 주둔의 목적이 상

실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 수준의 미군을 아시아 지역에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헤이그 잘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요. 얼마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증언을 했지만, 일부 하원의원들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중요 정책 입안자들은 해외주둔 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잘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요즘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주요 우방 국가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이 지역에 좋은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결국 미국 기업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지난해 미국 경제가 지지부진하나마 성장을 했는데, 그 원동력은 수출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의 주요 시장을 포기하고도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영심 미국이 90년대 국제 사회에서 떠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헤이그 간단히 말씀드리다면, 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국내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국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외국에서도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세가지 면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양극체제가 끝나고 여러국가들에게 고르게 힘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역할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보다 인내심을 발휘하고 우방들과 협조하면서 우방국들과 친밀한 논의를 해야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두번째로 세계는 보다 상호 의존적이 됐습니다. 정보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이제 뉴욕 증권가의 움직임은 세계 주요 자본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도쿄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에도 세계 자본 흐름에 교란이 생겼지요. 유럽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구소련에 대한 지원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미국도 이러한 구조에 속해 있죠.

셋째, 유고 사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미국은 지도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세계는 미국의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련 올해 미국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를 좀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선거 결과가 미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헤이그 유권자들의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증폭됐고, 그 결과 7월 중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부시 대통령을 두배 정도 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다고 선부르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부시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정당이나 행정부 그리고 의회 어느 하나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부시대통령이 곤경에 처해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라죠. 한국국민 여러분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한국의 우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예기치 않았던 변수에 의해 결정되리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만큼 선거 전망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도영심 최근 의회는 스캔들과 몇가지 추문 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변할거라고 생

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헤이그 이번 대선에서는 대폭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 자체가 대폭적으로 바뀌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모든 일이 그저 잠시 관심을 끌다가 마는 나라니까요. 어제의 스캔들은 어제의 일이고 또 새로운 스캔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극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많은 공화당 의원이 당선될 것으로 봅니다. 야당이 다수당이 돼버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지도력 밖에 없습니다. 그 지도력이란 바로 거부권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의회를 끈질기게 설득하는거죠. 부시 대통령은 이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걸프전이 좋은 예입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걸프전 개입에 반대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도 자신이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도 반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결정이 선 다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고, 반대입장을 취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여론이 대통령 쪽으로 기울는 것을 보았죠. 결국 부시 대통령은 근소한 차이로 그의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그렇지만,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뉘드리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공화당 의원보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당이라는 것은 어리니이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여하튼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다수당이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일련 지도력이란 분명 위대하고 중요한 자질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S**



최후의 항소

-재미교포 송여인 아들 살해사건-

1987년 5월 28일 새벽 3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 시. 잭슨빌 인명구조대에 무선연락이 날아들었다.

“여기 코, 콜로니얼 호텔인데요. 사, 사고예요. 아이가 주, 죽었어요.”

말을 심하게 더듬는 걸로 보아 매우 다급한 모양이었다. 새벽 근무자 조단은 위치를 재차 확인하고 급히 출동했다. 그렇잖아도 날씨가 차츰 후덥지근해지면서 유홍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죄가 늘어나던 중에 빈민가에서 또 말썽이 일어난 것이다. 흑인과 동양계가 많이 살고 있는 그쪽은 항상 한눈을 팔수 없는 우범지역이었다. 자원봉사근무였지만 새벽잠이 많은 조단에겐 약간 귀찮은 일이었다.

초여름의 눅진한 어둠을 헤치고 사고 현장에 달려가 보니 현장은 의외로 맑았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도 현장의 깔끔함에 의아해 했다. 가구며 집기가 놓일 자리에 놓여 있었고 바닥도 이상하리만큼 깨끗했다.

사고가 생겼다면 두살 반짜리 노랑머리 아이는 방 안 침대에 누어져 있었다. 조단은 침대로 다가가 아이의 목젓을 짚어 보고, 눈꺼풀을 올려 보았다. 맥박은 뛰지 않았고, 눈동자는 치켜올려진 채 풀어져 있었다. 숨진지 오래된 듯싶었다. 뒤따라온 싱글톤 형사도 천천히 아이의 몸을 살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싱글톤 형사는 부엌 식탁에서 연신 훌쩍이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이가 언제 이렇게 됐죠?”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죽였어.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거야!”

형사의 물음에 대답 대신 여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계속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여인의 입에선 가끔씩 한국어가 튀어나왔다. 싱글톤 형사는 절규하는 그녀를 끌고 즉시 경찰서로 연행했다.

김기우 · 소설가

•방송/ 9월13일 밤
10시55분~1시50분



1987년 12월 21일, 온슬로카운티 법정에서 한국 여인 송여순 씨는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을 언도 받았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내가 죽였다”는 현장에서의 절규가 범행 자백으로 받아들여져 살인죄를 부른 것이었다. 2년 뒤인 1989년에 항소 공판이 있었지만 기각되고 말았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원인은 질식사였다. 서랍장과 그 위에 얹혀있던 텔레비전이 아이를

동양적인 가치관을 이해할리 없는 낯선 외국 땅에서 “내가 죽였다”는 한마디의 절규로 인해 그녀는 자식을 죽인 살인범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엔 한 여인의 불행한 삶의 절곡 뿐 아니라 소수민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미국의 인권상황,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차별 등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점이 투영되어 있다.

덮쳐 질식케 했다는 송여인의 진술은, 그녀의 어눌한 말투와 검찰측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로 신뢰할 수 없는 헛소리가 되고 말았다.

“기록에서도 보다시피 그녀는 여러번 범행을 시인했고, 현장검증 때도 당시 상황을 수차례 반복 진술했습니다. 우리 검찰은 기술자를 동원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배심원들이 우리의 과학적인 물증 제시를 믿은 겁니다.”

사건을 맡았던 허드슨 검사는 당시의 재판 결과에 만족해했고 과학적인 실험결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란 실재와 비슷한 크기의 TV와 서랍장을 갖추고 죽은 아이만한 체구의 소년용 통탄 실험이었다. 아이가 과연 서랍장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검찰에게 있어 송여인의 진술은 거짓으로 증명되었다. 두살 반짜리 아이의 힘으론 서랍장이 움직일리 없었고, 송여인의 주장대로 아이가 서랍장에 깔린 것이라면 TV가 넘어오면서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아이의 두개골을 부숴놓을 정도로 중량 있는 TV라는 것이다. 사실 당시의 사건을 보면 아이의 머리엔 큰 상처는 없었고 관자놀이 위로 무엇에 눌린 듯한 기다란 자국이 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아이의 등과 배에 난 상처는 송여인이 아이를 서랍장에 넣고 밀어 질식케 할 때 생긴 것이라는 추리였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업소에서 일하고 돌아와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는 송여인의 진술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건 당일, 송여인은 서랍장에 자신의 아이를 넣고 힘껏 밀어 질식사킨 다음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저녁 7시에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의 숨이 끊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그녀는 아이가 놀다가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아이 머리 위에

텔레비전을 눌러 자국을 만듭니다. 그런 후 다시 현장을 말끔히 치우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배심원들에게 송여인의 형편없는 영어발음과 감정적인 진술보다는 검찰의 실증적인 뜻있는 추리가 더 설득력 있어 보였을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은 검찰의 사건 경위 발표가 진실이라면 송여인은 성격파탄자이거나 자신의 아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바람난 여자일 것이다. 적어도 강한 모성애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우리네 여성들의 정서로 보면 말이다.

그러나 송여인은 정신병자도, 화냥년도 아니었다.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스물여섯 살이 될 때까지 그녀가 걸어왔던 행로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현재 팔리시에 있는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5년제 복역중인 그녀는 수줍어 하며 과거를 풀어놓았다.

그녀가 태어난 곳은 충남 서산. 글방에서 한문을 가르치시던 아버지 밑에서 8남매는 아무 걱정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자라났다. 그녀는 8남매 중 막내여서 부모님 뿐 아니라 오빠와 언니들에게도 깊은 귀여움을 받으며 유년을 평화롭게 지냈다. 해가 바뀔수록 커가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하려고 아버지는 금광 캐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광산은 아버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그와 비례하여 가산은 점차 기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열네살 되던 해, 광산이 허물어짐과 동시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오빠에게 맡겨졌다.

“방 안을 청소하다가 오빠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와 잠깐 펼쳐보았죠. 일기장엔 저와 어머니만 없다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써어 있더군요.”

하루를 연명하기 어려운 시절에 오빠의 일기장을 훑쳐 본 그녀는 오빠의 어깨에 얹혀진 짐을 덜어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웃집 언니의 말을 듣고 그녀는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으로 올라갔다. 평택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그녀는 주한 미군과 만나 결혼하게 되고 곧장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녀의 나이 열일곱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보다 비참했다. 전혀 통하지 않는 언어는 접어두고라도 매일같이 휘두르는 남편의 폭력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2년 동안 남편의 매질에 시달리다가 그녀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아이를 처음엔 자신이 맡아 키웠지만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송여인 사건은 현지의 여성계와 한인회, 그리고 양심있는 미국인들에 의해 5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주최 청문회에서 이 탄원서의 진술이 있었다. 그녀의 사면 여부 결과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오래가지 못하고 그 양육권도 포기해야 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소개로 저는 그 아들과 재혼하게 됐어요. 처음엔 두 모자가 참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는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리화나를 피우고 제게 폭행을 일삼았죠.”

마약 중독자 남편과의 생활을 견뎌내면서 그녀는 아들 모세와 딸 에스더를 낳았다. 그러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지고 남편은 거의 폐인이 되어 그녀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때리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마저 매일밤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시아머니에게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으면 또다시 아이들을 빼앗길 것 같았어요.”

결국 그녀는 모세와 에스더를 데리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녀가 살던 메릴랜드에선 남편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위법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는 얼굴이 없는 낯선 곳으로 도망쳤다. 그러던 끝에 그녀가 찾아든 곳이 사건 현장인 콜로니얼 호텔이었다. 아이들과의 생활을 위해 그녀는 일을 해야 했고 같은 호텔에 살고 있는 스미티 씨는 자신의 가게인 ‘해플바’에 그녀를 취직시켰다.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실함을 인정받은 그녀는 카운터를 보며 아이들을 지켜나갔다.

아들 모세는 평소에 서랍장에서 잘 놀았다고 한다. 자주 서랍장 위에 올라가 텔레비전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혼을 내주기도 했다. 아이가 올라가면 서랍장이 심하게 흔들거려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사고가 있던 날, 그녀는 예전과 다름없이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직장へ 출근했다. 웬지 서랍장이 마음에 걸려 이번 월급을 타면 장을 바꾸리라 생각했다. 불길한 예감이 사고를 부른 것일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니 서랍장과 텔레비전이 없어져 있었고 모세가 서랍 속에 끼인 채 그 밑에 깔려 있었다. 아득했다. 마치 자신이 텔레비전에 깔린 듯이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황급히 모세에게 달려가 TV와 서랍장을 치우고 끌어안아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 오열이 터져나왔다. 아이를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린 뒤 그녀는 이웃의 도움을 청했다.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녀를 끌어갔다.

두살 반 된 아이의 혼자 힘으로는 서랍장과 TV가 없어지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러나 그녀가 무죄라고 확신하는 서승해 변호사와 주정부에서 위임한 두 명의 미국인 변호사,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공학박사인 굴드씨가 행해본 실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실험은 검찰 측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한 가구에 의한 것이 아닌, 사건현장에 있던 실제의 가구로 실시됐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가구의 무게가 검찰에서 제시했던 100파운드보다 20파운드나 못미치는 80파운드였고, 가구의 무게 중심은 검찰계산보다 훨씬 앞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었다. 모세만 한 채구의 소년을 통해 오랜 시간 실험을 계속한 끝에 굴드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실험의 결과로 보아 아이가 서랍장에서 TV를 만지다가 서랍장의 무게와 TV의 무게가 합쳐지면서 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직접 TV에 맞지 않았더라도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고, 기절한 상태에서 서랍장에 눌러 질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송여인의 무죄를 미국 공학박사가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무죄는 한인회, 동양계 부인회, 그리고 여러 양심 있는 변호사들뿐 아니라 직장동료들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할 이유가 없었기에 검찰 역시 1급살인이 아니라 2급살인으로 기소했다. “내가 죽었다”는 사건 당시의 그녀의 말과 사건 현장을 치워 버린 것에서 빚어진 의심이, 그들이 기술자를 동원해 증명해 보였던 과학적인 방법보다 더욱 효력있는 증거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던 그녀의 절규는 제대로 못기른 어머니의 애틋한 죄책감에서 나온 통한이라는 것을 한국에서라면 판결출도 알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자식이 가구에 깔려 죽었는지 살았는지 곰짜단팍 앓는데 현장보존을 위해 가구를 그대로 놓아두는 한국의 어머니가 있다면 그녀가 오히려 살인죄에 몰려야 마땅할 것이다.

“한인회에서 주정부에 무죄를 청원한 모양이에요. 만일 주지사에게 청원이 받아들여져 석방이 되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두 딸을 꼭 찾아 양육권을 얻을 때까지...”

송여인은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먹었다. **S**

UN 마약퇴치 천선대사 정트리오 초청연주회

깊은 의미가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음악

한상우 · 음악비평가, 서울예고 음악과장



역사상 음악을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긍지를 높여준 인물로 많은 사람들은 서슴없이 정트리오를 꼽는다. 물론 이들은 트리오는 활동하기 이전부터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를 필두로 하여 솔리스트로서도 각각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었다. 가장 먼저 정경화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데 이어 정명훈이 피아니스트로서 차이코프스키 콩쿨에 입상하며 세계 무대에 나타나는가 했더니 지휘자로 변신, 드디어는 프랑스의 파리에 새로 건립된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선임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일급 지휘자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 이들 두 동생에 비하면 독주자로서보다는 교수로서의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던 첼리스트 정명화 역시 근래에 와서는 독주자로서의 무대를 넓히면서 두 동생들과 함께 정트리오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이제 이들 삼남매 트리오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가지면서도 한가족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앙상블을 자랑하며 우리 시대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트리오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서 세계에서 대접을 받고 온 국민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과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문화적 우월성으로 정신적 자긍심을 갖는다면 이야말로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며 자손 만대에 물려 줄 훌륭한 유산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정트리오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정신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정트리오가 UN이 정한 초대 마약 퇴치 천선 대사로 임명됨으로써 또 하나의 보람 있는 일을 통해 인류에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비단 정트리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맞보는 큰 기쁨이다.

지난 8월 29일 정트리오는 UN마약 퇴치 대

사의 임명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가졌거니와 이날 그들의 자연스럽고 달관된 연주는 콘서트 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고 거장들의 앙상블답게 스케일이 큰 음악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다른 실내악 그룹에서는 좀체로 느끼기 어려운 독특한 분위기를 맛보게 했다.

이날의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피아노 삼중주 4번 B장조 11과 5번 D장조 작품 70의 1, 그리고 브람스의 피아노 삼중주 B장조 작품 8로 이어졌는데 비록 친선 대사라는 기념적인 의미와 마약 퇴치를 위한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순수 연주회 때와 똑같은 합량의 수준 높은 예술적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휘자인 정명훈의 포용력 있는 피아노와 예리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정경화의 바이올린, 그리고 여유를 느끼게 하는 첼로의 정명화가 만드는 실내악의 진수는 진한 예술적 여운으로 다가왔다.

이념과 이념 간의 갈등, 인종과 인종 간의 갈등,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에서 오는 전쟁 이외에도 인간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 역사 이래 지속되어 왔으니 우리는 이를 '제3의 전쟁'이라고 부른다. 제3의 전쟁의 최대의 적은 바로 인류를 서서히 멸망시키는 마약이 아닌가 한다. 바야흐로 이념의 갈등에서 풀려나 동서 간의 냉전이 종식되는 마당에서 인류 최대의 적인 마약 퇴치 운동에 우리의 정트리오가 최일선에 나선 것은 아름다움이 악의 근원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으로 불리우는 나라도 많은데 정트리오가 친선 대사로 임명된 요인은 무엇일까? 그 가시적인 이유의 첫번째는 전 세계에서 마약 퇴치 운동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UN의 판단이 있었고, 그 한국에 세

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형제자매인 정트리오가 존재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물질적 부가 아무리 축적되더라도 여기에 정신의 모습이 뒤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차원 높은 정신력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 그중에서도 화합의 극치를 이루는 실내악단으로 하여금 친선 대사의 역할을 감당케 한 것은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며 정신의 틀을 넓혀주는 차원 높은 음악 예술을 통해서만 마약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그 치유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어떤 나라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 일이나 또는 기아선상에서 헤메이는 난민들을 위해 물자를 보내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잘사는 자와 못사는 자를 막론하고 무섭게 파고드는 마약의 회오리 속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음악 사절단, 즉 정트리오를 파견하는 일이야말로 가슴 뿌듯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트리오는 이날 예정된 프로그램을 마친 후 청중들의 열광적인 앵콜에 답해 정명화의 첼로 독주와 정경화의 바이올린 독주를 선사함으로써 독주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는데 오랜만에 이들 삼남매의 연주를 대하고 돌아가는 청중들의 얼굴은 그 어느때보다 밝아보였다.

세계의 무대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켜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특히 서양 음악의 뿌리이기도 한 유럽의 악단에서 이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그들의 활동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이다. UN마약 퇴치 친선 대사로써 정트리오가 임기 중 훌륭하게 소임을 다해내기를 기원한다. **S**

가장 미국적인 상업영화 「패트리엇 게임」

테크놀로지로 장식한 헐리우드 보수주의의 얼굴

정성일·영화비평가



헐리우드영화를 움직이는 거대한 메커니즘은 자본의 논리와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이다. 이것은 '진부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해체되지 않는다. 오히려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정체를 알 수 없는 매혹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테크놀로지로 빛나는 장식을 한 파시즘이라는 함정에 걸려들게 하는 미끼가 된다.

92년의 헐리우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늠하게 만드는 영화 「패트리엇 게임」(Patriot Games)은 왜 헐리우드 영화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을 담고 있는 데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만 하는가를 보여준다. 정밀한 커트 분할과 하이테크 SFX, 그리고 장르영화의 거의 완벽한 형식 속에서 현실을 헛떡거리며 질식하게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화를 작가영화(감독이 영화의 주인이며, 영화는 감독의 세계관이라는 낙관주의)와 컨셉트 영화(기획을 내세워서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에 맞게 감독에서 주연까지 생산공정에 맞게 짜맞추는 상업주의, 또는 비관주의)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패트리엇 게임」은 철저하게 후자의 방법을 교과서처럼 따르고 있다.

우선 이 영화의 원작은 발표한 지 이미 5년이 넘는다. 미국에서 테크 드릴러라는 새로운 추리소설 장르를 개발한 톰 클랜시의 원작들은 미국 출판시장을 석권했지만 처음부터 헐리우드 제작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우선 그의 소설을 읽으려면 지루한 앞부분을 꼭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게 첨단 무기를 설명하고, 그런 후에야 전문용어를 총동원하여 클라이맥스로 달리기 때문이다. 톰 클랜시의 전문성은 미국방성에서 그를 초청해 강연을 하게 했다는 일화에서도 증명된다. 헐리우드는 기다렸다. 그리고 지난 90년 그

의 「붉은 10월」을 영화화시켰다. 「다이 하드」로 인정(!) 받은 존 맥티어난이 메가폰을 쥐었고, 손 코넬리가 소련의 최정예 잠수함을 이끌고 망명하는 함장 역을 맡았다. 이 영화는 톰 클랜시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였고, 결과는 그해 흥행 7위에 오르는 성공을 거두었다.

파라마운트 영화사는 그의 소설 「패트리어트 게임」을 사들였다. 그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감독이나 주연배우 캐스팅이 아니었다. CIA와 국방성을 영화에 끌어들이는 작업이었다. 미국 행정부는 헐리우드가 '양날의 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헐리우드는 돈이 되지만 하면 감히 반체제 영화도 만들지만, 또한 위험할 정도로 절박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영화는 잘만 이용하면 이미지 관리에 더없이 좋은 '무기'이다. CIA와 국방성은 승락했고, 더 나아가 일부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CIA 내부활동까지 허가하였다.

영화사는 그제서야 비로소 배우와 감독을 찾아나섰다. 원래는 「붉은 10월」팀을 그대로 '모셔올' 생각이었으나, 감독 존 맥티어난은 최신작 「나일강의 의사」가 실패하였고 배우 알렉 볼드윈은 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개런티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진은 고민 끝에 호주에서 온 필립 노이스 감독을 기용했고, 주연감으로는 출연 교섭이 뜸하지만 여전히 인상이 좋은 해리슨 포드로 계획을 바꾸었다.

기획진은 이 영화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데탕트 분위기에 시대착오적인 냉전 무드라는 비평이 따를 것이고, 게다가 지나친 미국 중심주의가 어쩌면 관객들의 거부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적! CIA와 국방성을 싸고 돈다는 비난이 나오면 그걸로 흥행은 끝장이다.

그러나 헐리우드는 포장을 하는 방법에는

정말 능수능란하다. 세계질서의 말썽쟁이들을 테러리스트로 설정함으로써 냉전무드를 대치시켰고, 미국 중심주의는 가족 중심주의(그것도 백인 중산층 중심주의로!)로 슬쩍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CIA에 염증을 느끼고 심지어 반감까지 갖고 있는 인물이다. 관객들은 이 등장인물들의 반대말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빠른 속도로 영화 속으로 끌려들어가 버린다.

주인공은 악당 테러리스트에게 쫓기기 시작하는데, 그를 구할 사람들은 CIA뿐이다. 그러나 전직 CIA 직원이었던 그는 계속 도움을 거절한다. 그는 관객보다 더 CIA를 싫어한다! 이제 강도높은 공격이 시작된다. 그의 아내와 딸은 계속되는 테러의 위협 속에 그만 대형 참사를 맞는다. 이제는 관객들이 마음 속으로 합창한다. 여보게, 잭 라이언, 어서 빨리 CIA와 손을 잡으라구, 그래서 악당을 혼내 주자구!

비로소 영화 속의 주인공은 강경 대파로 변신하고, CIA와 국방성은 그에게 끌려(앞장서서가 아니라) '애국게임'에 참가한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애국'이 아니라 '게임'이다.

「패트리어트 게임」은 모든 것이 광고 카피 감 뿐이다. 톰 클랜시의 원작, 해리슨 포드 주연, CIA와 국방성의 전면 협력, 전쟁영화, 스펙터클, 화면으로 처음 보는 90년대식 전자 '대리' 전쟁. 그러나 여기에는 기획만이 있고, 우리가 영화를 보고난 후 느낄 수 있는 아무 것도 없다. 느끼기는 커녕 온통 혐박 뿐이다. 미국은 언제나 옳으며, 언제나 이긴다. 그들은 가족을 지킬 줄 알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또한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헐리우드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결론! 우리는 CIA와 국방성 선전용 문화영화 1시간 45분짜리를 입장료까지 내가면서 뉘을 잃고 본 셈이다. 이것이 헐리우드 영화다. 5

1992 가을, 그룹사운드는 부활하는가?

화려하게 되살아나는 질긴 생명력

윤정수 · 라디오국 제작1부 차장대우

이 가을, 국내 가요계의 새로운 흐름이 눈에 띄고 있다. 오랫동안 발라드 가수들의 위세에 눌려서 고사 직전까지 갔던 그룹사운드들이 서서히 기력을 차리고 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룹 NEXT(신해철이 만든 실험그룹)와 015B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여름 돌풍에 이어서 가을 들어 새로운 왕위다툼을 하고 있고, 요즘 들어 중고생들의 열광적 반응을 얻고 있는 신성우가 백밴드를 결성했으며 그룹 출신 솔로가수인 최용준도 다시 그룹의 리드보컬 자리로 되돌아갈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룹사운드의 소생은 편식중에 걸린 국내 가요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게 틀림없는데, 이는 국내 가요계의 대세가 발라드와 랩에 이어 서서히 록뮤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92년의 가요계는 발라드의 마지막 황제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과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가 양분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 슈퍼그룹 시나위의 리드보컬이었던 김중서의 「대답없는 너」,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등의 록뮤직이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NEXT와 015B가 나란히 중고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층 등 20대 후반까지 그 인기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태지 역시 시나위의 베이시스트 출신일 뿐 아니라, 「난 알아요」에도 메를·스래쉬 등의 록요소가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나위 출신인 김중서가 「대답없는 너」로 레코드 판매 순위 1~2위를 다투자, 보양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의 카리스마(이 카리스마라는 그룹명은 필자가 명명한 것이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



다) 시절 앨범이 '김종서와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출반되어 불티나듯 팔리고 있는 점도 단순히 김종서의 인기로 약삭빠르게 편승했다기보다는 그룹사운드 바람과 록음악 대세론이 이제는 그만큼 뚜렷하게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그룹사운드의 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제1세대로 비틀즈 등장 이후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던 히식스, 키보이스, 영사운드부터 신중현과 엽전들, 사랑과 평화까지 들 수 있다.

다음 제2세대로는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산울림과 대학가요제 출신 그룹들인 활주로, 옥슨, 피버스, 전아들 등을 들 수 있고, 제3세대로는 1980년대 중반 록그룹의 르네상스 시절에 나왔던 부활(이승철이 몸담았던 그룹), 시나위(김종서·서태지·신대철·임재범), 백두산(유현상·김도균)·H₂O 등이 있다. 물론 들국화(전인권·최성원)와 봄여름가을겨울(김현식·김종진) 등의 언더그라운드 그룹도 큰 인기를 모았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발라드의 득세 때문에 블랙신드롭과 뮤즈에로스 등의 메틀그룹이 배를 곯았고, 겨우 소프트 록그룹인 푸른하늘 정도만이 명맥을 유지, 우리 나라에서 그룹사운드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듯이 보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음악계는 계속 록그룹들이 랩과 하우스뮤직에 대항하여 건재를 과시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일본의 그룹들인 안전지대, 카시오페아, 구와타밴드 등이 우리 나라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만 정작 우리 나라의 그룹들은 처참한 침몰 상태였다. 그러나 지쳐서 포기하고 있을 무렵, 시내의 얼음 밑으로 봄이 오고 있듯이 드디어 우리 나라 그룹사운드의 봄도 소리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1992년 가을 그룹사운드의 부활 조짐은 NEXT(신해철은 '신해철과 NEXT'라는 이름은 질색할 정도로 싫어한다고 한다)와 015B 등 대학생 중심의 그룹들뿐 아니라, 퓨전록그룹인 봄여름가을겨울, 빛과 소금, 그리고 김현철 등 젊은 음악인들이 한시적으로 만든 연주그룹 야샤(Yasha) 등도 재즈의 맛을 본 젊은 층에 크게 어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 노익장그룹인 사랑과 평화, 11월 등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신대철 역시 시나위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새 그룹 결성에 나섰다. 동물원, 야기천사, 이야기, 자유시간 등, 아직 아마추어 냄새가 나는 그룹들도 부단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메틀그룹 백두산도 앨범을 내고 옛 영광의 회복에 나섰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나라 가요계는 발라드 가수건 랩가수건 그룹사운드 출신들이 태반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서태지, 김종서, 신해철, 임재범, 신성우 외에도 조용필, 김현식, 이승철, 조하문, 홍서범, 박정운, 이덕진, 이현우 등 내로라하는 가수들은 거의가 다 프로밴드이건 아마추어그룹이건 간에 그룹사운드에서 기량을 닦아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 윤상, 손무현, 김현철, 하광훈 등의 가수 겸 연주자, 작곡가까지 포함시키면 그야말로 그룹은 모든 음악인들의 모태인 셈이다.

따라서 그룹사운드의 부활 조짐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하며 모처럼 싹튼 그룹사운드의 기운을 모든 음악관계자, 방송제작자, 일반대중들은 한마음으로 잘 가꾸어서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성좌의 「찌꺼기들」과 민중극단의 「영자와 진택」

‘선한 인간’이란 신화 속의 존재일 뿐인가

이영미 · 연극비평가



우리는 인간, 혹은 인간 집단의 선함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예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삶 속에서 인간의 악함을 체험하며 산다. 악독하고 사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악하지는 아니더라도 그 특유의 어기심 때문에 결국 악으로 귀결되거나 이를 용인해 버리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특히 개개인으로 만날 때에는 ‘알고 보면’ 다 불쌍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 때에는 그와는 달리 또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악한 인간집단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모든 예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일 것이며, 모든 예술작품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다. 최근 공연된 극단 성좌의 「찌꺼기들」(아누쉬 그와브스키 작, 김영환 연출)과 서울연극제 참가작인 민중극단의 「영자와 진택」(이강백 작, 정진수 연출)은 비슷한 상황 설정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흥미롭다.

두 작품 모두 상황이 감화원이다. 즉 여기에 수감된 사람들은 모두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폭행, 강도, 절도 등을 저지른 소위 ‘죄인’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는 모두 그들의 ‘악’이 그들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나 환경의 문제,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찌꺼기들」에서 나오는 감화원의 소녀들은 좋지 못한 가정환경 탓으로, 「영자와 진택」의 인물들은 낮은 임금과 생활고 때문에 죄를 짓는다. 실제 대부분의 교도소와 감화원의 수감자들이 그러하듯이, ‘감화’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게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 같은 것은 없다. 감화원은 그들을 ‘감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감화원 내의 또 다른 억압구조

가 그들을 다시 왜곡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작품은 모두 감화원이라는 설정을 통해 인간 사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 작품은 모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이 존재하는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각 인간들은 그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나 행복하지 못하다. 사회는 이들을 통제할 뿐이다. 이들은 그 속에서 거짓말하고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들을 부러먹고 못살게 구는 등 끊임 없이 '악'을 저질러야만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즉 이들 작품에서 그려내는 인간 사회란 필연적으로 이들과 같은 죄인을 만들어 내며, 또 이들이 죄인이 되어야만 '유지'되는 구조, 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도 이렇게 악을 양산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싹트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죄인'이라고 규정되어 격리된 이들이 오히려 감화원의 운영자들, 즉 그 사회를 통제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선한'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적어도 그들은 노골적으로 권모술수를 쓰거나 남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며, 다른 인간을 억압할 만한 힘을 별로 갖고 있지 않으며, 겉으로 선한 척 인격자인 척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이 감화원의 운영자들에 비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순수하다. 그리고 간혹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나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몸으로 나타내는 용기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찌꺼기들」의 신데렐라가 그렇고 「영자와 진택」에서 주인공 진택과 영자가 그렇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궁극적으로는 인간, 혹은 인간집단의 '선함'에 대해 믿지 않는다는 동일한 결론으로 치달는다. 즉 신데렐라와 진택,

영자는 바로 자신과 꼭 같은 처지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 의해 배신당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신데렐라나 영자, 진택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고가고 이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가능성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결론에 귀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영자와 진택」은 마지막에 배신당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쓴 영자의 이미지를 죄를 대속하는 예수의 이미지로 부각시킴으로써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신적인 구원의 이미지에 기대 수박에 없다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는 인간사회의 변화 가능성은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집단에 대한 이러한 궁극적인 불신은 비단 이 작품만이 아니라 근년간 우리 연극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지방 극단인 청주 영림터의 「월급도둑」의 인간관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진다. 앞에서 예기한 작품들과 같은 시기에 초청 공연으로 서울에서 올려진 이 작품은 교도소 안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두 작품과 흡사한 점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유지함으로써 전편에 따뜻한 해학의 질감이 흐르고 있고, 아주 적은 폭이나마 이들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낙관적인 모습을 형상화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낙관이야말로 우리를 자조와 비판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또한 우리 연극계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과는 작지만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5



“무려,
22배나 쓰는 주부도
있습니다.”

합성세제, 반의 반도 많습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일,

합성세제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질오염의 직접적 원인이며, 주부습진이나 발암성분등 인체에도 많은 해를 끼치는 합성세제 —

합성세제는 끓여도 분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산염은 영원히 남아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한 여성 단체가 합성세제 사용량을 조사해본 결과, 102명의 주부중 적량을 사용한 주부는 다 1명 뿐이었고, 대부분 4-5배를 사용했으며, 심지어 22배나 부어 쓴 주부도 있었다 합니다.

폐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생활하수도 바로 이 합성세제가 주범 — 필요이상으로 많이 쓰는

합성세제가 우리가 마시는 물속에, 우리의 식탁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합성세제, 줄여쓰면 줄여쓸수록 오염도 그만큼 줄어들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일, 주부님들의 손에서 시작되는 “온누리 깨끗하게” 캠페인입니다.

주방에서 시작되는 “온누리 깨끗하게”

- 세탁시 세제는 반드시 계량컵을 사용합시다.
- 식기는 가능한 알맞은 물로 닦읍시다.
- 샴푸와 린스는 비누로 대체하면 모발보호에도 좋습니다.
- 후라이팬을 닦을 때 먼저 휴지로 닦은 다음 닦읍시다.



공익광고협의회

SBS-TV주간 기본 편성표

Ch-6

1992년 10월 12일 시행

시	분	월	화	수	목	금					
AM		sbs 뉴스									
6	10										
	30	sbs 생활 영어									
7											
							출발! 서울의 아침				
8	35	남편은 요리사									
	55	아침연속극 가을여자									
9	20	알뜰 살림 장만 퀴즈									
	45	sbs 뉴스									
10		어린이들의 새로운 친구 「007 제임스 본드 2세」 공상과학만화영화에만 익숙해 져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평 범한 소년이지만 기상천외한 기 지와 용기로 국제범죄조직 스쿼 드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는 007 제임스본드 2세가 새롭게 전보 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를 무대로 행활약을 벌이는 「007 제임스 본드 2세」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5시 40분부터 30분 동안 만나볼 수 있습니다. 									
11											
PM	12										
1											
2											
3											
4											
5	30	sbs 뉴스									
	40	007 제임스본드 2세									
6	10	우리들 세상									
	35	스타와 만나요	어린이 현장탐험	우리학교 최고	번스타가족						
7	05	사랑만들기	sbs 인기가요	주부만세	빙글빙글 퀴즈	독점! 연예정보					
		sbs 8 뉴스									
8	45	잠깐! 경제메모									
	50										
9	45	sbs 소설극장 물 위를 걷는 여자	sbs 수목드라마 궁합이 맞습니다			sbs 영화 특급					
	50	가요 데이트									
10	40	sbs 월화 드라마 비련초	코미디 전당대	목소리를 낮춰요	sbs 스포츠 뉴스						
	55	sbs 스포츠 뉴스									
11	50	시사전단 핵심	화요 파노라마	수요 볼링	목요 복싱	금요 골프					
		sbs 마감 뉴스									
AM	12										

시	분	토	일	시	분
AM		sbs 뉴스	세계를 그린 사람들		AM
6	10 30	sbs 생활 영어			6
7		토요특집 출발! 서울의 아침	젊은 인생		7
8	35 55	남편은 요리사	sbs 뉴스	10	8
9	20 45	가을여자 알뜰 살림 장만퀴즈	만화 잔치		9
10		생방송 행복 찾기	sbs 뉴스	10	10
11			sbs 일요스포츠		10
			사랑의 증계차		11
PM	12	sbs 뉴스		10	PM 12
	10	사랑의 장검다리	sbs 일요 영화		
1	50	sbs 문화광장			1
2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2
3					3
4					4
5	10	sbs 뉴스		10	
		광스프링스 수사대	지구촌 퀴즈		5
6	05	쇼, 서울서울	초특급 푸라기대행진		6
7		토요일 7시 웃으면 좋아요			7
8	45 55	sbs 8 뉴스		45 55	8
		sbs 스포츠 뉴스			
9	55	sbs 주말극장 두려움 없는 사랑		55	9
10	55	자니윤 이야기쇼			10
11	50	스퀘어그의 어메이징 스토리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11
		sbs 뉴스		50	
AM	12	sbs 바둑최강전	작가와 화제작		AM 12

SBS 라디오 주간 기본 편성표

SBS AM 792 KHz HLSQ

1992년 10월 10일 현재

시간	분	월~토	일	분	시간
AM	05	뉴스		05	AM
5		마음은 언제나 청춘 •진행/변순복 •연출/이재춘		5	
	05	뉴스		05	
		출발 성공시대			
6	30	뉴스		6	
	35	•진행/권오근 •연출/김국은			
	20	아침 종합 뉴스	아침 종합 뉴스	10	
7	25	이규학의 건강만세 •연출/이영일	이규학의 건강만세	15	
	30	공향정보	〈일요판〉 서울 전망대	7	
		서울 전망대			
8	30	SBS 뉴스 센터 •진행/김종찬 •연출/김동운	일요 초점	30	8
	55	자동차 문화 •진행/선우효웅 •연출/이정은	작은사람, 큰 이야기	55	
9		그대 이름은 여성 •진행/민창기, 송도영 •연출/박동주		9	
10		지구촌 24시 •진행/조경철 •연출/박성환		10	
11		노래 한마당 •진행/박일, 정재운 •연출/김광태		11	
PM	12	정오 종합 뉴스	정오 종합 뉴스	12	PM
	1	이성미, 박미선의 신나는 오후 2시 •연출/김상일		1	
	2	녹색시대 •진행, 연출/이영일		2	
3	55	트루트 대행진 •진행/이세훈 •연출/이진규	신세대 콘서트 •진행/홍서범 •연출/신용현	3	
4		수도권은 지금 •진행/송경철 •연출/전문표	이미자의 가요앨범 •연출/박진삼	4	
5		뉴스 대행진	뉴스 대행진	5	
6		스포츠 저널 •진행/안지영 •연출/오기현		6	
7	20	달빛 노래 •진행/임국희 •연출/김광태		7	
8		기쁜 우리 젊은날 •진행/정재환 •연출/윤정수		8	
9		밤이 흐르는 곳에 •진행/유영미 •연출/신형철		9	
10		밤이 흐르는 곳에 •진행/유영미 •연출/신형철		10	
AM	12			AM	12
1				1	

• 기상정보 / 06 : 55, 21 : 10 (월~토) • 도로정보 / 경시, 30분 뉴스후 (오전 7 : 00~오후 9 : 00)



정직과 성실의 20년-태영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 태영은 더욱 다양한 부문에서
하나하나 새로운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기술로 이루어낸 수많은 종합플랜트 건설에서

대형 건축공사의 성공적수행에 이르기까지—

태영은 지난 19년간 신뢰의 씨앗을 뿌려 왔습니다.

새로운 생활문화와 풍요로운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과 정직으로 일관해 온 태영의 굳은 의지!

이제 값진 결실을 하나둘 거두고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주택·플랜트·탱크터미널·썬이로
·화학·해저·방송 그리고 기초과학산업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전력적인

도전정신과 참다운 실력을 갖춘 내실있는 기업.

태영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더 큰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를
방송이념으로 민영방송의
새로운 정을 펼쳐가고 있는
SBS 서울방송은 세계화, 디
안화, 고급화된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건강한 청서향양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태영산업·태영레저·태영화학·서울방송·서암학술장학재단

살아 숨쉬는 강렬한 영상!

그 실감 세계에 승부를 건다!



TV화질을 좌우하는 브라운관—
금성의 블랙브라운관이 좋습니다.

블랙의 화질이 살아있다!



블랙브라운관

- 외광(外光) 반사방지
특수블랙코팅으로 30%
화질향상
- 정전기방지
On/Off시 먼지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 기존 브라운관 ● 블랙 브라운관

퍼지인공지능 ● 주위 밝기와 시청 거리에 따라
색깔, 선명도, 명암 조절을 스스로—

블랙의 움직임이 강렬하다!



터보사운드

- 수퍼우퍼
중저음이 강하고 풍부한
터보사운드로 실감을향을
줄릴 수 있습니다
- 서라운드 스피커
2개의 서라운드스피커로 어떤 공간에서도 극강과
같은 실감압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2개의 서라운드스피커로 어떤 공간에서도 극강과
같은 실감압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CNR-2999H ₩1,298,000

■ 자재모형 CNR-2599H(25")

₩898,000

● 표시면 가까운
관찰소비가 가능합니다



■ 국내최초 무선헤드폰

혼자 시청할 땐 TV를 보지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적외선
무선헤드폰을 사용하세요

■ 발매 ● TH-100 ₩84,000

금성  미라클 블랙